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乘勝長驅의各部隊
南平廟、石婆店占領
長江北岸의追擊戰激烈

【霍山에서三十日同盟特派員發】지난二十五日 桃溪鎭、舒城線으로부터 一齊히 進擊을 開始한 我軍의 濱田、今野、濱尾의 各部隊는 二十九日夜 一擧에 大別山東麓의 關門인 霍山縣城을 陷落한後 里見、兩角兩部隊는 六安을 攻擊中인 ○○部隊와 呼應하야 그南方으로 神速果敢한 進擊을 繼續하야 二十八日朝에는 어느듯 淠河西岸으로 進出하야 六安으로부터의 退路遮斷의 態勢를 示하야 六安을 頑守하든 敵으로하여금 動搖敗退의 原因을 만든바 다시 二十九日 記錄的快速으로써 余部隊의 淠河渡河를 完了하자 六安으로부터 一齊히 潰走하는 敵을 急追擊하야 擊滅하면서 三十日 午前十一時 六安南城街道의 要衝 南平廟로突入、이를占領하엿다 그리고 二十八日 第一먼저 淠河를 渡河하야 二十九日夜에는 獨山鎭을 席捲한 食林部隊는 獨山鎭으로부터 俄然北轉하야 三十日夕에는 南岳廟及 그西南二十키로에잇는 敵의 重要兵站地區石婆店으로 肉薄하야 激戰한後 마츰내 同地를 占據한後 感激의 日章旗를 揭揚하엿다 이때문에 同地에잇서 防衛指揮에 當하고잇든 馮治安은 물러가고 光州에잇든 千鶚忠이 商城으로드러와 指揮에 當케되엿다고한다

【廣濟三十日發同盟】空陸이 서로 呼應하야 揚子江北岸의 敵重要據點인 廣濟攻擊으로 옴긴 佐野、若松、永野、長谷川、藤村、大賀各部隊는 黃梅를 무찔럿고 敗殘敵을 急追、三十日午後六時에는 廣濟의 敵前線陣地大河舖를 陷하거 十里地點에 迫하야 蕭、石山、洪家嶺、楓樹嶺의線을 確保하얏다 敗敵은 廣濟北方陣地로 遁走中인바 藤村○砲隊는 (숨을돌릴사이도업시) 어둠을 [illegible] 中이다

老婆店도占領

【○○三十日同盟特派員發】六安에 第一着한 大田部隊는 (숨을돌릴사이도업시) 同地西方에 蟠居한 敵을 追擊、三十日 午前一時부터 早曉까지에 六安北側에서 淠河를敵前渡河한後 六安西北方四키로의 要衝老婆店을 占領하엿다

馬鞍山中心으로
一大殲滅戰展開
德安陷落도時間問題

長江南岸

【胡湖城에서三十一日同盟特派員發】馬鞍山西方岷山을突破하고 南進中인○○部隊는 昨三十日夕陽○○에 達한後 先鋒部隊는 白雲山、賈家山의 東方山麓을 猛進中이다 又阜子로부터 德安街道를 南進中인○○部隊는 廬山東孤嶺의 隘路를突破 一路德安을 向하야 猛進中으로 馬鞍山一帶의 敵約二十萬은 只今擊滅될運命에 빠지게되야 廬山山麓을中心으로하는 南潯鐵道沿線一帶에걸처 一大殲滅戰이 展開되려는데 敵이밋고잇는 武漢防衛湖南第一線山岳陣地의 擊滅은 刻刻으로 切迫되야 要衝德安의占領도時間問題로化하엿다

【○○三十一日同盟特派員發】昨三十日夜부터 三十一日早曉까지 南潯鐵道西方馬鞍山一帶의 全戰線에亘하야 銃砲聲이 殷殷한바 이것은 梅田部隊、河合部隊의正面 山腹에 激戰이 展開된 模樣으로 검검한山 中腹各處에서 今曉까지 砲火의閃光이 보이며 我砲兵隊는 昨夜十時頃부터 市川部隊의正面 馬鞍山敵에 猛烈한砲火를퍼부엇스나 敵도頑强히抵抗하고 잇서 그南方十里山方面에서 激戰이 展開되고잇다

十里山攻擊開始 瑞昌山岳地帶突破

【九江三十日同盟特派員發】南潯鐵道沿線의 戰線은 敵의生命線 馬鞍山을 圍繞하고 連日壯烈한 攻防戰이 展開되고잇다 同山은 敵의廬山抵抗線의 左翼이되는바 標高百十四米로 敵에게는 絶好한防禦陣地이여서 그防備도嚴重을極하야 全山이하나의 토치카로되여 蔣介石直系 精銳로써 이를防備케하고잇다 地勢가 不利함에도 不顧하고 進擊하는我無敵皇軍의 精銳는 連日連夜壯烈한攻擊을 敢行하고잇다 昨日來 市川其他의 諸部隊는 馬鞍山의 右翼據點十里山의 猛攻을 開始한바 三十日을 終日토록 猛烈한攻戰을 展開하고잇다

【○○에서三十日井關同盟特派員發】瑞昌方面으로부터 南進한我 ○○ 諸部隊는 人見、岩隅、松山、秀松、大寺、杉本의 諸部隊는 二十八、九兩日에 瑞昌南方의 山岳地帶縱深數十粁間에 散在한 敵의 陣地를 [illegible]

하고잇든 敵에게 晝夜兼行猛攻을加한結果 二十九日正午에 完全히突破 南昌方面으로 急迫中이다 이戰鬪에協力한 我陸軍飛行隊 下村、田中、釘宮、前島等의 諸部隊는 一日間에 ○○機에達한 陸軍未曾有의 大編隊로써 敵陣地를 完全히爆擊 또는 壯烈한 對地射擊을 反復敢行하엿는데 隆隆한 山岳地帶를 겨우二日間에 突破함은 空陸異身同心的 奮鬪의結晶으로 敵에與한 損害의 程度와 今後의作戰에 寄與한것이만흔記錄的空陸協力戰이라고한다

一文字山進擊開始

【九江三十日發同盟】星子攻略部隊는 廬山東麓의 一文字山을奪取하고저 二十九日來 猛烈한進擊을開始하엿다 敵은我方에 迫擊砲를퍼부어 死力을다하야 防戰에努力하엿스나 我軍亦是 攻擊을緩和치아니코 果敢한 攻擊을 續行하고잇다

南雄上空서空中戰

【香港三十日發同盟】當地着報道에依하면 三十日午前九時半 我空襲部隊는 第一回○○機 第二回○○機로서 粤漢線及韶關 南雄等을 空襲한바 南雄上空에서 敵機와 空中戰을 演出하엿다

陽新、武漢間要塞化

【上海三十一日發同盟】武漢目을 標하고 揚子江南北兩方面으로부터 一路西進을繼續하는 皇軍의 突入을 目睫에두고 武漢平野東部一帶는 不安中에 緊張한비치 日益增加되여가고잇다 最近陽新으로부터 當地에達한 情報에依하면 이數個月以來 同地方으로부터 武漢에이르는一帶는 完全히 要塞化되여 武漢平野의東部로부터 武漢三鎭에이르는 道路의 一切의橋梁은 벌써 가까운將來의 總退却을豫測하고 爆破裝置를 하여노핫다 또 陽新을 中心으로한 農民이나 商人임을 不問하고 모두 强制的으로 徵收課役을 命하야 軍의 指揮下에 防備作業에 日夜까지 酷使되여잇는지가 이미數日에 及하기때문에 住民間에 怨嗟聲이 昂揚되고엇다

獨취兩國政府에
和協을極力慫慂
英緊急閣議의結果

【倫敦二十日發同盟】취코問題에關한 英國政府의 臨時閣議는 三十日午前十一時부터 따우닝街十番地의 首相官邸에서 개벌린首相司會下에開會 할리팍스外相 사이먼藏相 其他 全閣僚廿二名中十五名出席、特히 歸國한 헨더슨駐獨大使도 參加하야 緊張裡에 議事를進行、午後一時四十分에 이르기까지 前後二時間四十分間이나 愼重審議되엿다 英國政府는 이閣議의結果 취코問題에 關하야

一、獨逸、취코兩國政府의 和協을 招來하고저 온갓 努力을 傾注할것

一、獨逸政府에對하야 취코에對한 實力行動으로 齎來되는 影響의 重大性을率直히指摘할것

一、最惡의境遇를 考慮하야 國內防備에 萬全을期할것

等原則을決定하고 이線에따라 취코問題의 推移를注視키로되엿다

獨逸政府에 英政府態度通告키로

【倫敦二十日發同盟】英國政府의 閣議決定內容에對하야는 何等公式發表가업스나 確聞하건데 할리팍스外相의 報告에基하야 佛國이 취코援助義務를 發動할境遇 英國은卽時이를支持할 것이라는데閣僚의意見이 一致하엿다 一方이가튼 最惡의事態到來를防止하고저 다시 和協的努力을 繼續하기로되여 左의二大方針을採擇하엿다

一、獨逸、취코兩國政府間의 和協을 實現하기爲하야 今後온갓手段을 通하야 一層努力을傾注할것

一、獨逸政府에對하야 취코問題에對한 英國政府의 明確한態度를通告할것

이와同時에 一切必要한 外交的措置를講究할수잇는 權限을 개벌린首相과 및할리팍스外相에게 賦與하엿는데 對獨通告의 時機에對하야는 헨더슨駐獨大使의 歸任後헨더슨大使가 適當하다고認定하는 時機或은今日政府의 訓令을 기다려 이를通告키로되엿는바 一部에서는 九月初뉴른베르히黨大會에서 獨逸政府가 취코問題에對하야 最後的態度를決定하여 버릴것을 念慮하야 취코政府와 주데텐黨과의 交涉經過如何를기다리지안코 可及的速히獨逸側에通告하고저 急히하고잇는것으로 觀測된다

그리고今日의 閣議에서는 最惡의境遇를 考慮하야 國防關係閣僚가中心이되여 陸海空軍의配置에對하야 豫防的措置를 討議한模樣이다

(寫眞은 체벌린首相)

개首相발모랄宮에

【倫敦二十日發同盟】개벌린首相은前後二日間이나 重要協議를마치고三十日午前七時對午을 自動車에실고 悠悠한態度로 官邸를 나와 同七時二十分킹스크로스驛으로부터 路蘇格蘭의 발모랄宮으로 向하엿다 발모랄宮에서 首相은 조지六世陛下께 拜謁하고 閣議決定事項에 對하야 委曲言上한 바繼續하야 週末까지 同宮에滯在할豫定이다

獨逸政府 現役兵除隊延期

【伯林二十日發同盟】아바스通信社伯林支局은 三十日 確實한側으로부터 入手한情報라하야 獨逸政府는 來九月三十日로써 滿期除隊되는 現役二年兵의 除隊를 十月二十七日까지 延期하기로決定하엿다고傳한다 취코問題가重大한 이때에 右情報는 各方面으로부터 重大視되고잇다

米政府도重大視

【華盛頓三十日發同盟】취코를圍繞한 歐洲問題重大化의報에 米國政府는 多大한關心을 보이고 엇는바 루즈벨트大統領은 三十日午前 白堊館으로 헐國務長官을 招致하고 國務省에서入手한 諸般情報를基礎로 歐洲情勢에對하야 詳細히檢討하엿다 헐國務長官은 루즈벨트大統領과 會見하기 前에 國務省歐洲局 專門家의 參集을求하고 歐洲各地의 現地官憲으로부터接受한 公電에基하야 歐洲情勢에關한意見을聽取하엿는데 國務省側의觀測으로는 歐洲政局의危機는 來五日獨逸의 뉴른베르히市에서開催되는 나치스黨大會의 前後가最高潮에 達할것이라고하는데 意見이一致되엿다

취政府案에關해
콘트氏、베大統領訪問

【프라하二十日發同盟】주데텐黨代表 콘트議員은 三十日베네슈大統領을訪問하고 前後二時間이나 會見을하엿다 會見內容은明白치안흐나 最近취코政府가 提携한 地方自治區設置案을中心으로 意見을交換한것으로 觀測되는바 주데텐黨首 헨라인氏도明三十一日再次 英國의 斡旋役인 런시맨卿과 會見하고 주데텐黨側의態度를 說明할터이라고한다 그리고 주데텐黨側에서도 政府案에 對한 回答을 [illegible] 政府가提案한 地方自治區設置案內容은 極秘에 附하고 잇스나 주데텐地方에 廣汎한 自治權을 許與한것이라고 하야 취코政府로서는 매우 讓步한案이다 (寫眞은 베넷슈大統領)

취코問題로 佛國도國務會議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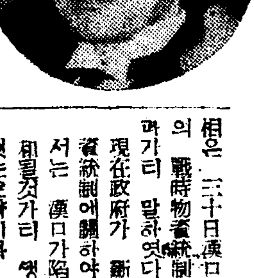
【巴里三十日發同盟】佛國政府는 三十日午前 엘리제宮에서 르브랑大統領主宰下에 國務會議를 開催하고 前後三時間이나 內治外交上諸問題를討論하엿다 席上보네外相으로부터 취코問題 國際政局 佛國伊太利關係 西班牙內亂 極東問題等에關한 佛國政府의 外交方針에對하야 詳細한 報告가잇섯는바 全員異議업시 이를承認하엿다 다음달라디에首相으로부터 國防上現地에서 生産力을擴充하기爲하야 四十時間勞働制를修正치아니치할수업게된 事情을說明하고 이改正實施爲하야 特殊한緊急命令을 發하기로意見의 一致를 보앗다

스탈린氏 自動車事故로負傷

【알소三十日發同盟】三十日소新聞의 報道에 依하면 스탈린黨書記長은 廿九日 自動車事故로 負傷하얏다고한다 新聞의報道內容은 如左하다 莫斯科로부터의 情報에 依하면 스탈린黨書記長은 廿九日 自家用自動車로 莫斯科로부터 쿠리市의 別莊으로 向하든途中 操縱機의 故障으로 自動車가 街路樹에激突、스탈린氏는 胸部에 負傷을 當하야 卽時治療를바덧는데 出血이 甚하야 매고목에 걸고잇다 그리고 運轉手는 職務怠慢의 嫌疑로 卽時 逮捕되엿다

戰時物價統制는
漢口陷落後도繼續
對支準備에서對蘇準備로

池田藏相談



【東京電話同盟】戰時經濟體勢確立으로 邁進하고엇는 商工省에서는 漢口陷落後에도그 後에올 新事態에 對應하야 戰時重要物資의 非常管理를 緩和치안코 益益그統制의 强化와 經濟産業政策의 圓滑한運營을期하야 그整備에 努力하고잇는바 池田藏相은 三十日漢口陷落後에잇서서의 戰時物資統制에關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現在政府가 斷行하고잇는 物資統制에關하야 國民의一部에서는 漢口가陷落되면統制가緩和되지안는가 생각하고잇는者가 잇는모양이나 板垣陸相도 말한바와가티 事變處理는 長期에亘할것을 覺悟치안흐면 안될뿐아니라 또 事變後에라도 皇軍은 全支에駐屯하야 治安維持를 擔當치안흐면안되므로 戰時物資의 統制는 現在보다緩和되지는안는다 더욱 이것은 支那와의 問題뿐아니오 對蘇聯防衛에關한 準備도 進行될 것이므로 오히려 現在보다도 그 統制를 强化치안흐면 안될는지도 모른다 漢口陷落을앞두고 我國民은 한층 새로히하야 一層堅忍持久의 精神을 堅持하고 戰時物資에關한 現在程度의統制는 今後數年間 繼續될것으로 覺悟하고 聖戰目的의達成을 爲하야 邁進하여주기를바란다 (寫眞은 池田藏相)

戰事解說

트리아논條約

트리아논條約은 一九二〇年五月六日 巴里郊外트리아논에서 聯合國과 匈牙利間에 締結된 大戰條約의一部로 匈牙利는 大戰當時인 一九一八年十一月에 墺匈二元帝國으로부터 分離하야 따로 [illegible] 政府를 세웟오나 [illegible] 共和國 [illegible] [illegible]

金鶴香油

現地部隊에感謝
北朝鮮의使命重且大
張鼓峰事件現地視察議員團과 本社特派員과의問答

【雄基에서 本社特派員吳快一發】張鼓峰과 그附近國境戰線을視察次로 組織派遣된 貴衆兩院의 議員團一行 二十八名은 小山衆議院議長과 橋本伯爵引率下에 三十日天草丸으로 淸津을經由 羅津港에到着上陸하야 特別臨時列車로 雄基에到着 一泊後三十日 午前九時半 現地를向해 出發하엿다 마츰國境視察次로 現地에 臨하든 本社咸鏡局長 및記者와 議員團과 가튼車에다게되야 여러가지 談話를바구엇는데 小山、橋本兩團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一、北朝鮮이 戰爭、水災等으로만흔 被害를當한데 對하야 同情한다 무슨根本對策을 講究하여야하겟다

一、淸津港은 商港으로서 또는 工業都市로서 國策線上重要都市가될것으로 생각되는데 只今施設은 너머나 貧弱하야 아프로 充分한施設을 하여야할것이다

一、張鼓峰事件에 際하야 第一線部隊는 世界無比의 軍規軍律을發揮하야 그使命을 達成하엿다 不擴大方針의 國策에따라 行動하야 現下國際情勢에 適切한處置를取하엿다

一、日滿經濟關係는 只今은 支那를加하야 日滿支블럭으로 發展되엿는데 그一翼으로서 日本海를거처 北滿을 聯絡하는線은 重且大한것으로 그에따르는 諸般施設이 期待되여 참된 共存共榮의 姿態가 나타나야할것이다

그리고 兩氏는 貴、衆兩院이 [illegible]

河村陸軍中將等 豫備役被仰付

【東京電話同盟】河村恭輔中將以下七名은 三十日附로 豫備役에 編入되엿는데 三十一日官報로써 發表되엿다

陸軍中將 河村恭輔
同 高橋 [illegible]
陸軍少將 片桐 [illegible]
陸軍主計少將 芹川透
陸軍軍醫少將 相葉 [illegible]
陸軍獸醫少將 河西 [illegible]
增尾 [illegible]

米國抗議는不當
今日外務省回答發送

【東京電話同盟】지난二十四日香港發武昌으로向하야 飛行中不時着한 中國航空公司旅客機의不時着事件에關하야 米國政府는同機에 米國人이搭乘하엿든것이 確實하다고하야 我方에抗議를하여온일이잇는바 外務省에서는 海軍當局과 協力調査한結果 그實相은 米國側의主張과 相違되는 點이잇는것이 明瞭하게되엿스므로 三十一日 右旨의回答을發하기로되엿다

支那民間機飛翔과 我方의希望

【上海三十日發同盟】지난廿四日廣東附近에서의中國航空公司旅客機『桂林』號의 不時着事件에 비처 中支軍報道部에서는 如斯한不祥事를 防止코저하는見地에서 三十日 濱田報道部長名으로써 作戰區域上空을 飛翔하는民間機는 그機體의形式、色彩、空路着陸地、搭乘者의身分等에關하야 미리 我方의諒解를求하기를 希望하는旨의聲明을發하엿다

濟河西南方서 一千匪團을擊滅

【北京三十日發同盟】津浦線地區掃蕩中의 我納見部隊는 三十日濟河西南方 十里半되는 地點에서 匪團 約一千을包圍攻擊하야 擊滅的打擊을 주어 潰走케한바 이戰鬪에잇서 敵의遺棄死體는二百이엿다

六安서支那軍 嚏性毒瓦斯를使用

【○○三十日同盟特派員發】連敗로 意氣銷沈한 敵은 六安을 退却할때 마츰내 我軍에 對하야 嚏性毒瓦斯를 放出한 形跡이 잇스므로 我軍은 支那軍의 毒瓦斯使用은 武漢陷落이 切迫될에따라 頻出할것으로 豫想하고 防毒에 萬全을 期하고잇다

人事·集會

▲白石巖氏(京城府會議員)三十日別世 三十一日午後五時若草町 西本願寺別院에서 葬儀執行

八面鋒

◇漢口陷落後도 蔣政權은 齋魯、陸相의 車中談은 心中談。

◇國共軋轢을 國府側否定、否定은 口頭로 肯定은行動으로。

◇對獨英態度 一轉强硬化 一張一弛는 老猾外交定石。

◇準備不足으로 教員難、豫算不足으로 學校難、學資不足으로 就學難、家庭不遇로 生育難 社會虐待로 敎化難、이망어린이는 多患難。

◇選手制度의 極端流弊는 體力私有의 禁制와 無異。

◇經濟의 繁榮과 함께 體力의 向上도 自由競爭의 月桂冠이 必要。

◇洋靴의 歷史는 不出四十年、草鞋麻鞋는 履千年歷史。

◇洋靴의 製造도 今日로 終焉! 四十年外道에 沈淪튼 蕩子는 父母의 품으로 도라가라。

產業部長會議
今日부터三日間

各道産業部長會議는 三十一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開催되여 南總督과 大野政務總監의訓示가잇섯는데 總督의訓示事項及 協議事項은 다음과 가트며 그리고 이會議는 三日間繼續된다

◇指示事項

▲資源課主管

一、物資動員計畫에關한件
二、國家總動員法의 施行에關한件
三、軍需品調達에關한件

▲殖產局

四、物資의調整
五、海外貿易의振興
六、昭和十二年法律第九十二號第一條에依한命令(輸出入品許可規則)件의改正
七、石油消費規定
八、瓦斯發生爐의普及獎勵
九、鐵鋼工作物築造의制限에關한件의改正
一〇、銅使用制限에關한件의改正
一一、鐵鐵鋼物及鋼製品의製造制限
一二、鐵鋼의配給統制
一三、鉛、亞鉛、錫等의使用制限
一四、繩製品需給調整
一五、皮革의使用制限
一六、고무의使用制限
一七、朝鮮工業組合令의施行
一八、朝鮮重要鑛物增產令施行
一九、鑛業用土地의使用收用許可
二〇、鑛業用物資의供給確保
二一、鑛業出願處分促進
二二、鑛業勞働者需給의調整
二三、朝鮮鑛業警察規則及 朝鮮鑛夫勞務扶助規則施行
二四、鑛業上公益障害關係照會에 對한 回答促進
二五、金增產의助成
二六、漁業用物資의 消費節約

▲農林局主管

二七、煙作改良增産의强化
二八、時局肥料對策
二九、畜產의積極的獎勵
三〇、米穀과增産食品質向上
三一、土地改良事業의遂行을 爲하야 事業에 即應시킴에 必要한措置

▲財務局主管

三二、產金의 集中政策
三三、粗金銀地金買入業者
三四、金의使用制限
三五、金의輸移出取締

▲專賣局主管

三六、葉煙草增產計畫遂行

◇協議事項

▲殖產局主管

一、重要物資廢品의 回收强化
二、時局의影響을 바덧는 中小商工業者並其從業者의 救濟對策

▲農林局主管

三、各種團隊生產配給統制

(寫眞은 全道產業部長會議)

近代商戰の華 大西土地が愈大陸へ登場

京城營業所

博多營業所

名古屋營業所

廣島營業所

東京營業所

大西土地拓殖株式會社
京城營業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一〇二番地
電話本局(2)三二九三·四〇六〇番
振替京城二七一七三番

大西土地拓殖株式會社

本社取扱의衣類品
咸南災地에分配
定平等十郡에二千八百點

【咸興支社發】 함남 수해가나자 재해민을 위하야 본사에서 모아보낸 의류 이천팔백사십점은 이십일 함남도 사회과의 손을거처서 재해각군에 분배하야 발송하얏는데 헐벗고잇는 재민들은 천재의 복을 입고가리 바가 잇슬것이라고 한다 각군의 배급은 다음과 갓다 그리고 이것이 재민들에게 보내는 의복으로 제일 먼저라고 한다
咸州 四九二點 定平 八六五 永興 六八 北靑 六二 端川 一五八 長城 一六一 豊山 四四〇 三水 一一六 甲山 八七 新興 一六五點

發掘屍體六十六個
咸鏡線中島驛山崩慘狀判明

북조선을 엄습한 재해 사자의 수해로 말미아마 이십구일 오전오시경 함경선 중도역(中島驛)부근의 인부숙소에 피난중에 산이 무너저 그속에 파무친 공사장인부 사상자 수백명에 대하야는 임의보도한 바와 갓거니와 그후 시체발굴에 착수하야 발굴된 시체가 남자 삼십구명 여자 십구명 남녀가 사망 어린아이 팔명이라 한다 그리고 아즉도 발굴 못한 시체가 다수 잇다는데 이번의 수해는 참경이라고 한다 서편이 가장 심하야 사망자의 수가 [illegible]
計 二千參百二十錢也
累計 五千五拾八圓參拾錢也

水災義捐金
===本社取扱===
一金二十一圓三十二錢也 新明學院生徒及職員一同
一金二圓也 [illegible]普通學校六年生一同

甘蔗知事
三道에慰問狀

함남북 평남지방은 이번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여 이미 각방면에서 위문금이 속속 모집되고잇거니와 삼십일 경기도에서는 이상 삼도지사에게 감자(甘蔗)지사의 이름으로 정중한 위문장과함께 각각 위문금 일봉씩을 보내엿다

全朝鮮自動車線路
大整理計劃遂完成
整理目標는併行線、一日走行에一割
九月一日부터全線에實施

철도국에서는 지난칠월일일부터 조선에도 까솔린통제를 실시함에따라 전조선까솔린사용량의 구십일퍼센트를 차지하고잇는 자동차선로의 정리통제안을 작성중이던바 요지음에 드디어 완료되엿스므로 구월일일부터 전조선 일제히 실시하기로되엿다 빼스는 철도와의병행선(倂行線)과 자동차서로끼리의 병행선과 교통수요가 희박한노선(路線)을 정리목표로하야 전조선 빼스의 일일주행(走行)십팔만키로구천일백육십삼키로가운데서일만팔천육백팔십일키로를정리하기로되엿는데 그통제를밧게되는주요한 노선은 다음과갓다 그운전회수의감소는최저일회、최고는팔회나된다

▲京畿道=▲永登浦—仁川線六七一粁▲京城—水原線八六、八粁▲開城—白川線五九粁▲京城—議政府線六九粁(一回乃至四回의運行回數減)▲安城—長湖院間四十一粁

▲黃海道=▲延安—白川三九粁▲海州—沙里院一四七粁▲海州—翠野八一粁▲載寧—信川五七粁▲信川—長淵一七七粁(一回乃至三回의運行回數減)

▲平安南道=▲安州—价川二四粁▲江西—鎭南浦三一粁▲安州—新安州六粁▲舍人場—平壤三一粁▲中和—運橋五粁▲鎭南浦—溫井二七粁(一回乃至二回의運行回數減)

▲慶尙北道=▲大邱—浦項一〇四六粁▲金泉—安東一二六、八粁(一回의運行回數減)

▲慶尙南道=▲釜山—東萊一四粁▲釜山—海雲台一七、六粁▲釜山—龜浦一八粁▲昌原—馬山一三粁▲蔚山—奇龍二六粁▲馬山—群北二七、七粁▲馬山—淮永二四粁▲釜山—新岩五〇粁(一回乃至六回의運行回數減)

▲全羅南道=▲光州—松汀里一四三粁▲順天—谷城五六粁▲順天—求禮三八粁▲筏橋—寶城三五粁▲鶴橋—咸平六粁▲麗水—順天(局營關係)全休(一回乃至九回의運行回數減)

▲全羅北道=▲裡里—群山二四粁▲全州—群山四六粁▲全州—南原六三粁▲井邑—新泰仁二四粁▲全州—參禮一四粁(一回乃至三回의運行回數減)

▲忠淸北道=▲淸州—烏致院一九粁▲淸州—忠州七〇粁▲大田—沃川一九粁(一回乃至三回의運行回數減)

▲忠淸南道=▲天安—洪城六二粁▲洪城—水東八六粁▲大川—水東六一粁▲天安—成歡一三粁▲論山—江景一〇粁(一回乃至三回의運行回數減)

▲咸鏡北道=▲城津—農城四粁▲羅津—雄基一八粁(三回乃至四回의運行回數減)

▲咸鏡南道=▲端川—群仙六一粁▲遮湖—會山五粁▲咸興—定平二一粁▲咸興—五老一六粁▲咸興—新興三七粁▲咸興—西湖津一六粁(一回乃至八回의運行回數減)

▲江原道=▲襄陽—東草一七、七粁▲杆城—巨津七、八粁▲高城—長箭一九粁▲末輝里—長安寺二八粁(一回乃至二回의運行回數減)

택씨、트럭도統制
까솔린節約年三百萬圓假量

택씨는 하로에한차에 최저삼콤마삼『깔론』최고오콤마구『깔론』을절약하기로되엿고 화물자동차는 하로에한차에 최저오콤마팔『깔론』최고 팔콤마칠『깔론』을절약하기로되엿다 이상과 가티각종자동차의 까솔린 소비를절약하게됨에 따라그 절약되는양은 대략일년에 일천팔백만『리들』이며 그금액으로는 약삼백만원가량되리라한다

不便은堪耐하라
木炭車出現으로緩和를期待
鐵道局監督課當局 談

국책에따라 까솔린을 절약하지안흘수업게되야 철도국에서는 일일부터 자동차선로를 전조선적으로 정리하게되엇는데 이에따라 종래에이용하던 여객의불편도 적지안흘터이며 영업자의수입에도 상당한영향이잇슬것은 면치못할터이다 이에대하야 철도국감독과(監督課)당국자는 다음과가티말한다

『빼쓰관계에 잇서서는 자동차와 철도 및 자동차선로사이의 병행선관계를 감소하엿스므로 그운행회수를 목표로한그 이용자에게 대해서는 다소 불편이 잇게될터이나 비상시국에 이만한 정도의 불편을참을수박게업는일이다 『택시』는 이용자나 영업자나 모두 상당한 불편을 면하지못하겟스나 영업자와 운전수가 주의를 바르게하기에 따라 주행키로를 늘리게될터이니 어느정도까지 완화가될줄로한다

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정율에따라 수요가 증가될을 예상하야 구월、시월분은 칠월분보다 일할을 증가시키고 또 십일、십이월분에대해서도 상당한증가를하기로되여잇스므로 물자의수송에 현저한 타격이미치지는 안흘줄로생각한다 또 시월중에는 신탄까스발생로(瓦斯發生爐)가 조선에도 상당히드러오게될 모양이므로 이로말미아마 상당히 완화될줄로 생각한다』

金甲順孃渡米
演劇學專攻次

이전(梨專)문과 졸업인 김갑순(金甲順)(二三)양은 이번에영문학과 연극을 전공하고자 금삼십일 오후내시 십오분 경성역발 열차로 도미하얏는데 『[illegible]』주의 『[illegible]』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리라한다 양은 이전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계속하야 모교의조수로 잇스면서 여자연극운동에만 힘을써왓다 (사진은 김갑순양)

處女鐵道自殺

【鐵道局發】 대전부 대흥정(大田府大興町) 삼백팔십번지 신덕임(申德任)이라는 열일곱살먹은 처녀는 삼십일오전 열한시쯤에 경부선 세천(細川)대전(大田)사이의 철로에서 경성으로 가는 특급『아까쓰끼』에 몸을던저자살해버렷다 무슨말못할 사정이 잇서서 죽은모양이라한다

輕薄妻의飮毒自殺

고양군지도면행주내리 (高陽郡知道面幸州內里)사백오십일번지 유자근동(柳自斤同)의처 김부덕(金富德)(二二)은 지난이십팔일 한동리에사는 권모(權某)의처 박씨(朴氏)와 사소한일로짜우고 화깜에 양재물을 먹엇는데 여러날을두고 고민하든중 삼십일밤에 드디여 절명하고말엇다한다

精米界巨商
疑問의自殺

서내에 당당한 점포를가진 정미계(精米界)의거상이 원인모를 철도자살을하얏다
서내영락정(永樂町)이정목촌도(村島)미곡상점의 주인 촌도무부(村島茂夫)(六〇)란 노인은 이십일부산방면에 소간이 잇다하고 집을나간뒤 소식이 업더니 이십구일오후세시경 안양(安養)역부근에서 철도자살을해버린것이 판명되여 삼십일그의 본집에서 시체를차저다가 장사를치루엇는데 부유한생활을하며 처자를거느리고 아모죽을만한 근거가업서서 의문의자살로 화제거리가 되고잇다

滑原對岸에共匪
朝鮮側에發砲熾烈
即刻越江出動、賊團을大粉碎

【新義州支局電話】 삼십일일 오전령시 오십분에 평북위원경찰서(渭原署)송진(松鎭)주재소대안만주국즙안현제이구태평구(輯安縣第二區泰平溝)에 공산비적진수명(陳秀明)일파팔십명이 서 조선측으로 향하야 평창히총을 쏘으므로 그주재소원일동은 응전하는 한편으로 위원경찰서로 급히 응원을 청하엿다 위원경찰서에서는 좌등경부보(佐藤警部補)이하이십오명의 무장경관대가 현장에달려가서 두시간동안이나 격렬히 싸운끄테 격퇴하엿는데 이편에서는 별로손해가 업섯스나 저편에는 손해가 만흔모양이라한다 금년드러 이번까세번이나됨으로 평북국경일대에서는 처와스므로 평북국경일대에서는 자못 긴장하고잇다

遞信座談會開催

【江界】 경제전강조주간(經濟强調週間)을 이용하야 국민저축운동강조방책에대한 일반의의견과 원조를엇고저 강계우편국(江界郵便局)에서는 지난이십칠일정오부터 강계읍회의실(江界邑會議室)에서 『체신(遞信)』에관한 좌담회―를열고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에대한 의견교환과 기타우편、위체저금、전신、전화에대한 좌담이잇섯다한다

色鉛筆

십자거리에 몰려오고가는사람의 듯 떼를『가라』『머저라』『돌어라』하고 신호를 하고잇는교통순사의 번거로운 그직책이나▲또 만원전차、빼쓰를운전하며 잠시잠간도 한눈을 못파고 운전대에서 땀을흘리며 마음과 마음이 치열하고 술취한스텐그 만일것이아닌가

그들의일은 역시그들의 각자생활을 위한것이라해도 직책만은사회적인것이라 개명한 사회인의 자격을가지고 손님들은 그들의 직책을 옹호하야 그들의직책을 원만히 달성토록해야 할것이고 ▲그반면 그직책을수행함에는만흔사람을 상대하는 만큼다수사람들의 편의를위하야 더구나더 원만하여야 할것은 말할것도업다 그러나 그사이에 충돌또는 시비흔은 천제등에 마찰이될요이상 버러지는것이잇스니 만흔사람가운데서 생기는일이 염려서 보기에도 창피하다 ▲어느때나 실수를실수로알고 마음과 마음이 친절하고 솔직해스면그 만일것이아닌가

日歷한장젯치면
새로나올五大法令

이제 오늘로써 팔월도다지나서구월이 내일부터 시작 된다찌는듯하던 여름철 무더위도드디어 그마금을 지엇는지 아침저녁으로 선들바람이 제법가을속으로 숨여든다 금삼십일일의 달력한장을 넘김으로써 결실의 가을철이 본격적으로 닥처오는것인데 이 거절의 고개를 넘으면서 우리사회가방면에 그영향이 만흔 새제도새법령이 실시된다 즉내일인 구월일일부터 우리일상생활에 가장영향이만흔 피혁사용제한령 (皮革使用制限令)과 연(鉛)아연(亞鉛) 주석(錫)『닛켈』등비철금속(非鐵金屬)의 사용제한령을비롯하야 광부노무부조규측(鑛夫勞務扶助規則)과 조선광업경찰규측(朝鮮鑛業警察規則) 조선광업령(朝鮮鑛業令)개정 등다섯가지 신법령이 시행된다 즉 물자총동원계획에 따른 전기괴혁비철금속의 제한령이실시 되는결과 구월일일부터는소가죽으로는 구두 혁대 운동구등을 못맨들게되엿고 말가죽 양가죽 고래가죽으로도 가방 『빤드크』『슬립파』지갑등을 못맨들게되엿스며 현재의 일용품이 그자최를 감추게됨되엿스며 또 납 아연 주석등을 사용하야 남비 가마솟주전자 희로 문바구 노리개등 일용품을 맨들수업게되엿다 또 조선광업의 비약적 발달에 비교하야 막대한수에달하는 광부의 인명사상에대한 광산설비의주요과 그들의 노동시간인금에 잇서서 열단의보충을하자는 광부노무부조규측과 광업령개정이 구월일일부터 실시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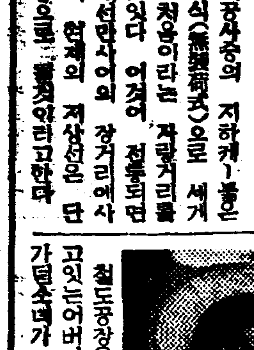
結局一名의超過
注目되는仁川商議戰
九月一日의選擧投票압두고

【仁川】 인천상공회의소(仁川商工會議所)의 총선거는 의원개출 기일도 지난 이십구일로써 마감한후 산업명의원에 입대격전을 예기하엿드니 결국오주옥(吳柱玉)씨의 출마를비롯하야 복도조(福島組)의 대표 앵정상부(櫻井相夫)씨의 출사가잇서서 결국은 일명의 초과를 보게되엿다 게출로써 긴상미를 띠던사무당국인 그회의소에서도 금년은 중원이된후로 처해 선거인원거로 원원은 구월일일은 더욱 선거를 일으켜 이끄는바이라한다

內地朝鮮"滿洲連絡
"地下케불"明春에全通
國防上、產業開發上重大한役割을期待

소화육년 만주국이성립됨에따라 내지、조선、만주는 한경제블럭안에서 경제적관계가 날로 긴밀하야저서 전신、전화통신기관의 이용이격증함에따라 현재의 전신전화회선으로는 도저히 그수요에 응할수업을뿐아니라긴박한 전시체제아래에서는 노출한 회선만으로는 안심할수업는사태에 다다름으로 체신성 체신국、만주전신전화회사에서는 내선만연락선으로 딴딴한 지하″케―불″을시설하기로 되여체신국에서는 소화십일년도부터 삼개년 계속사업으로 일천만원의 공비를들여 부산 안동(安東)간 구백여키로의 지하『케―불』부설을하기로하고 부내의주(義州)에 선만 전화건설사무소(內鮮滿電話建設事務所)를 두어 공사를담당케하고잇는데 벌써 전공정의팔할은 완정 되엿스며 예정기한인 명년삼월까지에는 완성하도록공사를 바삐하고잇다 내지는 체신성의손에 의하야 부산、바다(博多)간 해저(海底)『케―불』이 완성되엿스며 안동、봉천간도 만주전신전화회사에서 작년중에 완성되엿슴으로 명년삼월 부산、안동간이 완성되면 내선만이 지하『케―불』로 연결되는 것이다 『케―불』이 완정되면 전화회선이 일약 늘어 내선만의 전신전화통신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되어 국방상、산업개발상 중대한 역할을 하게될것이라고 하야 세상의 주목을 끄으는바이다

치어죽은少女의손에
아버지의벤또그릇
龍山驛構內의哀話



철도공장(鐵道工場)에서 일하고잇는어버이에게 벤또를 가지고가던소녀가 차길건느다 치어부상을 당한 소녀가 있다 지난 이십팔일 오전열시경 용산역구내 철도공장으로 벤또를 가지고 가다가 화물차에 치어 즉사하얏다는 가런한 기사가 잇섯다 즉 용산역(龍山驛)구내를 가로질러 가다가 화물차 ... 기관수와 사람을 본 순간에 이미 늦어 치이게 되엿다 이 소녀는 부내 안우정(安友町)의 ... 철도공장에 다니는 아버지에게 벤또를 가지고 가던 길이엇다 아버지에게 벤또를 가지고가다 기척한소녀로 이웃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든 소녀엿다 (사진은 죽은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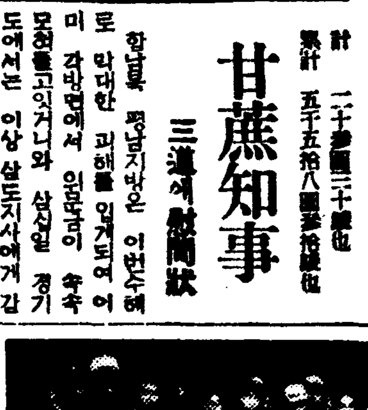
苦悶의對象은梅毒
世醫專醫學士疑問의自殺原因遂判明
現代青年氣質에警告

기보=어제새벽한시 주교정(舟橋町)삼십육번지 김동식(金東植)(二七)군이 목을매여 자살한데대하야는 죽을만한원인이업스므로 의문의죽엄이라하야 각방면으로화제가되엿는데 삼십일일에 이르러 그의죽엄을검시한 의사의진단서로 말미아마 원인이판명되엿다 즉의 사의검시에의하면 그는 매독균의보균자로서 이병을비관하야 자살한것으로되여잇다 그는 착실한 의학도로서 카토릭교도로서 한때질못으로화류계의 야곰 가서는안될 화류계의 드러선것이 원인으로 몸을버린이가 그의청년을 철벽할때에 그는 남모르는 사이에자기의 배운의학으로 이것을 퇴치하랴고 노력하엿스나 낫지는 아니하고 한편 종교신자로서 자기를 남들의 시망이 노파가면 갈수록 그의 양심상 고통은 심하엿고 파학도의 눈으로 보는 그 병은 자자전손해가면서 혐오을 가지게 되엿다

世專醫 李榮俊氏 談

김동식군이 매독을 비관하야 죽엇다고요 놀라운일입니다 더라리 독신으로죽고 병을후처지키지말며 신에게 속죄하려는듯 으로 목을매서 모든것을 청산하엿스니 사회악(社會惡)은 스물여섯의 착실한 젊은의학도를악질의 제물로바치엇다 수 업습니다 현대에 잇서서제일 무서운병이라고는 하나전연 고칠수 업는것도 아닌데 김군은 아마 예심상 고민으로죽은것이겟지요 적우간 청년들과 그청년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이 번일을 거울삼아 경고하고 십습니다 애석하고 놀나움에서무어라 말할길이업습니다

滿洲遠征갓던
朝鮮代表凱旋



지난二十七、八兩日間 新京서열린 朝滿對抗競技大會에 出場하엿던 朝鮮軟式庭球와 水上競技

代表一行 三十餘名은 三十一日午前一時四十三分 京城驛着列車로 元氏[illegible] 凱旋하엿다 그리고 一行十名은 一日午前三時三分 京城驛着列車로 凱旋하기로되엿다한다 (寫眞은京城驛에 내린 朝鮮代表一行)

"世界陸上六傑(二)

◇百十米障碍
1、올코트(米)一三秒九
2、레비아리(伊)一四秒〇
3、한푸레―(米)一四秒二
4、옷드리프(米)一四秒三
4、게테온(米)一四秒三
5、와인렌(英)一四秒四

◇四百米障碍
1、파타―(米)五二秒八
2、로랑―(加)五二秒九
3、군푸만(獨)五三秒二
4、보리칸(米)五三秒六
5、마기―(獨)五三秒九
5、지오와(佛)五三秒九

◇撐高跳
1、메이―(米)四米四三
2、메도스(米)四米四一
2、와―마―닷(米)四米四一
4、쁘로포―(米)四米四〇
4、베이르스(米)四米四〇
6、베이호베(米)四米三二
6、따도웰(米)四米三二

◇幅跳九
1、와드손(米)一六米一四
2、라이안(米)一六米〇四
3、라벨르(獨)一五米九八
4、벡커―(獨)一五米九五
5、화크네―(米)一五米八二
6、아렌―(米)一五米七七

◇投鐵
1、레비―(米)五一米七八
2、호벨웰케(伊)五一米四九
3、카―펜터(米)五一米二〇
3、와롯다―(米)五一米二〇
5、츠에이가(米)五〇米九八
6、소르리―(瑞典)五〇米八〇

◇投槍
1、즈―렌(에스토니아)七五米空
2、니카―넨(芬)七五米五〇
3、M・알비넨(芬)七四米四八

◇十種競技
1、후리스크(獨)五九米
2、하인―(獨)五八米二四
3、루츠조(獨)五六米四三
4、쉬트루즈(獨)五四米八三
5、울드쉬니(米)五四米六三
6、루르베(獨)五四米三三

◇十種競技
1、지뿌트(獨)七四六七點
2、케―쎈(米)六八四〇點
3、쉿빼―(獨)六五九二點
4、벡빌―瑞典)六五二八點
5、스코스트―(米)六四九六點
6、쉬로라―제(獨)六四二七點

◇鐵餅
4、아모덴―(芬)七一米一九
5、이아크(에스토니아)七一米空
6、바니오―(芬)七一米四六

秋期리―그第二日戰績

朝鮮野球協會主催의 秋期리―그戰 第二日은 三十日午後五時半부터 龍山鐵道球場에서 水原高農對鐵道1戰을 擧行하야 結局六對三으로 水原高農이 勝利하엿다
水原高農6(60…30)3鐵道1

今夜의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物語▲六時二五分(東)講演▲七時三〇分(東)歌謠▲七時四〇分(東)講演▲八時 前線將士의밤 敘事歌謠▲八時一五分(各局)鄕土消息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分어린이科學▲七時 趣味講演▲八時 連續講演▲八時三〇分 新民謠▲八時五〇分 野談 庾秋岡▲九時一五分 大琴獨奏▲一〇時 一〇分 레코―드音樂

天氣豫報

槪況 優勢한颱風은 房總近海約百五十키로의 海上을東北東으로 進行하고잇고 高氣壓은 北支那及 千島方面에퍼저여 朝鮮은 氣壓의 傾斜가 緩慢하고 北滿에도 低氣壓이 엿다 北朝鮮은 흐리고 其他는 개여고 中部以北의 內陸에는 어게가 發生하엿다 南朝鮮은 개이엿이고 內地는 흐린편이고 間島以北은 風雨가세다

豫報 京城地方은오늘맑고 北西風이 京畿道全體도 마찬가지다
昨日最高 三二度二
同 最低 二〇度九
卅一日朝最低 一九度五
同 正午 二七度七

京城高等簿記學院(後期)
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 (電話本局五三六〇)
朝鮮及滿洲警察官志願者는本會發行 警察官(講習合部全書) 京城府林町八三番地 鮮滿警察學會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一般外科 肛門科 レントゲン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八丁目 電話本局(2)一八四八番(京城)、本局(2)七二七五番(自宅)
京城鍾路二丁目 完全修理 時計 普信堂時計鋪
公認 朝鮮普文教員受驗準備講習所 受驗相談無料 開講九月五日 京城府明治町 興亞學院
音樂教授 피아노 바이오린 其他 京城 明治町
朝報案內 事業 有利 ...
從業員募集 一、女事務員 數名 一、ボイラー係 數名 右志望者는 來談하시압 本町 鐘紡

智異山探險記

智異山行第三日……

紅流橋凌波閣址

(7) 李殷相

七佛庵 우 殿後에 우리는 다시 길을나서며, 東晉孝武帝泰元三年(新羅奈勿王 二十年 西紀三七五)의作(?)이라 傳說하는藥師如來의 古像아페 禮를드리고, 비그친 맑은하늘을올 사이로 버리고 보면서무엇엔지滿足한걸음으로 寺門을 벗어난다.

庵前의 影池가에 다시한번 발을머물고 七王子傳說을 생각해본다. 父母의 至極한사랑의눈으로 못속을 바라보지라 얼굽아들의 그림자가 보히것어려니 어는 못속의 消化도 아니요, 七王子의 仙利도아니요, 다만 그眞心愛때문일것이다.

남은보아 分明히 물속이로 되 사랑과 그리움으로 꼭보아야한다는 그이눈에는, 보고저하는것이 보혓슬것이리라.

경가면 나그네들 못가에 허리굽혀 넉울을 서로그려 몸속을 드려보다 사람과 정성으로보면 냄옷새로 보러보다

예냔 七王子의父母가 여기와서 王子들의 얼굴을 보고 갓後에 엔萬사람이 이影池를 드려다보며 다 누구얼굴을 보려햇든지. 또지금 우리一行도 다그들이 누구의그림자를 찾는 것이런지. 그는내자신조차모르나다만그리운어들가진 나그네가잇술지덴 이影池가에와 발을머물고 自己의 찾는어를 차저보고갈것이다.

나는 다시 어七佛庵이 地相上으로보아 臥牛形局이기때문에 소먹는『운퉁(雲桶)』을 재미잇게 바라보면서 溪流中으로 뚫린 길을 나려간다.

이七佛庵下의 洞谷으로부터 雙溪寺까지 나려가는 十키로(二十五里)의長谷을 통하이러 花開洞이라 부르지마는 또달리 花開洞中에서도 이七佛庵下의 洞谷은 七佛洞이라고分稱하기도한다.

얼마쯤 나리다가 五六里라는 조고마한 谿村아메이르니, 물소리는 점점커지고 바위모양도 더한결 재미잇서간다. 다시얼마쯤 더나리다가 落葉松의畫峰가잇는곳을 지나서 新興이라부르는 數三家의村落이어엇다.

七佛서 나려오는물과 左便靈神洞으로부터 나려오는물이合水되어 花開洞이되어 나려저는데 못시니, 新興이라는村名은 前日新興洞中에잇던 新興寺의 어름으로부터 벌어오이들것이어오『新』을『興』으로속은 엣로부터 新日에 [illegible]것으로 보기가쉬우나, 其實의所[illegible] 는의新山記中에 新興이라든것을보면 本來부터 新興이엇든것임을 알겟스나 무엇으로넘는지實으로든이 나흔것은 [illegible]어다.

이新興 七佛의 兩水合流에 [illegible] 엇스나 [illegible] 新興이엇쳇고, 그다음에는 [illegible]를에엇스며, 橋上에高閣이엇서 어름은 凌波어엇다.

淸虛堂集三『凌波閣記』에依하면 明宗十六年(一五六一)에 玉崙이라는이와 明義이란 두분이 洞門에보린 數千의石斗石羊을 [illegible]

『山水[illegible]之地也[illegible] 곳, [illegible]閣 [illegible] 新曰凌波閣』(原記)

라한 凌波閣을 벌어보면 新洪亦凌波閣의 [illegible]이 [illegible]로 보면한것이 엇던모양이다.

그러고 淸虛師는 그凌波閣에 어가[illegible]을 남겻다.

[illegible]雲臥水
出[illegible]日[illegible]虹
[illegible]
何代閑民作老[illegible]
[illegible]化雨[illegible]
月明天上玉[illegible]空
[illegible]松[illegible]
[illegible]一天中

도여기이村家도 정인되[illegible]새로 이로것이다하겟지마는 그러한은[illegible]寺時부터 잇는것엇을알겟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紅流橋, 凌波閣도 업서지고 村家는 예대로라할지언정 人物과人情은달러저서 淸虛가 말한 『其居人也, 衣冠淳朴, 毛髮赤古治生只知耕鑿而已』는變하야 여山中에며걸레파는酒母가 안저잇습니다? 어찌하랴.

山中에 들어와 처음으로女子를만나매 異常한 感懷가솟아난다.

[illegible] 좋아가는 나그네의 순지게 보는 [illegible] 어이한 [illegible] 山에이 [illegible]하다가 되기될듯 하여보 다만 지금도 흘러나리는 [illegible]의[illegible]波와 거기잠기는 [illegible]影 天光이며 달라지지 아니하엿다.

凌波閣의 아름다움이 [illegible] 靈王의[illegible]가잇고, [illegible]의味가엇고, [illegible]도 지금 어 芳[illegible] 自在한風景을 따를수야 엇[illegible]것이냐.

그뒤라 紅流橋를
어느제 노핫던고
凌閣 芳草는
뭇허지지 안는것을
그날에 일어섯는사람
凌波閣을 세우도다.

제대로 누으운물이
제대로 안즈는돌에
人工은 들지마라
이대로 하조하라
길손이 구름더리고
夕陽압에 섯노라.

(寫眞은 紅流橋址의木柱)

學藝

知性의意味限定

헤-겔의歷史哲學에비추어

⑩ 金後善

어젓어 永久히 可能하다면야 이것도 괜찬켓다. 그러나 어느때나 갓가운 將來에 몬저避해온運命에 還送當하고야 말바에야當初부터 自己自身의 身體的現實에 勇敢히 直面해온것이賢明하겟다.

그러나 여기서 一片의誤解도 許諾되지 안는다.

우리는 身體를 사랑하여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身體를사랑하기爲하야 身體를 사랑하는것이아니다.

우리의身體愛는 生命을 사랑하기爲한 한個의『方法的사랑』이다.

生命을사랑하는 單純한身體愛로서 充足할수업다.

生命愛는身體愛와함께 一層더原理的으로 精神愛를必要로한다.

우리에게인서生命은文化이다.

따라서 世界史的文化를生産함 歷史의主體는 歷史的現實段階를 다만그것이 自己의身體란는 理由미테서 引受, 追從, 敬愛하는데 끝여서는안된다. 나아가서世界史的意味를가진 理念 卽指導原理를 自己의精神으로써 洞察하며 이것을現實的情熱로써 歷史的現實에 滲透식히는同時에, 後者를 前者와의一致의 方向으로 止揚하여가지안어서는안된다

그러기때문에 歷史的主體에게 絶對的으로 要求하여야할것은自己 身體(歷史的現實)의肯定的引受와同時에否定的引揚이다.

肯定的引受에는 知識人의積極的直面이必要하고 否定的引揚에는知識人의(世界史的理念-精神에對한)洞察的知性이 必要하다.

知識人의 使命이重且大한것은 實로引受와引揚을同時에自己一身으로서行使하여야하기때문이다.

單純한引受는 無批判的肯定이요 單純한引揚은無地盤的否定이다. 前者는盲目이요 後者는空虛다.

이러한盲目과空虛에서 우리는 아모偉大한것價値的인것도 期待할수업다.

모-든現實的不合理와 모-든現實的腐敗 모-든思想的混亂과 모-든『頭腦的貧困』은 이러한盲目과空虛에서 胚胎된다.

現實的不合理, 腐敗한要求대, 無批判的現實追從에 由來하는것이며 思想的混亂, 頭腦的貧困이란 要求대 指導原理의 喪失欠如에 由來하는것이다. 單純한 現實追從은 主體가知性의『盲目』에서 自己滿足에 빠지는데에잇고 指導原理의 欠如는 世界史的 理念方向에 對한 明確한 洞察이 喪失되는데에 잇다.

一部에서는 現實追從을 强要하게도하며 有利하다고 敬論도한다.

그러나 이것이 現實을 살리는 眞實한 길일가?

이것이 現實을 사랑하는 참된方法일가?

現實을 文化的 아모價値엄서 無理로 椅悶하야 一種의 不具者를 生産하는것을 非文化的, 非歷史的이라고하면 우리는同樣의 權利로써 歷史的理念에의知性的洞察을 阻止又는 妨禦하야 다만 現實追從, 現實禮讚만을要求 又는 說諭하는것도 亦是非文化的非歷史的이라고 主張할수잇다.

이런 모-든念慮를克服解消하자면, 歷史의主體는 어데까지, 文化創造的立場에서서 世界史的理念方向을 明白히 洞察하여理念과요새의 歷史的現實을 偉大한 構想에依하야 統一하지안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요새知識人의 世界史的使命이 잇다. 끗(七月二十五日)

落潮·朝暉

(夢)(金)(浦)(素)(描) (二)

林學洙

『저녁을 맞치고 한 帽子에 籠은 버지, 나는 또 砂丘에 나왓습니다. 오, 아름 다운 하늘! 바야흐로 노울이 지러 形形色으로 물드렷습니다. 당신은 일즉이 저러케 고은 하늘을 보섯슬까요?

『金 銀 朱紅 藍 草綠 玉色 어떠품은 재비초로……깃처럼 날리고 솜처럼 피여오르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림자처럼 퍼집니다. 帆船갓고 자게껍질갓고 고깃비늘 갓고 그 가벼운 치마자락 갓고 흑은 藍비치 짓고 銀비치 번두러를 쌔 맑은 물꼿진 물의蒸谷을 이루엇스며 草綠과 玉色이 깨여흐려 그사이에 點點히 銀비치 섞겨 草原에모여드는 羊群을 방불하며 寂寞한 潮水에 피여난 갈대꼿치바람에 흔들리는듯 아니거날과 잿비치 함께 기러 龍宮에 한 森林과긴岩壁인듯-朱紅파 金비츤 서로 얼켜 中空에 欄干을 거렷습니다.

變化하는 물! 變化하는구름!

『그러나 이윽고 그들은 모두 거러 銀灰 一色으로 漸漸 엷어지고 맙니다. 그러드니 다시 金비츠로 거기서朱紅으로 저 水平線 우에 擴然한 한點을 中心으로하야 이제는 眞紅으로-피빗같는듯 한술의 피로되어 하늘을 벙글리면 바다 도한 한술의 血紅色 빛로 되여버립니다.

『외편에는 長山串 바른편에는 아득히 椒島, 제법 멀리 떠거리고 發動船이 드러옵니다. 갈매기가 너울 머리 우를스치 지나갑니다! 마침내 해는 젓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엿습니다.

『太陽은 그 [illegible]의 살을 [illegible] 갑자기 波濤소리가 노피섯습니다. 도타본즉 바람으트위에잇습니다. 오늘이 七夕임을 아십니까? 나는 바다를 바라고 잠시동안 울퉁노래조차 이젓습니다. 이제야 天地를 支配하는것은 잿비칩니다. 하늘가에 엷은 彩色을마지막 지여버리고 뭬 一刹晴黑이 옵니다. 개고리가 웁니다. 이 멀리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아마漁夫리가 무엇일까요? 이 처량한소들의 그물 끄는 소리겟지요. 저기燈臺가 깜박어렷습니다.

『나는 인제 드러가야 겟서요』 하늘이돗바게 어지러워지고 怪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검은 구름이 갈래 갈래 찢겨 다름질치고 바람소리는 노파 天幕을 걷어버렷니다. 아, 나의 가는 燭불마저 꺼버렷습니다. !

『오늘은 일곱時에 깻습니다. 바로 砂丘로 나갓습니다.

『東쪽 南쪽 北쪽 하늘은 一面에 재빗구름이 덥혓습니다. 西쪽은 지는 玉色인데 물은 銀灰色으로 빗낫습니다. 徐徐히 玉色은 거튼 草綠으로 변하고 銀비츤 銀灰비츠로 변하야 이제는 움지기지안습니다. 天地가 아득하야 조으는것갓습니다 저기 黃海 한가운데 떠모르는한 汽船이 경게 黑煙을 남겨며 점점 水平線 뒤로 숨습니다. 여젼 도염宮時, 세상은 고요도 합니다! 『재비떼가 물러갑니다 十里도납는 모래벌 군데 군데 무성한 곳에서 황소가 계우러 웁니다. 하- 細雨가날립니다. 나는 도타섯습니다. 가뱝에 못보든 天幕이 또 하나 저기 버렷군요. 그 바닷세밥 기퍼 누가 저기에 와 첫솔까요? 문득 꿋업는벌판에 정처도 업시 羊乳를짜고 水草를 쫓는 저 蒙古遊牧民의 生活이 聯想되는군요

오늘은 바다에 나가지 안흐럽니다. 어제밤 船人이 長山串 遊覽客을 모집함으로 참가하얏드니 아참에 와서 거겟다는 사람이 나하나뿐임으로 중지한다 합니다. 千八百二十一年 스페찌아灣頭에서船長의 抑制할도 물리치고휘몰려오는 暴風을 향하야 닷감어 떠나가던 詩人쩰리의 心情을 나하나 밖게는 누가아오리!

新人短篇連載

女流短篇小說은 讀者여러분의絶大한 稱讚미테서 張德祚氏의 『閑夜月』十六回로 끄틀막게되엿다。朝夕으로 서늘한바람이 불기시작하고 밤이 실오리만치 결어지면 우리는 무엇보다도讀書의慾望을 누를수가업게된다。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讀書의慾望을 채우고 재미잇게채우기위해서 어 女流短篇이 끗나는대로 곳 뒤이어 다음과가튼대로 의 新人短篇을 連載하기로하엿다。우리文壇에서 新人登場의외우침은 노픗스다 아직 한번도實際로 그네들의 進路를 열어주고 精進을 勵勉한적이어엿다。그럼으로 어번連載는 정말 新人에게 그나아갈 大道로 열어주는것이며 또한 이번 執筆하는 어네분은 數多한 우리新人들中에서도 뛰어난 이들로 精金美玉이라 그新天의氣魄과 淸新한筆致가 반드시 讀者의머리에새로운 小說認識을 樹立하리라고밋는바이다。더구나 木朗崔根培의 揷畵를 곁들엿은 어새로운小說을 더한층 빗나게할것이다。

一『夜寒記』 許俊 作 一『이랑이』 朴魯甲 作
一 題未定 金東里 作 一 題未定 崔明翊 作

揷畵 崔根培 伯

朝鮮日報社學藝部

술을먹는사람은 전염병에약해요

술이백약의으뜸이란빨간거짓말

두뇌의작용도둔해저

『그러케 약주가 과하서서 몸이견디여 나서요?』

어러말을 한마디쫌은 누구나 하는것을보면 술이란 과연사람에게 해롭끼치는것이좋 엷잇엽니다.

그러나 그와반대로 술을먹는 사람자신은 술은 백약의 웃듬이된다고 력설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사람은 아마 술어약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술이우리들의 생활의 넘우기쁜관계를 가지고 잇는때문에 도리혀 이러케 술의해독을 여저버리고 도리혀 그 속에 무슨신비스런 힘어타도 들어잇는줄 멋게되는것입니다.

술어란 엷조의 독약업니다. 순전한 알콜을 일백오십그람만먹으면 사람이죽고 어린아이는설십오그람만먹으면 죽습니다.

술의성질

알콜-에는 수분을 빼려드리고 져방을 녹여내는성질어 엇습니다 그러므로 술을먹으면 물을작고먹는것입니다.

다음에 알콜을 마시고난뒤엔 얼운부터 다른곳곳에 신경이마취됩니다 그부분에의지해서 모든감각이 둔해집니다

따라서 두뇌의 기능어 마취가되고 선악의 의식이 업서지고 어대로 작고게속하면 모든기억은업서지고 그저 술을주고 려가 돌아가니까 살아잇는것입니다.

그런데 술을마시면 공연히조화하고 누구나 잘짓꺼리게되는데 그러키때문에 혹 원기가생겨서 그러는가하고생각는수도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반대로 신경작용이 둔해저서 피로한것을 깨닫지못하는 동시에 다른완전한 [illegible] 국의위스키(은)는 한번먹으면 어틀사흘식취합니다.

이러한술은 모든일에 능률을 올리지못하고 더구나 전쟁이엇술때는 이술을 금하지안흐면안됩니다.

세게가운데 로서아는 술을지독허먹는 나라이엇습니다. 그러나 세게대전이후 윈드카의전매는 무정줄고 현재차베트정부는 적극적으로 금주에 힘을 쓰고잇습니다.

미국은 본래 금주의나라어나 지금도 술을되도록 적게생산하도록 힘씁니다. 어쨋든 한나리에 전쟁이잇슬때는 부득이 금주를해야하고 어른들미암아 술로인한모든 범죄와 백국어 현저이감소되는것은거반사실업니다.

[illegible]

살결곱게하는데 꿀이제일입니다

여름동안에 타고낫쓴살결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훨신더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것을 요즘 손질해두지안코 그대로 겨울파겨울을 마저면 보부가 검어케되버리고맙니다. 이것을 손질하는데는 꿀이제일입니다.

먼저 자기전에 얼굴을 깨끗이 닥거내고 그다음 조흔꿀을 발러 맛사-지하듯해둡니다. 그런다음 그대로 한심분 두엇다가 까-제로가볍게씻처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극어 적은화장수를 약간발러둡니다. 여러케 얼마동언만 계속하면 살결어고와지고 윤태어 납니다.

그리고 꿀에는 또한 살결을 표백하는 작용이잇서 특별한손질을해저언허도 이것만으로도 히게됩니다.

어쨋든 살결면 곱게되면 잘으스름한 근대적인 살비출 무리로 허게만들될요는 업지만 그러한살비체 따라 화장과 오벗갈에도 관심해야될것입니다.

분은 결코 누른것을 말쓰지 얼어야합니다. 차러리 좌人벗게롱을 쓰는데 사기살빛보다 좀더영한 것을 써야합니다. 본래분이란발러노흐면 자연히지방과합해서본대색보다짓는게보이는까닭입니다 그리고 경솟하게 그은얼골에 방을넘우 붉게칠하면 천해보히고 그대신 입술엔 조곰지트게 발러서 조화를 억힐것입니다.

또는 의복은 되도록 짓든비치조코 히것어면 아주순백색이라야합니다. 보라비치나 크림빗의 추가색은 폐해그은것이 다 벗겨질때까지 입지안는것어 조습니다.

"채""소""의""빗"과"비""타""민"

빗갈마라성분도달타

종류와 빗갈을 가려가며 먹읍시다

신선한 채소는 하로라도 우리들의 밥상에서 빠질수가업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먹을때에는그 성분을 잘알고 잘배합해서먹을 필요가잇습니다 예를들면비타민이 만흔채소도 잘못데치거나 넘우끄리면 그것이 대부분업서지니까 되도록 손을덜해서 날것으로 먹는것이 조흡니다.

그리고 채소에도 양분이만흔것이잇고 덜한것이잇스니 놀이에 영양이잇는것을 어저서는안됩니다 경거져 섞거먹도록해야하며 어째든 채소에서 영양분을 잘취하는데는 녹수의해서 조호정분을 잃어버리지안토록 마음을써야합니다.

그런데 채소에도 여러가지빗이잇는데 말하자면 무는 희고 배추잎사귀는 푸르고 호박은붉고누르면서 각각그빗갈에 영양가도다르고 또그아름다운 빗갈

푸른채소류

서금치, 오이, 미나리, 그밖게 푸른빗이엇는 채소는 천연적으로 비타민A가잇습니다

붉고누른채소

도마도, 호박, 넘어 천연의『비타민A』가잇고 또는 이러붕류의 채소가 가지고잇는 붉고누른빗갈소위『카로진』색소는 우리몸가운데 드러가면『비타민A』의 작용을합니다. 그박게아조빠안 고초에도 카로진색소가잇습니다.

넌징가튼것도 되도록 생것으로먹고 토마토는 누구나 생것으로 먹는습관을 배워두는것이 조흡니다.

흰채소류

허채소엔『버라면·셔』가만습니다. 파나마늘의 흰부분에도 어것이만코 양배추 무등에도 만습니다. 그러므로 무가튼것도끄려도먹으려니와 생채나 김치를 당거 날노먹는것이 더조흡니다

이상과갓치 생각한즉 채소엔 내바릴것이 조곰도 업습니다우리네 가정에서 제일 잘못하는일은배추입사귀나 무입사귀를못쓸것이라고 내버리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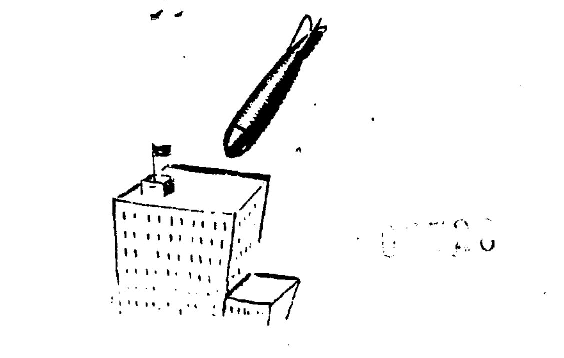
그것은 三계절로봐 생각이고 그러케 푸른입사귀일수록 조흔 영양분을 가지고 잇는것이니아네 내버리지말고 다먹도록해야합니다.

우리네 가정에선 외국사람들에 비하면 고기를 먹는것이퍽 적습니다. 그러고 채소를 만히 먹게되는데 채소에 영양분을 살닐줄모르는것은 대단히 앗까운노릇입니다.

지차리우

폭탄

폭탄의 힘이 얼마나
무섭게 센지는 어번지
나사변에서도 알수잇
습니다。섭여키로 그람
의폭탄 한개면 어층양
옥집이 악살박살이 되
구요 일천 키로그람의
폭탄한개면 커다란 괄
청집이 그냥 둘러빠지
고맙니다。



(금순사람 맹인영)

집안에서손쉽게되는 『솜트는법』

새것처럼 달라집니다

엔제 장속에되엇스니 어부자리도 다시 곳처야할때가왓습니다.

그런데 금년엔 특히 솜의통제로말미암아 어불들도 상당어 벗싸지고 벗싸질뿐만 아니라 물건이 동이나서 사게도 어려우려면이니 좀채로 새솜을사서 둘것갓지안습니다.

그리고 요즘새로나는 솜에대체로 인조솜이 절반은 석기여저니 솜이 아조질것은 정한리치엿니다。그러므로 새솜을사는것보다 되도록 낡은솜을 잘 손질해 쓰는것이 차라리낫습니다.

솜을 솜틀집에 벼여줄때는몬저 솜에부른 실밥을 잘뜻고도는 근수를 똑똑히 달어주고뗏을때도 달아밧는데 약암해가량 근수자 줄어들엇스면 그간틀림업는것입니다.

그담에 솜틀집에 주지안코집에서 그냥손질하려면 이러케하십시요.

솜을한정가량리 올려노아 밤어솜을 마치는데 한사나흘 이슬을 마치거나 그러치안으면물을뿜어서 어잿든 솜에 물이함빡배도록 하다음에 크다란 널판지가튼데 펴노코 꼭꼭눌러저면 아조 새깜언 때스물이빠짐니다. 그런다음 버례 너려서 잘말리고 하람을 쏘이면 아조 새솜가티됩니다. 몬저 방석솜가튼것으로 시험해보십시요.

솜틀에 틀어서 새로만든 솜어라도 이불을 꾸밀때 낡은솜든것은 안쪽으로두고 그우에이불거죽쪽은 새솜으로 한벌펴두면 조흡니다.

다마네기써를때 눈안맵게하자면

다마네기 가운데는 눈을자극하는것이잇서서 썰때눈어 여간 쓰리고 아프것어 업업니다.

이것을 그러치안케 하라면웃껍데기를 벗긴다음 한번끓는물에 솜적 적시여내가지고 썰면 덜아픔니다.

가루분사는법

가루분을 살때 가루가너무細것은 조치못한것이니 되도록보드러운것이 조흔건 말할것도업습니다.

또는 피부빗갈을 쓰시려거든 아주백색과 오클루가지를 사서 석거쓰고 혹 목가튼데 아주백색을 조금바를경우엔 백색대로 쓰는것도 조흡니다.

농동이로는 포도쩨리-

아어를 가지으로 포도쩨리를 만들어주면 조흡니다.

포도알을 따서 계꼭거케고흡은수건에대고 즙을짭니다. 거기에다 설탕을 너코 한번끄려둡니다.

그러고 제라진 (식료품점에서 팝니다)을 물에 적시여서 포도즙가운데너코 다녹을때까지 잘 저어서 다시한번 끄려냅니다.

그런다음 그릇에 담아서 목처럼 굿칩니다 그릇에 담을때 그릇모양에 따러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들수잇고 또 윤곽에 잇는 봉도들을 조금 떠러트려서 벗갈을내도햇서보힙니다.

女流短篇 閑夜月 (十六)

張德祚 作　崔根培 畵

『네? 고집이 옵니까?』

어리둥절해서 못는 양내인에게

『응 어려서은 고집때문이엇다네 아마도 자네 말한것가티 그때 누구나 나를 의레히 배소에 수일할것으로를 치지안햇나 메비가 나와서 매지징아며 몸부림을 치며 가티 대리고 가달라고 애걸하는꼴을 구경하자고 기다리고잇섯든 사람도 만햇다거니 나는 그 모양들이 곳심햇서 정숙한 끈전은 의레히 대전마마를 따를게라고 대내에서도 내가 출거할 차마련까지 안하셧다는것을 그런소문을 듯자 내가슴속에 끌러오르는 것은 무서운 고집이엇다네 너희가 그러케 생각하면 나는 일부러 어러케해보자. 그런 반동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런소리 내가슴에만잇슨 생각이지 알만 이약이한는 자네야 모를걸 그래』

과연 양씨는 이해할수업섯다는듯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잇다.

『그러치만 그 [illegible]』

군파 아드님들을 위해 손수옷올짓고 솜을펴고하엿다.

연산을 위해서는 손수 노흔수된친에무녕바지와 솜을히둔 수몽두리막이를지엇다. 겨우 기한이나 면할뿐이지 그이상을 바랄수업는 죄인이매 비단을 준비하여도 빼앗기고 가저가지못하겟기 때문이엇다.

호화한 궁전은 풍경소리조차 유난히 처량하다.

정청궁 남은 장판방에는 뎅그렁거리는 풍경소리를 들으며 밤오래人도록 수를 노치못하는 신씨의 모양이 보엿다.

그러나 신씨의 이정성도 운명이 따라주지안헛든지 그믐도 얼마남지안은 추운께이슬풍정전에는 연산의 병와(病臥)가 전하여젓다.

『지엽으로 고생하신지가 한달을 바라본다하옵건만 서편조차 어려운 동절이라 까마케 몰으고 잇섯습니다』

끈전이 몰래 보내여준 궁녀가 이런소식을 전하엿슬때 신씨는 기가막혀말도나오지안헛다

『[illegible]』

[illegible] 상감마마께옵서는 의관(醫官)을 보내신다하옵니다』

그러나 그 보내신 의관도 미처지못하엿다.

정덕(正德)병인년 설달 스무하로人날 메왕연산은 교동의배소에서 한만흔 눈을 감으니 림종하는사람은 시녀가셋.

신씨는 내일이 대한이라는 밤 달밝은 창가에서 이소식을 들엇다.

『그것도 천운이라면 할수업지만 기어히 마마를 뵙지못하고 꼿까지 나는 무정한 게집이되고말엇스니 그것이 서글투이』

신씨는 손에 쥐인 올베수건을 찌저지라고 잡어다리며 달빗처친 영창을 노려보앗스나

『원 별말슴을 다하십니다。대전마마께서는 때중하실때도 곤전마마를 불르시드란는데』

하고 밤을 타서 그소식을 들으려갓든 양씨가 수건을 눈에 대인채 대답하엿다.

『모시든 서대들의 말을 전해듯사오면 대전마마 엄종하실때는 다른 아무말슴도 업스시고 그저 신씨가 보고십다 선씨가 보고십다 짝주마다 마마를 차즈시드랍니다』

『정말일까 거레모진 천숙의를 두시고 하필 나를 찾스셧슬까』

가만히 무릅을 맛잡고 생각에 잠기다가

『참 사나히맘이란 알수업군』

그러고는 갑자기우후후 소리를 내여 선씨는 술비술비 통곡하엿다.

[illegible] 슨봉이엇스가 최후의 [illegible] 상감마채면도 고집도모다 헐어버리고 나실 [illegible] 내게는 부족햇지. 악만해도 덜 덜 덜고 참사람 사람다운사람으로 돌아오지못하는것은 내 [illegible]바』

신씨는 반간 눈을 감앗다 뜨며

『참후하나네 [illegible] 대전마마께서는 지금쯤 어이의 정성에 쌔혀서 오사나올 생언는게 접으로 지못하시겟나』

하고 미친것이 벌떡 일어선다

『여보게 나도 가겟네 대전마마 게신곳에 나도 가겟네。내가 웨 웨? 최기년보담 정성어 모자란다고 내가 웨모자란다고?』

『끈전마마!』

손을 뿌리치고

놀라서 가려 일어서는 양씨의

『어데보자, 제년어 더 갸륵한가 내가 더 지성이간』

아래입술을 깨물체 부르루 떠는 신씨의 두눈은 불붓어 만큼 혐혐하엿다 다음날 그는 곳 양씨를 경복궁에 보내여 왕대비께 자기뜻을 전궁하고 천문에 계당하도록 수선케 하엿다.

충충께서도 느끼시는 바잇서

『궐왕으로폐하면 의(義)는 군신이오 정은 형제니 어쩌 그소망하는바를 일우어주지 안흐리오』 하고 십이월 그믐께 교동으로 모의(毛衣)와 어물(魚物)을 보내라인해 그때까지 선편을 기다리라 하엿다.

신씨는 겨다리는 그동안에 그는 부

弱体強化　ブルトーゼ　補血強壯
各帝大病院常備　進血アウトホルモン
ブルトーゼ　アルゼンブルトーゼ　ヨードブルトーゼ　キナブルトーゼ　グアヤブルトーゼ　コアルブルトーゼ　ネオブルトーゼ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道修町 東京日本橋本町 京城府南大門通
B13 55

東京在留朝鮮人活躍相

移住朝鮮人逐年增
六萬五千의 多數 (昨年末現在)
赤手成功者도 不少한 反面에
大部分現狀維持에 汲汲

東京은 平安朝時代로부터 其當時 豪族이요 大富豪인 江戶氏가 이곳에 居住하얏다고해서 江戶라는 名稱이 잇다고한다 長祿年間에는 太田道灌이가 이곳에 築城하얏고 其後 德川家康이 道灌의 古城을 修築하야 幕府를 開設하자 政治의 中心地로 되엿고 明治大帝의 御遷都로 말미아마 帝國의 首府로되자 名實共히 日本의 中心地로써 發展하야오다가 大正十二年九月에는 萬古 未曾有한 大震災를 遭遇하야 大部分은 燒土로 化하얏스나 其後 十五年間을 經한 今日에 잇서서는 面目一新한 近代的都市로써 更生하야 實로世界的大都市로되얏다 南에 神奈川縣 西에 埼玉縣 北에 茨城縣을 境域하고 그야말로 一望無際한 武藏野大平野는 東에 太平洋을 面하야 展開되엿고 荒川은 秩父의 西境에서 發하야 東京市 中央을 貫流하야 東京灣으로 流入하는데 下流를 隅田川이라 稱하야 武藏野의 大動脈이되여 自然 人文上 至大한 影響을주고 잇다 緯度로보면 北緯三十五度 三十九分東經은 百三十九度四十六分에 在하야 北方과 西方에는 高峻한 山脈이잇서 冬季節의雪 寒風을遮斷하며 海岸에는 日本海流가흘러서 氣候는 一年을 通하야 大槪가溫和하며 雨量이充分하야 年降雨量은 一千五百七十四粍을 보이고잇다

東京은 實로 政治 經濟 軍事 學術 交通上 一大中心地로써 舊市區域은 行政區劃이 十五區에 人口가 二百餘萬에 不過하든것이 昭和七年十月一日에 接續郡市를 併合하야 三十五區로되여 面積이 五百五十三方粁이요 人口는 五百六十萬을 擁하는大東京市가 實現하야 米國「뉴욕」市에 다음가는 世界第二大都市로 飛躍하게되엿다

어쨋든世界的大都市下에 朝鮮人의人口動態와 生活現狀活躍狀況을記하면人口가六萬五千四百餘名(昭和十二年末現在)에 其居住地를 各地區別로 본다면 深川區 五千餘名을 首位로 本所區 荏原區 城東區等의 順位로 居住하고 잇는바 其中 學生 生徒 小學校兒童 一萬三千餘名과 工業者 五千餘名을 除하고 보면 남어지 約四萬七千餘名 即全人口의 約七割은 勞働者와및 그世帶主에 屬하는 無職者이다 居住關係는 亦是 住宅難과 借家難으로 勞働者의 大部分은數戶 乃至數十戶式 密集하야 居住하고잇스며 大阪地方에잇는朝鮮市場과 가튼것이 都無하기때문에 그들의 日常生活에 적지안흔 不便을 感하고잇다

朝鮮人中 工場主 商業家或은 運輸業者로써 天賦의 才幹과手腕을 發揮하며 飛躍的活動을하야 赤手로成家한 사람이적지안흐나 大部分의 勞働者階級은現狀維持에 汲汲한 狀態이다

東京地方에 朝鮮人이居住하기시작한 史的考察은 參考할바가업서 記錄하지 못하거니와 大震災當時를 새紀元으로하고보면 大震災前의 大正十年에는 居住者가 不過三千四百餘名이든것이 十年後의 昭和五年에는 三萬三千餘名으로 約九倍의 增加를보이고 其後年年히 增加하야 昭和十二年末에는 六萬五千餘名의數에 達하엿는바 將來로는 自然增加率과 아울러 渡航政策緩和等으로 其數는 年年多少의 增加를 示하리라고한다

다음에 敎育部門과 團體狀況을 본다고하면 震災前의 大正十年末現在의 朝鮮人學生 生徒 小學校兒童數는 一千六百餘名專門學校以上約六百餘名이든 것이 昭和十二年末現在는 其數萬六千(專門學校以上約三千六百餘名)名數의에 達하얏스며 其中苦學生이 相當한數에 達하리라고한다 朝鮮兒童만을 主로 敎育하는 機關은 耶蘇敎側에서 經營하는幼稚園이 一個所가잇고 主로未就學兒童을 收容하야「한글」까지 가르키는 夜間部學校가 新明學校外에 一個所가잇는데 兒童數는 兩校合하야 百數十名을 收容하고잇다

團體運動에잇어서는 數年前에는新幹會支部 槿友會支部 消費組合 學友會 各地方人親睦團體等 數十團體가 잇섯스나時代의 變遷에 따라서 解散 解消等으로 거의업서지고 現在는 各大學內에 朝鮮人學生으로 組織된 同窓會가잇고 同人學生으로써組織된映畵硏究會 學生藝術座等이잇고 體育團體로는 學生蹴球俱樂部와 白友庭球團이잇스며 荒川區에勞働者와 商工業者를 網羅한 荒門親睦會가잇고 朝鮮人工業者로만組織된 東京工業家協會가잇스며 東京府協和會의 統轄下에朝鮮人이 多數居住하는 地帶에는 協和會가잇서 敎化事業에 힘쓰고잇다 宗敎團體로는基督敎會가 十二個所가 잇서 敎人七百餘名이며 各敎會內에는 男女勉勵青年會가잇고 天道敎宗理院은 一個所에 其敎徒가 百餘名이며 佛敎로는 朝鮮人學生으로된 大正大學內에 佛敎團體가 잇스나 近者에는 日本眞宗, 眞言宗等으로 轉宗하야 其數는나날이 느러가는現狀이다

各地域別 人口分布와 人口年別增減表와 職業別統計表는 別項과 갓거니와 各部門에 亘하야 좀더 計畫的으로 具體的으로 詳記하려고 意圖하얏스나 紙面關係로 如意치못하게되엿슴은 甚히 遺憾으로 생각하나 今後 第二版發行에 際하야 다시 紹介키로하고 이에 擱筆하거니와 이번 紹介版發行에 際하야 愛讀者諸賢의 積極的支持와 絶對的 援助를 하여주신데 對하야는 衷心으로 深謝하야마지안는다

東京市芝區愛宕町一八 朝鮮日報東京販賣所
東京市向島區寺島町東三丁目六 〃 向島販賣所
東京市深川區猿江町四七 〃 深川販賣所
東京市芝區三田豊岡町二 〃 芝區販賣所主任 金用根
東京市板橋區五丁目一〇四九 〃 板橋販賣所

各區別朝鮮人數表 (昭和十年末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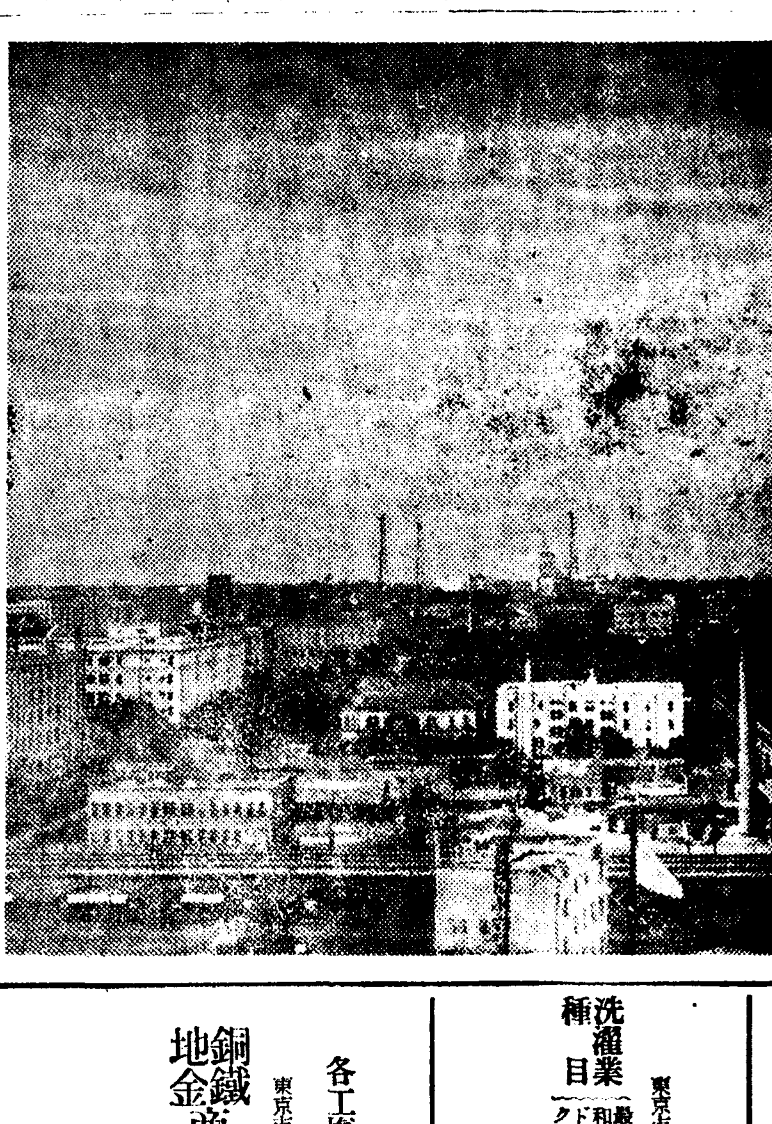
區別	男	女	總數
淀橋區	八九九	二六九	一,一六八
京橋區	五八一	二三九	八二〇
麴町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橋區	一五八	四一	一九九
麻布區	二三三	一三三	三六六
板橋區	六六五	四四一	一,一〇六
芝區	一,四三五	六六五	二,一〇〇
荒川區	三,四九七	一,四九九	四,九九六
中野區	八六〇	三六六	一,二二六
本郷區	三七七	七一	四四八
小石川區	六六六	三五六	一,〇二二
大森區	九二四	五五二	一,四七六
瀧野川區	三四二	一七七	五一九
本所區	二,八二〇	一,二〇九	四,〇二九
淺草區	六三〇	一九七	八二七
深川區	三,一四一	一,九六六	五,一〇七
下谷區	四九四	一五六	六五〇
澁谷區	一,〇九八	五二八	一,六二六
品川區	一,五三四	八一八	二,三五二
四谷區	一八一	八四	二六五
牛込區	五四〇	一一七	六五七
豐島區	一,六〇三	八四一	二,四四四
江戶川區	四九三	三三〇	八二三
蒲田區	八〇七	五四六	一,三五三
世田谷區	一,〇四〇	六六〇	一,七〇〇
荏原區	一,〇九二	六六五	一,七五七
杉並區	六三八	二四二	八八〇
目黑區	一,〇一三	五九五	一,六〇八
足立區	五九二	三九一	九八三
城東區	二,一六六	一,四五四	三,六二〇
向島區	一,八二七	一,〇五〇	二,八七七
神田區	七一二	一一九	八三一
赤坂區	五三	七	六〇
王子區	六六五	四三五	一,一〇〇
葛飾區	六四二	四九一	一,一三三
計	三八,八九九	一七,五五五	五六,四五四

朝鮮人職業別 (昭和十三年六月末現在)

部門	職業	男	女	計
官公吏其他自由業	官公吏	三五	—	三五
	宣敎人	三	—	三
	諸學校敎師	一一	一	一二
	牧師、僧侶	一二	四	一六
	醫師、辯護士	一八	一	一九
	記者、著述家、藝術家	六三	—	六三
	事務員	一六三	—	一六三
	其他	二一〇	一〇	二二〇
	小計	五二一	一六	五三七
商業	通商人	五八五	六	五九一
商業 (販賣及店員行商人)	人蔘販賣	八八	一	八九
	菓子類販賣	六五	一	六六
	飮食品販賣	二六四	一八	二八二
	屑買其他雜業	四,三一一	一五四	四,四六五
	小計	四,七二八	一七四	四,九〇二
商業	小計	五,三一三	一七九	五,四九二
農業	小作	一二二	三三	一五五
漁業		一四	—	—
勞働者 工業 纖維工業	紡績業 職工	六一	九	七〇
	紡績業 雜役	一二	一	一三
	織物業 職工	一四九	一五	一六四
	織物業 雜役	四〇	二	四二
	製絲業 職工	四	二	六
	製絲業 雜役	一	一	二
	染色工務 職工	二一九	一六	二三五
	染色工務 雜役	二〇三	一三	二一六
	其他纖維工業 職工	二一五	二一	二三六
	其他纖維工業 雜役	九二	二八	一二〇
	小計	九五五	九八	一,九五三
勞働者 工業	金屬及機械工業 職工	一,五〇一	三一	一,五三二
	金屬及機械工業 雜役	四五八	—	四五九
勞働者 工業 化學工業	釀造業 職工	二六八	一四	二八二
	釀造業 雜役	一一三	三九	一五二
	硝子工業 職工	一,〇一三	一〇〇	一,一一三
	硝子工業 雜役	三四二	二四	三六六
	其他化學工業 職工	五二九	二六	五五五
	其他化學工業 雜役	一七一	四五	二一六
	小計	二,四三七	二四九	二,六八六
勞働者 工業	電氣工業 職工	二二三	二	二二五
	電氣工業 雜役	六二	二	六四
	出版工業 職工	二〇六	九	二一五
	出版工業 雜役	三五	二	三七
	食料品製造工業 職工	一五六	二〇	一七六
	食料品製造工業 雜役	七九	一八	九七
勞働者 土木建築業	土工夫	五,九四二	一六三	六,一〇五
	其他	一,六五一	八五	一,七四六
	小計	七,六九三	二四八	七,九四一
勞働者 通信交通運輸業	通信勞働者	一八二	—	一八三
	鐵道軌道從業者	四〇	一	四一
	自動車運輸者及助手	一,三七二	六	一,三七八
	其他	四五〇	六	四五六
	小計	二,〇四三	六	二,〇五五
勞働者	仲仕業	三三一	—	三三一
勞働者 一般使用人	店員丁稚	七三八	一七	七五五
	農夫	一八	—	一八
	漁夫	八	—	八
	家事其他使用人	一,〇六六	一五七	一,二二三
	小計	一,八四九	一七四	二,〇二三
	其他勞働者	一,八七八	五四	一,九三二
	接客業者	一九六	一〇五	三〇一
	其他有職者	八七七	一四三	一,〇二〇
	學生生徒	五,一四七	五八〇	五,七二七
	小學兒童	三,一七三	二,四七八	五,六五一
無職	世帶主	二七一	九〇	三六一
	從屬者	七,五八〇	一,五三四	[illegible]
	小計	七,八五一	一,六二四	[illegible]
合	計	四四,四〇六	二一,〇五七	六五,四六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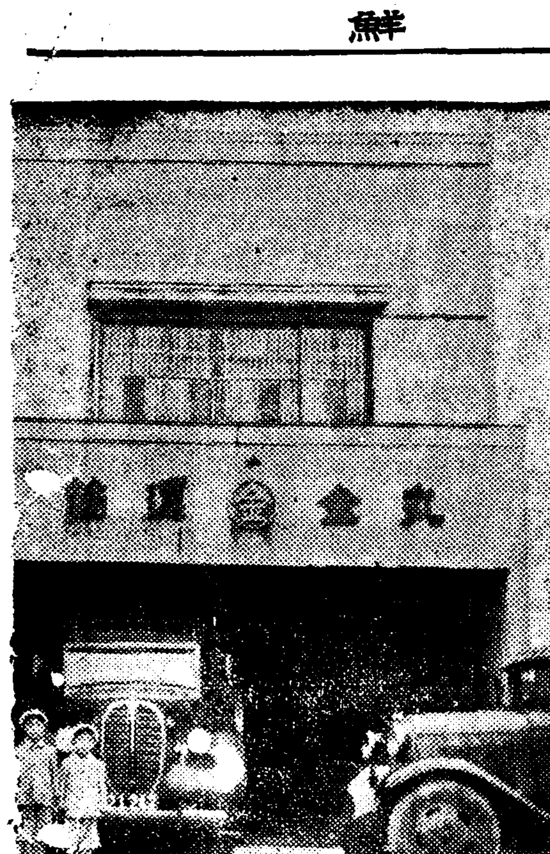
年別增減比較表 (昭和十三年六月末現在)

年別	總數	學生生徒小學兒童	其他
大正十年末	[illegible]	一,五三六	一,〇三六
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元年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二年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市街一部

激烈한 競爭克服 斷然斯界의 王者
丸金運輸部 金英兒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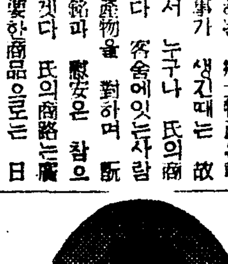


東洋文化의 中心地이며 六百萬人口의 生存競爭이 甚한 東京에서 朝鮮人이 各界를 網羅하야 活動함은 그 努力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生覺할때는 우리가 感泣할일이지만 其中더욱 困難한 運輸事業界의 金英兒氏가 잇다 氏는 郷里에서 일직 漢文을 工夫하고 生覺한바잇서서 大正十二年에 그 兄님되는 賢兒氏와더부러 來東하야 東京市電氣局에 就職勤務타가 昭和三年에 若干의 貯蓄을 가지고 兄弟合力하야 京橋區南飯田町一番地에 丸金運輸部를 創設하고 運輸業을 開業하엿스니 特히 大資本을가지고도 運輸業界에 地盤을 獲得하기 困難한 東京에서 況少資本으로 이것을 始作할때의 그 膽力을 可히 알수잇스며 그는 놀라운 努力을 想像할수잇슬것이다 無言强直한 그는 오직 成功을 爲하야 晝夜를 分別치안코 猛活動하기를 十餘年동안 하루가티 하야 今日의 地盤을 築成하엿스니 激만흔 競爭者를 克服하고 오늘을 이룬 其功績은 果然 크다할것이며 現在는 三井物産株式會社 直屬의 三四石炭株式會社의 專屬이 되여 日加增勢로 繁盛하야 深川區東陽町三丁目 一番地에 住宅及巨大한 車庫를 建築하고 貨物自働車도 七八臺式 所有하고 躍進中不幸히도同苦同樂을하든그 兄님賢兒氏가別世하게되여 氏로 하여금多大한 精神上苦悶를 주엇스나百折不屈하는 氏는더욱 熱誠을다하야 今日을 이루웟스니現在는相談役으로 氏의親弟淳兒氏가 來東하야 活動中이라한다 바라노니 以後도 一層奮鬪하야倍前의成功을 빌며無言實行主義를 或은氏를 모르는 사람은 誤解하기쉬우나 그러것은 꺼리끼지 말고오직 無言 强直 實行主義로더욱더욱 活動하면 氏의將來는多福할것이다 氏는全南濟州島濟州邑禾北里出生으로 現在三十四歲의 前途洋洋한 活動期에잇다 (사진은金英兒氏)

壯年實業家 姜信永氏

大資本을 [illegible] 銅鐵과 地金仲介業을 [illegible] 經營하는한편 和洋家具一式製造와 土木事業方面에 活動하야 巨富가된 氏는 本籍을 全南谷城郡三岐面晉里에두고 大正時代에 玄海灘을건너 東京에 入京하여서 前記方面에 着眼하야 全力을 다하야 健闘하는中에 時節의 急變에因하야 여러가지 波瀾이닥처왓스나 氏는 不屈의 精神을가지고 再次 誠意와 熱熱한 努力을다한結果 今日에는 蒲田區東蒲田五丁目三番地에 木村商店을 設立하고 家具의 販賣를 副業으로經營하야 第一、第二의分店을 所有하고잇는 壯年實業家이며 더욱이 氏의事業의 크나큰 發展이 期待되는바이다 (사진은 姜信永氏)

唯一한 土產品商
平壤商店主 金在植氏



平壤商店主 金在植氏는 三十七歲의 青年實業家이다 東京에 家庭을가진 朝鮮人으로서는 三尺童子라도 小石川區久堅町 平壤商店을 몰으는이는 업슬것이다

氏가 取扱하는 鄉土物產은朝鮮家庭에 行事가 생길때는 故鄉色을 차저서 누구나 氏의商店을 찻게된다 客舍에잇는사람으로서 故鄉產物을 對하며 旣實할때의 感銘과 慰安은 참으로 크다고하겟다 氏의商路는廣範圍이나 重要한商品으로는 日用品의 鄉土物產이며 其中에도 朝鮮織物의 都賣商으로 더욱有名타고 하겟다

氏는 大正十一年三月 故鄉慶南金海邑江倉에서 뜻한바잇서渡東하여 大正十五年三月에 明治大學專門部法科를 卒業한後 東京에 在留하는 故鄉사람들이 절실이 求하려는 鄉土物產이 充實치 못한것을보고 朝鮮各地와 連絡을 取해가며 조흔物件을廉價로 取扱하는 一方 새로운 經營方法으로 이商業을 開始하여 오늘의 繁昌을 이루웟다 한다 鄉土物產販路의 發展은 實로 意義기픈일이니 아프로 더욱適去에 지지안는 發展과 繁昌이 잇슬것으로 미더진다고한다 (사진은 金在植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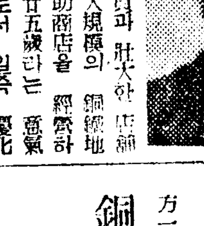
鐵物商의 一人者
黃東昌氏

黃東昌氏! 이분은한번보아 꾸밈이 溫順하고 仁慈한感이잇다 그러나 이분의 過去를들으켜보면 十餘年前에는 社會運動에도 關係하엿스나 時勢의變遷에따라 商道에로 一直線으로 猛進하야 至今은 在留하는朝鮮人中 有數한 鐵物商으로 되엿다 氏은으로 其沈着溫健한 性格으로꾸준히 努力하면 不遠하야 他의 追從을 不許할日商이될것이라하며 現時局下其他價金屬에對하야相當함이가잇스면 (右記住所로 問議하면 親切히應答한다고한다 (사진은 黃東昌氏)

代表的實業家
李鍾昌氏

本籍을 京畿道水原郡松山面鳳頭里에두고 現在東京板橋區板橋五丁目一〇四九番地에 居住하는 李鍾昌氏는 在東京朝鮮人中에서 力量잇고 有數한 手腕家로 名聲이 높다 氏는 郷里普通學校를 卒業하고 大正十四年에 渡東하야 大志를품고 渡東하야 中等學校 [illegible] 畢하고 同時에 苦學牧畜場에서習得한 技術을 本位로 獨立하야 牛乳店을 開設하게되엿다 本來부터 手腕잇는 氏는 牛乳店三年에 相當한 資本을 聚取하고 板橋東亞化學工業株式會社를 創設하야 同會社主任으로 就任하야 [illegible] 三年後에 事業의 [illegible] 本金十萬圓의 滿洲株式會社를創設하고 專務取締役에 就任하야 現在에 至하엿스며 또 將來로 運送店을 經營하는 手腕家로서 氏가 渡東時에 품엇든 大志를 着着實行하야 堅實한 步調로 [illegible] 以後 더욱더욱 [illegible]

銅鐵商界의 權威
金百默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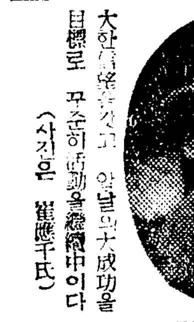


三十名의 店員과 壯大한 店舖를 所有하야 大規模의 銅鐵地金商, 金本百之助商店을 經營하는 氏는 當年廿五歲라는 意氣揚揚한 青年으로서 일즉 慶北金泉郡甑山面新岩洞出生으로 當地의 小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單身渡東하야 銅鐵과 地金販賣業을 始作한後 不過五年도못되여 氏의 奮鬪努力한 結晶으로서 現在와가튼 巨大한 商店을이루엇다 그뿐만아니라 氏는 絕對한 活動力의所有者로서 朝鮮人들을 爲하야 各方面으로 活動하여 일면 愛護會의 團體와 幹事의 重職에잇는等 青年으로서의 前途를 各方面으로부터 囑望하는바이다 (寫眞은 金百默氏)

方一氏
聲樂學院設立者

方一氏는 江原道出身으로 多年間 聲樂을 硏究하엿고 東京朝鮮音樂家協會에서도 幹事로써 만흔活動을하야왓다 數年前에東京聲樂專門學院(中野區小瀧町)을 創設하야 斯界의 權威者를 敎職員으로 招聘하야 學生數는 나날이 늘어 現在는 相當한 數에 達하야 隆盛을보이고잇다 天賦의 才幹과 手腕을가진氏의 將來는 매우 期待하는바가 크다

銅鐵製紙原料仲介商
崔應千氏



銅鐵과製紙等의 工業原料仲介業의 巨商으로서 現在東大한 資本을 獲得한 氏는 일즉 慶北永川郡新寧面新德里出生으로서 十年前 大志를품고 그리운 故土를 등지고 渡東하야 川崎市觀見方面에 居住하면서 土木事業其他工業方面에 着手하야 努力을하얏스나 遺憾히도 成就를못하고 失敗에 도라갓다 그러나 氏는 堅忍不拔한 意志를 조금도 버리지안코 旺盛한 奮鬪活動한結果 現在川崎市 唯一의工業原料仲介業者로서 多大한 信用을 엇고 압날의 大成功을 目標로 꾸준히 活動을 繼續中이다 (사진은 崔應千氏)

藤椅子界의 元老
元容乾氏

氏는 咸南端川郡端圓福上里出生으로 郷里에서 漢學을 專攻後 여러가지事業을 經營活動하든中 大志를품고 大正十五年四月에 渡東하야 昭和二年에 東京市深川區海邊町十一番地에 藤椅子商을 創設하고 大活動中이며 特히 政治에 만흔 關心과 興味를가저 區會議員에도 立候補한일이 잇스며 將來에도 出馬만하면 期必當選되리라는데 深川區에는 朝鮮人이 特히 만흔만치 氏에 對한 期待가 크믄勿論 在東京朝鮮人社會의 一異彩로 되여잇스며 不遠하야 京城에도 支店을 設置하고 積極的으로 進出할計劃이라고한다 (사진은 元容乾氏)

手腕才能兼備한
青年事業家 金鍾煥氏

本籍을 慶南統營郡長木面矢方里에두고 茨城縣水戶市西原町三二〇九番地에 居住하는 金鍾煥氏는 大正十三年七月에 遠大한 抱負를가지고 渡來하야 十餘星霜을두고 온갖苦痛을 몰리치고 現在는 株式會社東亞商會社長과 東亞更生會總本部會長의 要職을 占하고 잇스며 本來手腕과 力量이 豐富한 氏는 敎育事業에도 만흔 努力을하여 特히 [illegible] 茨城縣內水害時에도 救濟事業에 大活躍을 하엿다한다 (사진은 金鍾煥氏)

前途가 洋洋한
青年工業家 崔成珍氏

氏는 慶北永川郡邑內出生으로 當年二十五歲의 意氣潑剌한 青年工業家이다 鄉里小學校를 畢業한後高遠한 理想을품고 渡東한것이 昭和六年 氏가十八歲때이다 某會社職工으로 就職한그는 아직少年期를버서나지못한年少한몸이지만 暫時라도 生覺한 決心을잇지안코 本來技術에對한 特才를 利用하야 術技를 習得하는一方 生活費의一部를 貯蓄하야 東京市荏原區中延町에 野本電機製作所를 設立하고 技術과 信用을本位로 能熟한手腕을 發揮하야 工場은 長足의 發展을 이루워 現在는 四十餘名의 職工을使用하고 工場도 第一、第二工場까지 創設하게되엿스며 十餘萬圓의 巨資를이루고 東京工場協會評議員의 要職으로잇는데 以後一層努力하며 自重自愛하야 大成功을 비러마지안는다고한다 (사진은 崔成珍氏)

勢는 破竹의勢로 飛躍的進展을보이게되여 滿一周年을마지하야서는 數十名의店員과 莫大한資本을 獲得하게되엿다 따라서 現在는 製鐵原料商의中心的地位에 잇고도同業者間의信望이 두러워 압날의大成을囑望하는바가 크다 (사진은 李殷聖氏)

鐵物商으로 成功
宋鳳憲氏

氏는 忠南公州郡灘川面安永里出生으로 昭和二年에 渡東하야 苦學生活을하며 中學을卒業한意志가堅固한靑年으로 學校를畢하자 昭和八年에 茨城縣久慈郡太田町山下一一八六番地에서 鐵物商을始作하고 勤儉力行 數年에 至今에는 絕對的勢力을 築成하야 堂堂한鐵物都賣商으로 多大한資產을모으든바 前途가매우期待된다

天井板加工工場
趙龍文氏

趙龍文氏는 深川區木場町에서 四十名職工을使用하여 天井板加工工場을經營하는이로 大正九年渡東以來 天井板加工工場의職工生活을하며 技術과經營方法을 體得하는一方 가진苦難을 익이고 自力으로 現在의 工場을 獨立經營하야 繁昌을이룬 立志傳中의 人物이다

故鄉은 全南順天郡道岩面이며 今年三十三歲의 青年實業家이다

氏는恒常 新味잇는製品의 製造와 品格向上에 努力하는분으로 將來가囑望되는분이다 (사진은 趙龍文氏)

患難相助하는 運轉手同友會

[illegible]

右寫眞은 春香房開店紀念全景
東京市京橋區湊町一丁目五
純朝鮮料理元祖 春香房
(市電은新榮町或은八丁堀市バス는뗏보즈下車)

銅鐵地金問屋 金本仁吉商店
主 金仁浩
川崎市中丸子六二七
本籍 釜山府瀛仙町

有志 金昌樂
東京市深川區平久町

東京 金斗植

妓生 徐山玉
桃花、英子、信子
花子、菊子
本籍 慶北慶州邑

朝鮮料理 南鮮館
主 崔二今
東京市城東區南砂町一ノ九三

和洋料理 カフェー 日新館
主 趙龍述
川崎市大島二ノ三九五
本籍 慶北慶州邑

各工場特約店
銅鐵地金商 太田商店
東京市蒲田區羽田町一丁目一一八〇
主 金振鉉
李應祿
電話羽田(04)六〇八番
本籍 慶北永川邑

古物都賣商 宋銀錫
茨城縣久慈郡太田町金井町
本籍 全南高興郡豆原面

朝鮮料理元祖 江南食堂
東京市神田區神保町二ノ二七
主 姜聲南
電話九段(33)四七三四番

洗濯業 (最高級和洋服ドライクリーニング) 種目
東京市深川區平井町一ノ一八
主 金光國
本籍 慶北聞慶郡加恩面上槐里

輸出織物商 金井商店
群馬縣桐生市本町四ノ三三二
電話 三一六八番

急告!
日本內地는勿論이요 멀니 臺灣、滿洲、朝鮮等地로부터 만은註文을 주시옵거 諸位에게紙上으로 謝禮하나이다 特히仰告하옵는바 各社에코ー드 朝鮮盤을 具備하엿사오니 葉書로 下命해주시면 迅速配達하오리다

朝鮮物產
毛織物類
綿布羅紗
人造絹各種
各社에코ー드
食料品並
雜貨書籍

合名會社 財成商會 (戶越銀座通)
東京市荏原區戶越町七〇九
支店 東京市深川區牡丹町四ノ二

朝鮮人社會重鎭
名望家 姜永德 氏

氏는忠南禮山郡新所面井田里出生으로 大正十四年一月에 生覺한바잇서 渡東하야 今日까지 十餘年을두고 朝鮮人社會를爲하야 꾸준한 活動을하여오는 當年三十九歲의 靑年活動家로서 東京在留朝鮮人으로 어느階級을莫論하고 氏의名聲을모르는이가업는만치 氏는朝鮮社會를爲하야 恒常努力하여오는 東京社會에업지못할 人物이다 氏는性格이堅直하고 頭腦가明敏하야 事理를分明히判斷하고 强大한實行力을兼備하엿스므로 如何한難事라도 能히處理하는等 實로過去는 勿論이어니와 將來에잇서서는 더한층 東京社會에업지못할 人物이될것이다 氏는過去十有餘年間을두고 너무過勞하엿든지 近來健康을害한듯하야 氏를보는사람마다念慮를마지안는다 三十九歲의靑年期로서 將來를期待하는바만흐니 特히 健康에 注意하야 一層活動하야주기를 一般은바라고잇다 (사진은 姜永德氏)

天井板加工業 金龍在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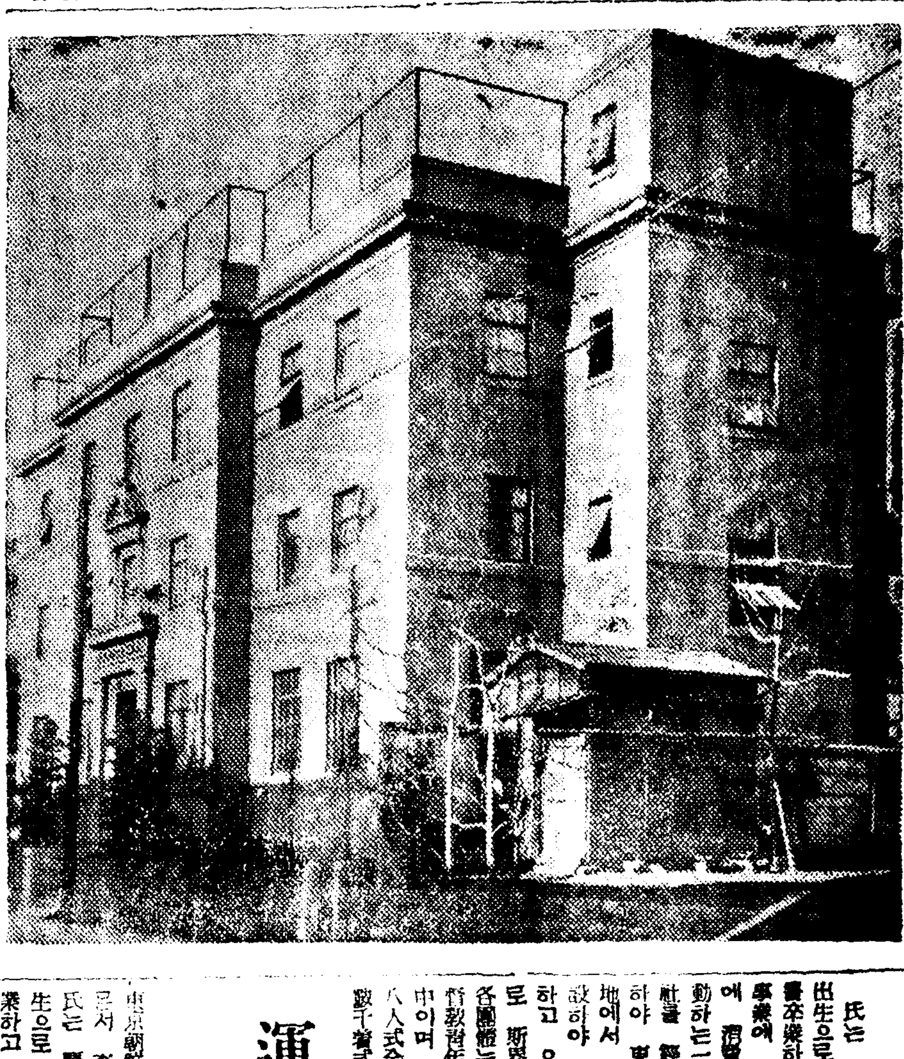
金龍在氏는 全南康津郡道岩面出身이며 四十一歲의壯年으로 深川區冬木町에서 天井板加工工場을 經營하는분이다 鄕里에서 多年間漢學을 修業하엿고 土木建築業에 從事하다가 大正十三年出鄕渡東한이다 恒常새로운 住宅에 맛는天井板加工研究製造에 努力하며 (사진은 金龍在氏)

宗敎敎育의重堅
東京朝鮮基靑總幹事 尹槿 氏

氏는咸南永興出生으로 일즉京城에서 梨花女學校와 梨花幼稚園에서 十餘年間敎鞭生活을하다가 同校를辭退한後 約一個年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敎育部에서 一般實業敎育에 活躍하얏스며 一九二二年九月에다시 遠大한抱負와勇敢한決心을가지고東京에와서 얼마동안地理學을研究하면서 東京朝鮮基督敎靑年會 評議員으로잇다가 一九二四年一月에同靑年會幹事로被選되엿다 氏는長老敎人으로 京城勝洞敎會의 執事로잇다가 一九二五年四月에 朝鮮基督敎靑年會聯合大會幹事로被選되야 東京朝鮮基督敎靑年會總幹事로被任되야 就中今年에는 其間問題꺼리가 되여오든 同會館建築後十年만에 會館修理其他下水道工事까지 全部新製하야 面目을一新케하얏스며 靑年會機關紙『靑年時代』를去三月부터 每月發行하며 最近에는 英語講習部를新設하야 宗敎及文化運動에 猛烈히活躍하고 잇는바 氏의熱誠에對하야 敬意를 表하며 아울러 健康과 將來를 祝福하야마지안는다 (사진은尹槿氏)

運轉手로成功한 權閏逢 氏

氏는 慶北安東郡豐山面□田里出生으로 現在 東京板橋區板橋町二丁目 六六三番地에 車庫를두고 自動車四五臺를 購入하야 택시―業을 經營하는 靑年實業家이다 氏는일즉 安東에서學校를 마치고 大正十三年七月에 大志를품고 玄海灘을 건너와서 今日의成功을 하기까지의 苦心과 努力은 이루 形容할수업스며 數만흔 靑少年이 오르지 成功을目標로 渡東하얏다가 有名無實로 歸鄕하는데反하야 赤手空拳으로 今日의成功을 보게된氏에 게는 敬意를 表하지 안흘수업스며 더욱더욱 將來의努力을 빌어 마지안는다 (사진은 權閏逢氏)



燦然한功績남긴 朝鮮基督靑年會
現在會館은三層洋屋의偉觀

東京朝鮮基督敎靑年會는 一九〇六年創立以來 三十二年間을 하로가티 步調를 가티한同會는 朝鮮의飛躍的發展이 잇섯든것을 마들는데잇서 東京朝鮮在住學生의 指導機關으로 또는 在東京朝鮮人의 敎化機關의 唯一의 機關으로써 輝煌한功績이 잇는것은 自他가共認하는바다 神田 日本靑年會館의 一室을 빌어가지고 出發하야 市內各處에 會館을 轉轉하여가며 오늘의 地位를 確立하야 오기까지 歷代의 總幹事 諸氏의 獻身的努力과 會員諸氏의 熱誠으로 各種講演會 討論會 新年祝賀會 卒業生祝賀會 新渡來學生歡迎會 辯論會 討論會 等 朝鮮人社會의 만흔일을 하야왓고 主催하야 講演會 救濟會 慰安會等을 開催하고 月刊『新靑年』을 發行하고잇다 同會의會館은 東京朝鮮人社會의 唯一한 建築物이며 基地二百六十一坪七合이며 建坪延坪數二百十九坪이다 이會館의建築由來는 一九二四年에 北米基督敎靑年會의 寄付金으로 建築費金五萬圓의 寄附를 어더 工事를 이르키자 在留朝鮮人과 朝鮮各地의 寄付金도 還至하야 一千九百餘圓을 드리어 一九二九年四月에 落成되엿다고하며 同館의 三層은 學生寄宿舍로되엿는데 現在二十餘名의 舍生을 收容하고잇다

任員
一、總務 金觀植 李□浩
一、評議員 金貞植(長) 李基□ 崔承萬 朴永昌 朴東臣 金活蘭
(사진은 YMCA會館)

立志傳中의人物
지갑製造業 金在元 氏

東京朝鮮人實業家의 重鎭인 金在元氏는 本籍을慶北安東郡豐山面下里洞에두고 現在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六番地에서 돈지갑(暮口)工場을 經營하고잇다 氏는일즉安東啓明學校를 畢業하고 鄕里에서 事業을하며 故鄕基督敎會에서 執事의 職分을가지고 宗敎에몸을밧처活動하든中 本來早失父母하고 貧寒한生活은 더욱加重하야 그로하여금 故鄕과몸을밧첫든 敎會를등지고 살길을차저떠나지 안으면안되게 하얏다 昭和二年차저온곳이 卽東京이니 無一分空手로온 氏에게 東京인들무엇을주엇스리요 그는굿은決心과 온갓辛苦를헤여치고 돈지갑(暮口)製造工場의職工生活을하게되엿다 本來勤實正直하고 溫順한氏는 職工生活一年에 結局은 自營工場을創設하게되엿스니 其間그의努力과奮鬪는말치안어도 알일이지만 數만흔家族을거리고 그날의 糊口도困難할터인데 이처을克服하고自營工場을創設하기까지의 그의努力에 感激치안을수업스며 現在職工四十餘名을使用하고 全東京돈지갑業界에서 二三를다투는 地盤을 築成한그에게 잇서서도 業於生活樣式은十餘年前의渡東時와다름이업슴을보면 참으로 尊敬할만한人物이며 東京의자랑할만한人士이다 氏는現在東京朝鮮人工業協會의會長이며 其外에도 實業方面의여러가지事業을 傍系로經營하고잇다 (사진은 金在元氏)

三河島朝鮮幼園
園長李氏努力多大

朝鮮兒童을爲하야設立된 齊英傳道所인東京에 荒川區三河島의朝鮮幼稚園은 實로 貴한存在이다 現在四十餘名의 園兒를收容하고잇는데 園長李元均氏와 保母□□□(京城出身)의 熱誠에넘치는努力으로 維持를보이고잇다는바 여러意味로보아 그功은 크다하겟스나 아프로 더욱健實한發展이期待된다고한다

信用잇는洋服店
金田商店主 金鳳俊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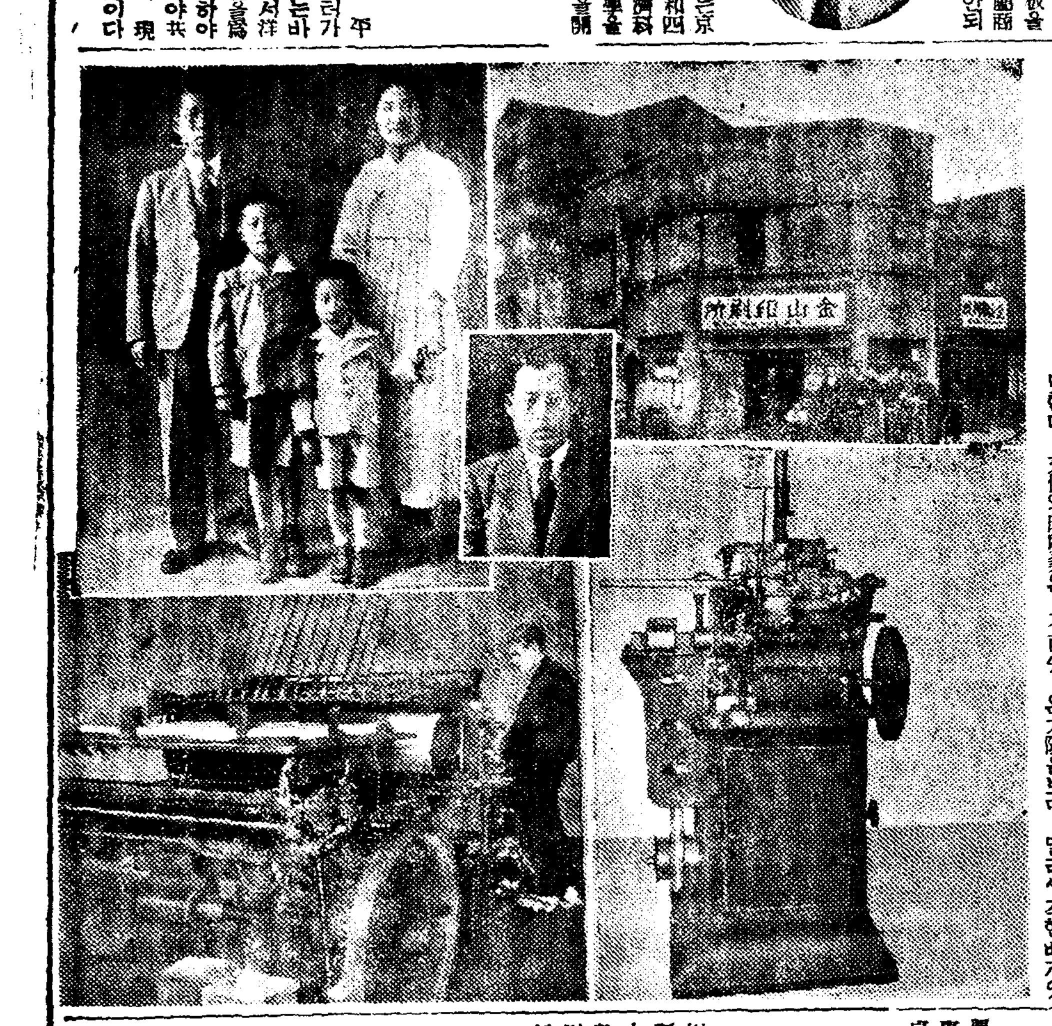
旣成洋服都賣商으로 信用本位인 金田商店은 市內의數多한商店中人氣가잇다 店主金鳳俊氏는 平南江西郡甑山出生으로 平壤에서 洋服店을 널리經營하다가 昭和九年十月에 渡東하엿다는바 斯業界에通達한氏는 朝鮮에서洋服商을 새로施設하려는분들을爲하야 洋服仕入과 經營에 親切하야 絶對安全하도록 親히指示하야 共存共榮을圖하야 努力中인데 現住所는 東京市神田區豊島町이다 (사진은 金鳳俊氏)

布木商界의巨星
京城商店 李進 氏

舊韓國時代에 國學의天才로 外國語에 能通하야 不遠萬里에 國事地를 旅行하든 李寧熙氏의 長男인 李進氏는 京城出生으로 其父親의피를 바든만치 敏活하고 事理에 明晳하야 京城商店을引繼하자 一層躍進하야 絶對로 其의追從을 不許할 堅固한 現在深川區住吉町二丁目六番地에 商店을經營하야 飛躍中이며 또 京城商店을經營하는데 本來嚴父가 經營하든것을 嚴父歸鄕後 氏가引繼經營케되엿스므로 氏는天才的氣質이잇는 우리朝鮮人社會에서 엇지못할商人이니만큼 더욱一般의關心과 期待가만흐니 一層飛躍이 期待된다고한다 (사진은李進氏)

貴金屬商의一人者
鄭洪錫 氏

氏는 忠南唐津出生으로 現在東京市品川區大井倉田町三三五七番地에서 文化堂商店이란 看板을걸고 다이야時計 其他貴金屬商을經營하는 아직三十歲밧게안되는 獨身靑年實業家이다 氏는京城臺正高普를 卒業하고 昭和四年에 渡東하야 日本大學에入學하야 同七年에 同大學을 卒業하고 同時에 貴金屬商을開業하야 活動中임으로 內鮮人을莫論하고 絶對信任을밧는 巨商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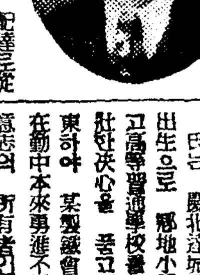


印刷業界의權威
金山印刷所主 金鎭玉 氏

金山印刷所(芝區新橋町六)는東京의印刷界에뚜렷한 存在이라할것이다 整備된印刷機、鑄字機의設備、卓越한 技術等으로보아 實로斯界의 一流이다 主人金鎭玉氏는 四十七歲의 壯年으로慶南金海郡大渚面德斗里의出生이다 東洋第一의 文化中心地인 東京에서도 가장繁華한地帶에서 朝鮮人으로써 斯界에 堂堂한地位를占하게된 오늘이 잇슴은지나간날氏의 눈물겨운血鬪의 아름다운所産이라할것이다 氏는立志傳中의 人物이다 幼時에早失父母하고 故鄕山川의 坊坊谷谷을流浪하다가살길을 차저서 九州八幡으로건너와 印刷技術을 修得하엿다하며 大正十二年一月에 는印刷業을圖謀하고 印刷業으로서 立身하기로 決心한바잇서 獨來熱誠을다하야 寢食을잇고奮力한結果 알이잇서 確固한 商業地盤을엇자 京城의名門의 出生인 婦人과結婚하자 눈물겨운內助의 功도잇서 오늘의成果를 엇게되엿다한다 文化와印刷業은 不可分의 關係가잇스며 氏의誠實한努力과언제나 新時代에맛는 經營方針을보아 더욱繁昌할것이며 氏의事業의將來에 囑望이크다한다 (사진은 金鎭玉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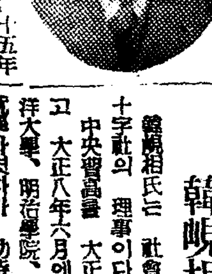
天才的發明家
鄭用貴 氏

發明家 鄭用貴氏의故鄕은 慶南固城郡固城面城內洞이다 石鹼容器付洗濯刷子를 發明하야 昭和八年四月에 新案特許를어덧스며 十一年五月에는 飯櫃應用品 十二年十月에는 紙口金의形狀構造의結合의 發明特許를어더 實用品發明에努力하는한편 活躍을한다는바 氏는昭和元年十月渡東以來해마다 새로운發明品을내여스니 아프로 더욱期待가큰분이다 (사진은鄭用貴氏)



新聞販賣에非凡
東日牌江袋出張所主任 朴贊鳳 氏

朝鮮人으로 市內에 第一人者인 東京日日新聞袋出張所主任 朴贊鳳氏는 三十歲의 中年新聞人이다 氏는平北博川郡德安面南五洞出生으로 靑雲의志를품고 滿洲國에드러가서 綏芬河國境警備隊에서 服務하다가 大陸에지는붉은太陽을보며 달리생각하는바가잇서 昭和八年十月渡東하야 早稻田高等學院을 卒業한後 뒤니여在學當時부터 新聞配達을從事하든 東京日日新聞에서 氏의卓越한手腕과人格이非凡함을알고 主任으로 삼엇스니 氏의將來는期待되는바 크다한다 (사진은朴贊鳳氏)



新聞販賣에特才
東日出張所主任 車璐學 氏

車璐學氏는 東京日日新聞의深川區森下町出張所와 荒川區尾久町出張所의主任으로잇는 當年三十五歲의靑年이다 故鄕은全南莞島郡外面大里이며 現住所는深川區森下町一의一이다 大正十四年初春 愛知縣碧海郡에 건너가製油業에從事하다가 十五年上京하여 東京日日新聞社의配達로서 가진苦難과싸워나아가며 誠心으로盡力하엿는바 圓滿하고溫順한氏의人格을 同社에서信任하는同時에 專屬新聞販賣人으로서의手腕을잇고 上記한兩所의主任을擔任케하엿다한다 東日新聞出張所主任中 朝鮮人으로서단두사람中의한분이니 또엇던 存在이다 아프로도 꾸준한努力의成果가크게期待된다 (사진은 車璐學氏)

白十字理事
韓晛相 氏

韓晛相氏는 社會事業團體인白十字社의 理事이다 中央普通學校를 大正六年에卒業하고 大正八年六月에 渡東하여東洋大學、明治學院、日本大學等에 就學하엿다가 幼時부터信仰이깁던 宗敎方面에뜻이잇서 新公同學院에드러가 神學을研究하고 昭和五年修業한후 白十字社에入社케되여 오늘의地位에서다는바 氏의鄕里는 全南靈巖邑內이라한다

製鐵原料都賣商
慶北出身 池光全 氏

氏는 慶北醴城郡論□面東里洞出生으로 鄕地小學校를 卒業하고高等普通學校를 三年修業後勃然壯心을품고昭和五年에 來東하야 某製鐵會社에 入社하야 在勤中本來勇進不退하는 堅固한 意志의 所有者이니만큼 臨時日에製鐵에 對한技術을 習得하야自營製鐵原料都賣商을 開業한後 苦鬪八年에 至今에는 工場을第一 第二分店까지 擴張하고百四十餘名의 職工을 使用하야 二十餘萬圓의 資産을 이루운成功家로서 現在日鮮會副會長으로잇는 三十四歲의 靑年事業家로 將來가大端히 囑望된다 (사진은池光全氏)

(寫眞 李鍾萬氏)

確固한地盤가진
지갑口金製作所主 李重烈 氏

李重烈氏는 慶北安東郡豐山面下里洞에서 出生한 四五歲의壯年實業家이다 大正十年四月에渡東하여 暮口工場에서數年間職工으로 일을배워가지고 現在向島區吾嬬町東三의七에서 獨立한事業을 經營하는바 赤貧한 身勢의家庭의 모든 困難을 克服하며나가며 信用本位로 斯界에既成地盤을가지고 現在에는 暮口金工場을經營하야 二十數人의職工을使用하야 盛業中이며 어도立志傳中의人物로 將來가 囑望되는분이다 (사진은 李重烈氏)

製鐵原料都賣商
熱情的事業家 金龍植 氏

本籍을 慶南咸安郡□□面下洞에두고現在東京市蒲田區南六鄕二丁目十六番地에서 製鐵原料都賣商을經營하는 金龍植氏는 鄕里小學校를卒業하고 昭和二年에 來京하야 十餘年을하루가티 奮鬪努力하야 現在의堅固한 地盤을 이루기까지의苦心은 뚜렷한結果를 보아도 미루어알수잇스며 其外에도 土木請負業을 傍系로經營하야 百二十名의人夫를 使用하여活動中이며 町內에德望이노픈當年三十七才의 事業熱旺盛한 靑年活動家이다 (사진은 金龍植氏)

紹介版을發行하면서

이번紹介版發行에 際하야 愛讀者諸賢의 絶對的支持와 絶對한援護를하여주신데 對하야는 衷心으로 深謝하야마지안는다 좀더計劃的으로 具體的으로 詳記하려고 意圖하얏스나 紙面關係로 如意치못하게되엿음은 甚히遺憾으로 생각하나 今後第二版發行에 際하야 다시 紹介키로하고 이에 擱筆하거니와 더욱 芝販賣所主任金用根氏에게 感謝하야마지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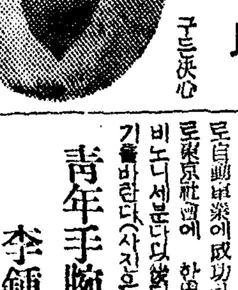
朝鮮日報社東京販賣所 李昌麟

製鐵原料巨商
李殷聖 氏

製鐵原料商으로서 朝鮮人間에 名聲이 놉흔 李殷聖氏는 慶北義城郡□□面□□洞에 本籍을두고 六年前에 渡東하야 現住所에서 製鐵原料商을開業하야 活動中이다 (사진은 李殷聖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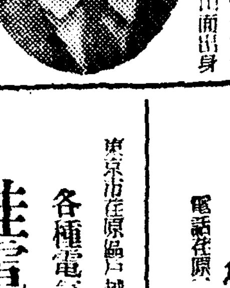
洋服界의權威
李建浩 氏

氏는 咸南安邊郡培花面□□里 出生으로 일즉元山公立商業學校를卒業하고 小學校敎員으로 敎育事業에 投身四年後故鄕인 培花에 消費組合을創設 同理事로活動하는一方元山에서 農具店을經營하다가 昭和八年來東하야 東京神田區□□町二의一番地에서 高級洋服店 高松屋을創設하야 數만흔 競爭者를 克服하고 오직 誠實과 技術을本位로 斯界에 君臨하야 日益躍進 各團體는勿論 各大學同窓會及基督敎靑年會指定을 바더 大繁昌中이며 朝鮮內에도 出張員이七八人式全朝鮮各地를 巡廻하야年數千着式을 販賣하며 其外에도 朝鮮物産의 紹介와 레코드吹込事業을 經營하고 活動中인데 事業家에 天才的手腕을 가진氏의將來는만흔期待와 囑望을가지게 되는바이다



運轉手로出發成功
李光德 氏

東京朝鮮人택시―界를 살펴보면 李光德氏를 꼽게될것이다 氏는 慶北安東郡豐山面下里洞出生으로 當地公立普通學校를 卒業하고 大正十五年三月에 渡東하야 自動車運轉手로 十餘星霜의努力의結果 現在는 東京板橋區板橋町四丁目 一二四에巨大한 車庫를가지고 自動車十餘臺를購入하야 全東京택시―界의有數한 成功家로서 氏의波瀾만흔半生을 하로가티 구든決心으로 一貫하엿다 (사진은李光德氏)



택시―業成功者
李木聖 氏

東京自動車業界의成功者로李木聖氏가잇다 氏는現在東京板橋區板橋町四丁目一二六番地에 廣大한車庫를두고 自動車는七八臺를購入하야 大活動中으로 本籍은慶北安東郡豐山面下里洞에두고 大正十四年十一月에 赤手로渡東하야 今日의大地盤을 이룬것만 보아도 氏가 구든決心을품고 故鄕을떠나東京에오든 당시의 心情을 알수잇스며 李光德氏와 赤手空拳으로 東京社會에 一身을던저 成功하엿스니 더욱 將來가 期待된다 (사진은李木聖氏)

앞날이期待되는
深川幼稚園

朝鮮人新聞先輩의 唯一한 敎育機關으로 深川區平河町의 深川幼稚園은 園長方洙源氏와 保姆尹□□氏의 눈물겨운 努力으로 지금 六十餘名의 兒童을 收容하고잇는데 實로貴重한 存在이다 아프로더욱 朝鮮人幼稚園과 아울러그功이 크다하겟스니 同園의發展이 期待된다

靑年手腕家
李鍾萬 氏

李鍾萬氏는 本籍을慶南咸陽에두고 大正十三年에渡來하야 苦學生活로 中學을卒業하고 現在東京城東區深川에居住하는 實業家이며 本來手腕이能한活動的인氏는 東奔西走여러가지 事業을 經營하야 現在는數十萬圓의 巨資를이루엇는데 將次大成功을目標로 如前히活躍中이다

甲種料理 新明月 主 金周甲 (京城驛下車約三分)

前略 明太魚唐辛子 海陸産物問屋 河村兼一商會 主 魚洋 東京市荏原區 電話荏原六四一番

製鋼鑄鐵原料問屋 池田商店 主 池光全 本店 蒲田區北糀谷町一四五 電話蒲田三九六二番 分店 蒲田區矢口町六四八 電話蒲田四一四四番

太村商店 主 吳載千 東京市蒲田區 電話蒲田二五二番

金順東

同聲社印刷所 辛石然 事務所 東京市京橋區銀座西五ノ二興業ビル 工場 淀橋區柏木一ノ一一九

各種電氣及機械類 桂電氣製作所 主 黃桂守 本籍 慶北新寧邑內 東京市荏原區戶越町二四二

玉藏院 住持 裵昌盛 東京市足立區保木間町

銅眞鍮地金商 入江商店 主 金一尙 東京市荏原區戶越町三二一 電話荏原五四六四番

朴魯弼 東京市深川區門前仲町二ノ六

(右은 玉泉亭金貴叶主人吳載千氏)

朝鮮料理 和洋料理 玉泉亭 東京市蒲田區羽田町一ノ三七五 主 吳載千 電話羽田五四四番 妓生 初江 朴 蘂子 京子 金 君子 正子 玉 花子

諸機械 銅鐵地金問屋 西村商店 主 河季不 本籍 慶北新寧邑 東京市麻布區新廣屋町一ノ三 電話三田(45)一三七九番

諸機械 銅鐵地金問屋原料 河上商店 主 河在孝 本籍 慶南昌原 川崎市神明町一ノ五三

地金眞鍮 各種材料商 小林商店 主 金龍植 本店 東京市蒲田區南六鄕一ノ一六 出張所 東京市蒲田區羽田本町四七

金銀銅鐵道具時計製造販賣 松島政雄商店 申昱均 東京市荒川區尾久町六ノ六〇五

特約店大募集 世界的第一인도리오 蓄音器針과 大衆向 東亞針 特約店을 大募集中이오니 詳細한것은 書面으로通知하여주소서

全國朝鮮盤チェーン 朝鮮盤 洋樂盤 三千里蓄音器商會 朴齊星 東京市下谷區金杉二丁目五番地四 電話淺草(84)七三〇六番 電略(サンゼ)又ハ(ミチリ)

自動車飛行機並發動機各部分品製造 野本電機製作所 主 崔成珍 電話荏原(08)四九二一番 第一工場 荏原區中延町三九二 第二工場 荏原區小山町五八二 第三工場 荏原區中延町八八八

産業茶話

水稻의落水期는 어떠케適正할가 (中)

昭和十一年 三月에 農林省農務局에서 調査한 水稻의 作期及 品種別 落水期에 依하면 我國에서는 左記 各府縣에서의 落水期의 實例를 보면 如左하다

水의 時期는 北海道 早生 … 出穗後 九月十日頃까지 普通이며 秋田縣 … 八月下旬부터 九月中旬까지 … 出穗期 八月上旬 收穫期九月中旬 大阪府 … 晩稻는九月初旬 大 …

(落水) 하니 卽八月中旬頃 … 九月上旬 … 早稻는九月初 晩稻는九月十日頃 …

(成熟) 成熟期에 出穗期부터 第一期로 … 北海道 … 八月初旬이며 … 九月下旬이다

早期落水의理由 落水의早期는 不利不適하다고 하나 … 水稻生育의 最盛期가지나 … 生育이 充分히 進行되어 … 出穗期 …

(水溫) 地溫을 … 높이는 것이 … 水溫이 低溫인때는 … 成熟을 遲延시키게될 것이다 …

(氣溫) 은 低下하지안흐나 水溫의 低下는 … 地溫도 低下치안는 것이다 …

(冷害) 年次에 있어서 早期 落水시키것이 成熟 … 其一例일것이다 …

早期의落水는 … 一般의 … 더 나아가서 …

原料葉煙草의增産策
煙草耕作을改善
品質向上과 自給自足을期하며
一般産業과協調

專賣局의 煙草耕作計劃은 昭和十年十二月當時의 情勢에 基하야 十個年計劃下에 樹立된以來 情勢의 變化에 應하야 若干의 改訂을 加하야 … 一般産業과의 調節을 圖하야서 原料葉煙草의 生産增加에 努力하여 왓는데 時局의 推移에 伴한 外葉의 輸入中止에 依하야 朝鮮産葉煙草의 增産品質의 向上을 圖하야 自給自足의 徹底를 期할 必要에 迫到하얏고 다서 一步나아가 製品 又는 葉煙草로서의 輸出增進에 拍車를 加하고 잇는데 一般産業과의 協調를 圖하는 意味에 잇서서 專賣局長과 農林局長의 連名으로 廿八日 左記事項을 各道及 地方專賣官署에 通達하얏다

一、煙草耕作地域內에 잇서서는 當該地方의 實情에 卽한 煙草耕作을 包含하는 田作物輪栽의 合理化를 圖할것

二、煙草耕作地域內의 蠶業은 可及的 普及을 獎勵할것

三、米國種煙草는 從來에 大槪裸地에 耕作되엿스나 特殊地域을 除하고는 將來는 可及的 麥間耕作을 行하야 農家의 食糧自給에 供할것

四、米國種增産에 伴하야 其乾燥燃料가 相當히 多量에 及할 모양이므로 其供給에 關하야 서는 地方廳專賣官署間에 密接한 連絡을 取하야 支障이 업게를 期하는 同時에 薪炭이 不足한 地方에서는 石炭加用의 方策을 講究할것

五、煙草耕作者에 對하야서는 專賣官署에잇서서는 農用林地의 設定 綠肥의 栽培 畜牛의 普及 自作地의 購入 貯蓄의 獎勵를 行하야 農村振興을 助成할것

一、棉花其他 纖維作物의 栽培獎勵 局內에 두는것으로 左의事業을 하게되리라한다

一、棉花其他 纖維作物의 栽培獎勵

二、棉花優良種의 育成과 其普及에 關한 助成

三、棉花以外의 各種纖維作物에 關한 調査 研究의 助成

四、棉花에 關한 調査 研究及其助成

五、棉花代用纖維에 關한 調査研究의 助成

六、其他本會의 目的達成에 關한 事業

米國種葉煙草의
試作成績良好

專賣局에서는 原料煙草로서 從來 年額四、五百萬圓의 外國煙草를 輸入하고 잇섯스므로 非常時局下의 財政策에 順應하야 이에 對處하는 原料葉煙草를 朝鮮內의 自産自給의 計畫을 세우고 朝鮮産米國種의 增産을 힘쓰고 그一策으로서 現在의 朝鮮産地를 米國種産地로 轉換할것을 考究하고 試作하엿든바 非常한 好成績을 어덧다 卽 土質其他의 關係로 米國種産地에는 全然適當하지 안치만 地方産業으로는 煙草의 가장 重要한 産地에 이 米國種을 栽培하야 米國種式의 耕作法과 乾燥法을 適用하야 試作하엿든바 그結果는 자못 良好하야 米國種의 補充原料로서 適當한것이 生産되며 朝鮮種煙草耕作法에 新機軸이 發見되엿스므로 이에 힘을 어든 同局에서는 드디여 自産自給을 目標로 來年度부터 大大的으로 耕作에 着手하리라한다

棉作獎勵와
纖維協會
農林局內에 設置

棉花其他 各種纖維作物의 栽培獎勵와 需給의 圓滑을 期하는 것은 現下 情勢에 緊要한 事業이라고하야 總督府農林局에서는 棉花統制에 一部六十萬四千六百餘圓으로써 財團法人『朝鮮纖維協會』를 設立하야써 目下 準備를 進行시키고 잇다 그리고 同協會는 湯村農林局長을 協會長으로하고 理事七名 監事三名 事務所를 總督府農林

中北支苹果輸出
出荷를統制

從來의 朝鮮苹果의 對支取引은 過渡期의 中北支에 對하야 自然進行主義로 取引되여잇섯는데 現在는 이미 新稅率의 公布實施를 보앗고 또治安維持로 朝鮮人內地人의 進出도 激增하고잇는 이때에 今後朝鮮苹果의 輸出은 堅實一貫으로 하는것이 가장 必要한데 가을의 出廻期를 압두고 朝鮮貿易協會에서는 出荷販賣가 든 諸方策의 確立을 急히하고 잇는바 支部出張所와 連絡한後 다음과가튼 方針으로 進行케 되어 對支輸出上 各種不便을 除去하게되엿다

一、輸出檢査

輸出品의 檢査는 嚴重히하야 不正行爲의 絕滅을 期할것

二、荷造의 改善

諸材料가 騰貴한 今日 適當하게 荷造包裝을 研究할 必要가 잇다 支那人의 歐米依存思想을 利用하야 레델은 英字로써 表하는것도 조흘것 … 可及的 避하고 … 檢査한後 同一商標를 … 號로써 示하야도 조흘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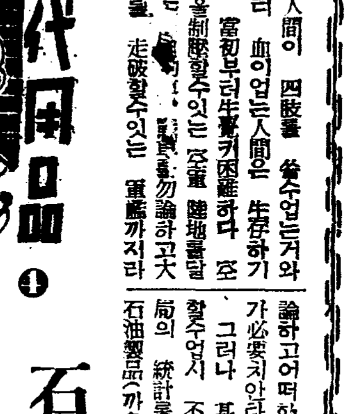
三、出荷의 統制

今年의苹果作況
平年作을未免

今年의 朝鮮苹果는 總督府에서 그作況을 調査中이나 目下의 狀態로는 平年作을 넘지 못하리라고 보고잇다 昨年은 未曾有의 豊作으로 一千萬貫突破의 好況을 示하엿는데 今年은 千五六萬貫程度의 모양으로 朝鮮苹果

는 內地의 特割은 廢止되엿스며 또關東州의 增産으로 北支滿洲市場은 脅威를받고잇는 市場이잇고 農林局에서도 일직부터 對策을 講究하고잇스나 드듸여 出廻期의 切迫과 共히 그進展은 자못注目되여잇다

代用品 ❹



石油는戰爭國家의血液
『石油一滴은血의一滴이다』
燃然國策은 血液의補充
人造石油 ❶

戰爭을 할때에 武器보다 重要되는것은 石油의 存在이다 石油의 一滴은 血의 一滴이라 는 『佛蘭西의 首相으로잇든 구레만소―는 世界大戰當時에 말하기를 『石油의 一滴은 血의 一滴과 갓다』라고 말하엿고 또獨逸軍의 總指揮官인 루덴돌프도 이와가티 『石油의 有無로써 戰爭의 勝敗는 左右된다』라고 名言을 吐出하야 一般民衆의 石油에 對한 認識을 새삼스럽게하든 때도 아직 記憶에서 사라지지안헛슬것이다 石油를 征服하는 國家는 全世界를 屈服시킬수잇다 萬若石油가 업다고하면 戰爭은 繼續되지못할것이다

假量例를 들어보면 戰爭을 繼續하고잇는 國家에잇서서의 石油는 肉體를 循環하는 血液이라고 볼수잇다 戰爭의 必需品 卽 銃이 압이라고하면 油는 血이라고해도 過言이아니다 붉어업는 人間이 四肢를 쓸수업는거와가티 血이업는 人間은 生存하기는 當初부터 生存키 困難하다 至今은 輕重과 … 論하고 大… 走破할수잇는 軍艦까지라 論하고어떠한 工業에던지 石油가 必要치안타고는말할수업다

그러나 其石油가 我國에는 말할수업시 不足하다 商工省鑛山局의 統計를 보면 昭和十一年의 石油製品(揮發油、重油、燈油等)의 需要는 四百十三萬噸인데 我國의 産額은 겨우百四十二萬噸으로서 不足되는것은 六十二萬噸이나 其百六十二萬噸도 完全한 國産品이아니라 其中 百二十七萬噸은 外國으로부터 原油를 輸入하야

은 地中에다가 源泉을두고 出되는것이요 아모데서나 엇는것이 아님으로 卽 油田이나炭田과 마찬가지로 一定한 地域을 두고서 湧出되는것이다 그러나여 地球에잇는 石油의 産出地域은 米國、英國、蘇聯等의 三國家에서 大部分을 所有하고잇다 그들은 이油田을 獲得하기爲하야 慘酷한 爭奪戰까지 해가면서 그油田을 獲得하기의 成功하엿다그러므로 因하야 只今에 와서는 石油에 關해서는 『所有國家』와『所有치못한國家』 사이에는 明確하게 境界線이되어잇다 萬若 只今 新油田을 發見한다는것은 容易한일이 아니라 發見하더라도 國家에서 所有하게 못할 所有한 國家에서 主張하고 나서는 것은

以下에 말하고저하는 것이 石油를 人工的으로 製造하고저하는 것이 다

第一은 石炭液化法 ― 이것은 石炭에다가 水素를 合하야 가지고 高熱高壓을 주어서 液化시키는것인데 이는 石油를 製造하게된것이다 方法으로는 이것이 그래서어떠한 意味下에서 研究한結果 左와 如한 세가지의 石油製造法을 發見하게되엿다

第二는 合成法 ― 이것은 水素或은 瓦斯及天然瓦斯를 原料로 해 가지고 一酸化炭素와 水素의 合成으로 石油를 得함

第三은 低溫乾溜法 ― 이것은 石炭도는 褐炭을 低溫으로 乾溜하는 法等이다

世界의 食糧國은 어떠한 國家를 勿論하고 여方法을 實行하고잇다 現在日本에 잇서서도 人造石油는 非常時局의 大緊要産業으로서 食糧國日本의 新 … 한 血液을 補給하기爲하야 … 되고잇다

工業質疑

酸性分이混合된
마싱油의脫酸
普通어떠케除去하나

【問】鑛物油『마싱』에 酸性混入되여 그除去하는方法을 簡單한 方法에依하야 주십시요

【答】『마싱』油의脫酸은稀薄苛性曹達로서 攪拌하야 中和하고 放置한後 低下하는水의層을나누어 다시熱水를 加하고數回水洗한다 此際에乳化하야 油와水가 分離할수업는것이 往往잇스므로 攪拌에 注意를要한다 一時에乳化해서는 分離할수업게되므로最後에酸性白土로 脫色濾過를 行한다

米糠油製法

【問】米糠油製法

【答】東京市目黑區自由ケ丘三三七 鈴木糧食研究所로直接問議하십시요

『마구넷트』의
磁氣回復法

【問】『마구넷트』의 磁氣의減少한것을 新品과가티 磁化하고시픈데 大體 어떠한方法으로하는 것입니까

오푸셋트
印刷用藥品

【問】오푸셋트印刷用藥品販賣店

【答】大阪市南區鹽町通一丁目和泉屋大堂 同區久左衛門町一八三 浦百年堂 同區高岸町一〇 齋藤瀨通商店

【答】適當한 參考書는 任細히 알수업스나 大阪日刊工業 新聞社發行『商工百科問答集』第十四頁에 記載되여잇사오니 參照하십시요

미싱部分品

【問】미싱部分品의 製造所와 都賣商

【答】大阪市港區九條南通一丁目一四八 三和製作所 同東區下味原町八二 安達ミシン商 天王寺區上本町七丁目五七松村商店

古鉛板製品을
淸淨하는方法

【問】鉛板製品이 허러진것을淸

朝報接踵의慶北鑛界
硅石鑛發見
總埋藏量約五萬噸

【慶北支社電】時局下國策線上에 으로 注目되는 慶北鑛界는 … 慶北英陽郡日月山에서 나는 硅石은 … 埋藏量이 五萬噸 … 其後 … 大邱硅石鑛을 … 本年에 들어서 九十九%의 純度를 가진 硅石鑛을 … 作年에 比하여도 八、〇〇〇、〇〇

滿洲國種豚注文

滿洲國濱江省으로부터 慶北畜産會로 朝鮮에서 飼育중 나는 豚百頭의 注文이 왓는데 昭和八年來 滿洲國에 … 一千四五百頭 … 今後오지안흐리라 생각하얏든 … 今回에 … 九月上旬까지에 輸送하리라 한다

鹽業、漁業不振으로
柳島住民生計暗澹

【鎭南】咸南永興灣捕貝漁組合區域에잇는 柳島는 고기잡이로 이며 臨陂面에서 멀어저 섬으로되여잇는 全島民의 生計를 지탱하여 간다는것은 世上에 알려지지 안앗다 近年 該島에는 生活苦라는 魔手가 襲來하야 更生策을 講究하여도 更生할 方途업서 島民의 아우성은 날로더하야간다는바 原來該島는 製鹽業으로 有名한곳이여서 大正三、四年頃에는 全島에 製鹽所(在來式)가 廿一個所이나잇서 年産六十三萬叺 其代金七十五萬餘圓이란 巨額을 産出하엿스나 其後 外來鹽의 輸入이 만허 鹽價의 暴落으로 그러케 旺盛튼 製鹽業은 閑散을 呈하야 大正九、十年頃에는 全廢程度에 잇서서 其後島民은 捕漁業으로 轉業하야 僅僅生活이라고 하나 그것도 如意치못하야 近年에 와서는 全혀 不振狀態로써 이 모양으로 繼續된다면 八十餘戶 島民의 生活은 實로 問題다 하는바 冬에 水底網 記可나 여러件 되기를 渴望中이라고하는데 最近數年의 生産率을 示하면 아래와 갓다

大正九年度	三、〇〇〇、〇〇	圓
同 十年度	一、三六〇、〇〇	
同十一年度	一、七八八、八七	
同十二年度	一五、八五一、四〇	

今年只今까지 全無狀態
全島民 八十四戶
每戶當年生活費 三〇〇、〇〇
全島總計 二四、〇〇〇、〇〇

京城役馬組合創立

昨年부터 當局의 贊同을어더 李英馥氏가 第一線에서서 中村直、高原象、車永運、姜錫奎、李春植外 百數十名 諸氏發起下에 鋭意籌策中이든바 드디여 京城役馬組合의 創立을보게되엿다 同組合은 役馬改良發達과 組合員의 利益增進을 圖하는것 特히 戰時下 馬産報國의 見地에서 馬糧을 調製하야 一朝有事之際에 備하는 同時에 馬匹의 共濟施設에 萬全을 期하는 外에 飼料의 改善 馬匹의 共同購入及 其保健策에 進出하는 一方 積載量의 取締를 嚴重히하야 馬匹의 疲勞를 救하야 千數百頭 役馬愛護의 徹底를 期하는 方針이라한다

出荷에 對하야서는 各地의 輸出組合을 綜合統制하야 個個의 出荷를 行치말것

四、販賣

支部出張所는 代金의 回收도

漣川朔寧市에
商業組合設置

【漣川】朔寧面에서는 今番市內 商業者十九名이 組合員이 되여 商業界의 發達과 地方發展을 圖하고 物品을 共同購入하여 一般農民에게 薄利多賣와 物價調節 一販賣할 目標로 商業組合을 設置하엿다 한다

金屬代用品
스토니―

【問】金屬代用品으로 『스토니―』라는것이 잇는데 그 製法、性質、販賣店 又는 製作所

【答】『스토니―』는 新發明된것인데 金屬의 代用으로서 使用되며 耐酸、耐火、耐水性이잇고 强度는 相當하야 金屬에 依하야서는 勿論 … 大和스토니―社(小原恒一氏) 東京市 … 本木町四ノ五一七四

胚芽用精米

【問】胚芽用精米機의 製作所

【答】大阪港區九條中通一丁目 大阪精米機製作所 同區 … 二丁目 …

紙袋製造機

【問】紙袋製造機의 製造所와 原紙都賣商

【答】紙袋製造機는 東京市瀧ノ川區田端二二九 東京製袋機株式會社 紙都賣商은 東京市神

機械、工具

【問】大阪에서 優秀한機械工具를 取付用具 多種類販賣店

【答】大阪西區立賣堀北通六ノ一岩田兄弟商會、同區立賣堀南通六丁目酒井寬三商店、同區新町南通四ノ一八堀寅伊之助商店、大阪支店町六四小林捨次郎商店、同區梅本同區立賣堀北通六ノ三ワシノ商店

滿洲北中南支의
主要産業의資料

【問】滿洲國及北中南支의 主要産業의 資料와 化學工業

【答】工業化學滿洲支部編『滿洲의資源과化學工業』定價四圓、送料二十二錢▲門倉三郎著『北滿金鑛資源』定價六圓、送料二十二錢▲日本國際協會編『支那經濟事情』▲企業研究會編『北支經濟事情』定價一圓、送料二十錢▲小島精一氏著『支那經濟讀本』▲同氏著『滿鮮支新興經濟』▲佐藤弘氏著『北支シベリア』

轆轤機械

【問】轆轤機械(가라기계)販賣店

【答】東京市淺草區七軒町二番地 木下機械製作所、京橋區寶町二ノ七飯田商店 田町京橋田一大島田商店東京出 同區新町通四ノ一大兒玉第一商店 同京橋谷町六丁目一七一二見商店 同谷町六ノ八林鐵商店、同區內 安堂寺町一ノ五一大倉本店、同區谷町四ノ六四八水谷商店、同區內 谷町四ノ八二大谷商店

商品市勢 (卅一日)

▲穀物 ▲肥料 ▲果實類 ▲農産加工品 ▲農藝藥品 ▲家畜飼料 ▲家畜類 ▲穀用叺及繩

愚氓 【120】
長篇小說
朴泰遠 作 / 洪祐伯 畫

세가지일 (2)

『그날 새우재서 나를 잡가노 나보고 그즉시 백백교 교도가 될수 잇섯스니 노형은혹은 이일을 핑으나 쉬운것가터 생각하고 엇슬지 모르겟소만은 참말 노형처럼 운이 조흔이가 별양 업소구려 돈 여 엇다고 될수 잇는것이아니요 재위나 권세가 엇다 고 힘의로 못하는것이라 대체 전생에 얼마나 조흔일을 하엿는지 모르겟소마는 나로서도 어떤일은 또박갈뿐 아니라 그러거에 중간에 들어서 주선한 사람으로서 여간 마음에 기뿐것이 아니요』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지 점은이는 그러한 말을 층언 부언 하고나서 문득 어조를 고치어 『허지만 한번 교도가 된이상

며 자유며 엄하것은 어데자 거네들것이 아니라 대원님의 것이다고 생각하여야하오 오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원님의 명령을 꼭 복종하여야만 일후에 조흔시절이 이를때 외갓 부귀영화에 참여 할수 잇는것이지 여기일 꿋만치라도 불평을 품는다거나 그러다가는 재앙이 일문에 미칠게니 명심하시요』 『네―』 이번에는 가까스로 대답만은 하엿스나 말소리는 약간 떨렷다 그러한 홍서방의 꼴을 약간 빙그레 웃음조차 떠우고 점은이는 제경속에 바라보다가 문득 한껏 부드러운 어조로 『그러나 그건 모두 두마음을 갓는때 말이지 그저 한갈가티 정성스런 마음으로 대원님의 분부만 밧자오면 세

에는 여러가지 지켜야 할일이 만소 그것을 모조리지켜야만하지 만약에 그러치못한 경우에는 참말 크나큰 벌역을 바더야만 할것이니 그리알고 잇서야 하오』 『네―네―』 기게 든 손은 여전히 놀리면서도 홍서방은 비밀을 지키저 안할때 크나큰 벌역을 바드리라는 말에 가슴의 물렁거림을 억제할길 업섯다 『한번 백백교도가 된 이상에는 절대로 교비를 지켜야만 되오 위선 자기가 교도라는 말을 아모에게도 말하여서는 안되오 아모것도 모르고 잇는 외인에게는 물론이어니와 저편도 분명히 나와가튼 백백교 교도이라고 안 경우에도 열체 말을 하여서는 안되오 혹 어떠한때 누구 엽에서 백백교 얘기가 나오는 일이 잇더라도 일체 알은체를 하여서는 안되는것이라 꿈에라도 그러한 일이 잇다가는 전지전능하신 대원님께서 회어히 통찰하시고일 껀 나리섯던 복덕을 거두어 버리시는것은 물론이요 노형을 염시하여 외집안 식구의 목숨이 업서질것이니 각별히 어점을 조심해야 하오』 홍서방은 『네―』하고 대답하려 하엿스나 마음에 놀람이너무나 커서 아모런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안헛다 『한편 대원님께 몸을 바친이상에는 자기는 물론 외집안 식구의 생명이며 재산이

일어섯다 『갈길이 바뿌니 면도는 그만둡시다』 그리고 곳 말을 이어 『내가 일러줄 말은 그뿐이고 어재 서울 본부에서 높은어른이 나려 오서서 무슨 말씀이 엇슬께니 그어른말씀을 조차 하시요』 『네? 서울서 또 누가 나려오시나요?』 『응 모레―, 추렴헤술 볼부서 오실 어른이 게실께니 그리알고 게시요 마마 아칙에틀르시리다 혹 이웃집에서라도 뭇거던 머언 일가어른이라고 라도 하시구료 특별히 접대를하느라 애쓸것은업지만 그어르께 잘 뵈워야 일후에도 여러가지 조흔일이 잇슬께니 만사를 그요량 해서 하시요 본부에서도 대원님께서 바루 수족가티 아시고 게신 분이니……』 말을 마치고 점은이는 밀집벙거지를 손에 들고 그냥 박그로 나가 어둠속에 종적을 감추엇다

불과 한알로
一盃分의肝油
十余個의球

一粒肝油 ハリバ
하리바

…와같은 비타민AD를 含有하고 잇읍니다…

肝油가効力이잇고…없다는것은 오늘날에 잇어서는問題삼을바조차없다고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엄어그効果에대하여는三尺童子라도다알고잇는바이며 또한數十年前의옛날부터그의興廢됨이없이 늘넓히賞用되고잇는事實이어적을雄辯히證明하고잇읍니다

여름에도손쉽게 단지 肝油는 매일 그홍한 비린냄새 때 또는 한거름을 二盃─三盃식먹거나 또는 포도만침의큰알을 十餘個나억지로래도먹어야만되엇기때문에…胃腸에고장을일으키기쉽고 특히여름에는 누구를물론하고 그服用을실허하엿읍니다 그러나抵抗力이減弱하기쉬운여름에 그것을連用함으로써 비로소効果的인것이온데…이點을近代化식힌 하리바는 夏節에도손쉽게 連用할수잇읍니다

糖衣의小粒 하리바는 대구의肝油에比하야 數十─百倍나진한 비타민에이와디─를 含有하고잇는高級肝油을 팟알만침의적은알로만든것으로써 한알은한잔의肝油나 혹은十餘個의알과比等하며 하로에단三─四粒의적은분량으로충분하며 더구나그홍한냄새와위장에고장을일으키는법이절대로없읍니다

虛弱한어린애를健康히하기위하야…呼吸器가약하신분을튼튼히하기위하야…眼力을酷使하시는분이視力減退를예방하기위하야… 肝油『하리바가 넓히賞用되고잇읍니다

百粒…二圓五十錢
五十粒…一圓五十錢
全道藥房에잇음

KV.K-30

大阪市白米食禁斷波紋
朝鮮米擁護旗幟下
全朝鮮業者에飛檄?
大邱關係者對策講究

【慶北支社發】지난삼십일 대판시(大阪市)에서 정백미(精白米)판매금지와 배아미(胚芽米) 식장려에의하야 전조선적으로 정미업자가 대충동을 밧고잇는중인바 판신(阪神)방면에 연출선되는 어중을해오던 경북미(慶北米)의전도에 대구정미업자에 미치는영향은 막대하야 상로 심각한바 잇슬것으로 어문제로 실로 대구오십여정미업자와 경북도내 수백업자의 사활문제가될것이다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그대책을 강구하야 지난삼십일오전열시부터 부내유수한업자 십여명을 회의소에모아 도산업과관 부청업계주임 상공회의소이사등 출석으로 정미업자간담회를열고 장시간 그대책에대한 협의를하엿다는바 만약 경북미의 판신지방이출의길이 막힌다면 어야말로 경북도내정미업자의 사활문제라고하야 축 대구를 정신지로하야 각지의 수이출되는정미는 대부분이 판신지방으로 이출되던것이만치 판신지방을상수하는 어의에는 타개책이 업슴에감하야 금후의 정세를 보아서는 전조선업자에 비격하야 조선미(朝鮮米)옹호의일대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엿다고하는바 어느 대구에한한문제가아닌만큼 전조선업자의 동향은크게주목된다고한다

옛날名聲도歸虛
移出은激減形勢
慶北米이二重苦憫

【慶北支社發】경북도는 전남북에다음가는 곡창(穀倉)으로 경북미(慶北米)의성가는 수년전부터비상히 노파 판신(阪神)지방에서는 경북미하면 조선미를대표하는것이라고까지일컷도여 연연백미(玄白米)합오십만석에 달하는이출을해왓스나 해가갈수록그수량은감소하야 하기한바와가티 지난십이년도에는 불과구만석이라는 변약한수자를내여 사년전인소화구년에비하야 실로오분지일로 감소되엿다고한다

慶北米年度別移出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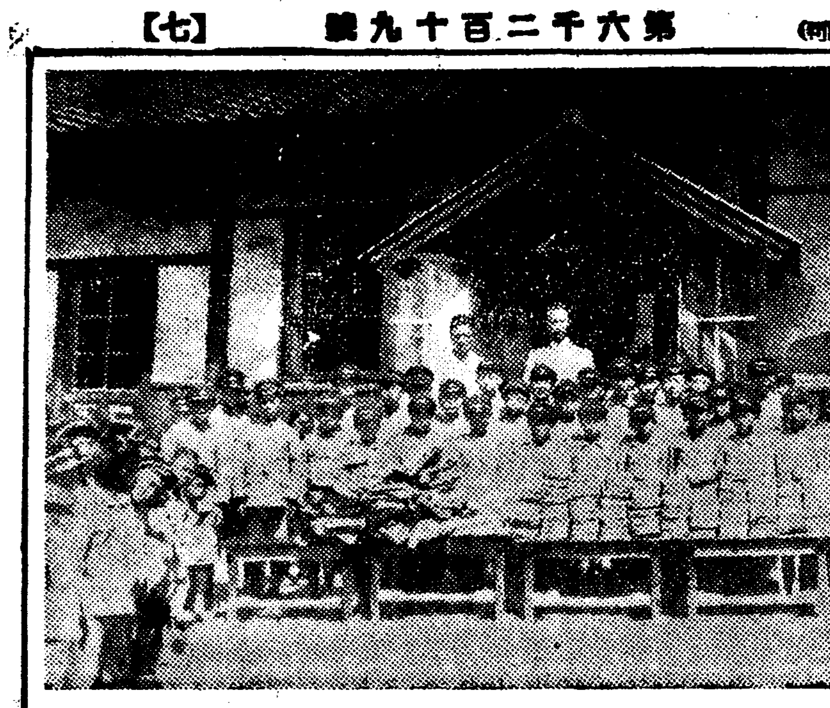
	玄米	白米
昭和九年	一九〇千石	三〇〇千石
〃十年	三七〃	一八〃
〃十一年	七〇〃	一七〇〃
〃十二年	一一〃	八〇〃

이와가티 경북미의이출이 급작히감소된원인의하나로는 교통선로의변경에딸어 다소의영향이 잇섯다고할지라도 경북미의장래에 대하여는 중대한문제로 일반이그만회대책을 강구하고잇는데 때에 또한금번대판시의 정백미 사용금지에딸어 경북미의판로는자 못 위협을밧게되어 금후의 추세가 주목된다고한다

運搬船이轉覆되야
船夫二名行方不明

【新義州】신의주압록강운수주식회사의 배한척은 지난이십팔일 벽동일본광업주식회사(碧潼日本鑛業株式會社)의 분광(粉鑛)일백삼십오톤을싣고 하항중 벽동서관내 삼하동출장소아페서 전복되엿는데 선부두명이 행방불명으로 방금 시체를 수사중이며 또한 손해는 지금조사중이라한다

扶餘古蹟을愛護
鄭忠南道知事記者團에言明



【大田】지난삼십일 오전열한시부터 충남도지사(忠南鄭知事)는 지사응접실에서 신문기자단과정례회견석상에서 행정방침과 비상시국 타개책에대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一、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하야서는 국민들의 새로운 각오로 자발적활동을 바란다 즉 의무저금(貯金)등으로 국민된자가 자발적으로 실행하며 농촌진흥운동의강화 내선일체의 철저를 희망한다 도내기독교(基督教)가 연합하야 국민정신총동맹에 참가하고 신사참배등과 각군과 면에까지 명향회(明鄕會)등의 탄생은 이것을 의미하는것이다

二、구월일일부터 시작되는 면리원(面吏員)양성소는 마치순사교습소와 가튼것인데 이것은 조선에는 어느곳보다도 제일처음으로 탄생된것이다 기간은 삼개월간이지만 이것을 수료한다면 면리원으로 추천할자격을 가질것으로보아 이것은 본도의 대사업이다

三、금년의 도작은 평년작보다 일할이상 증수될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의 어백십사만석에 비하야 매우 풍작일것이며 면작(棉作)도 풍작이다 그러나 대두작(大豆作)은 매우감수될것가트나 양날의 경우에 잇서서는 아직절망상태는 아니다

四、충남은백제(百濟)의 구도로 고적(古蹟)이 매우중요한곳이니만치 고적보존을 철저히하기위하야 구월십일을 고적에 호데어로 정하고 전조선에중남고적을 철저히 소개할것이며 다 충남부의 향토극경파 경성에서 고적에대한 권위자들을초치하야 고적애호강연회를 개최하고 공주(公州)와부여 (扶餘)에도개최할것이다

死產한嬰兒屍를
海中에投棄!

【木浦】지난이십팔일에 목포해안통무영상점(木浦海岸通永商會)아페잇는 잔교(棧橋)여페 난지얼마되지아니한 영아시체를버린것을 통행인이발견하고 즉시목포서에 계출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어떤부랑한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불운아의 압사체(壓死體)나 아닌가하고 수사중이다

前衛同盟事件
15名起訴豫審에
光州檢局木浦分局에서

【全南支社發】거보=다도해방면을 중심으로 조직된전위동맹사건의 임귀석(林貴錫)(二五)등 오십여명중 신체구속십오명 사건은 목포분국에 송치하엿다함은 당시보도하엿거니와 그간 담임검사가 취조를마치고전기십오명만 이십구일에 기소예심으로 회부하엿다는데 그 피고인 씨명은 다음과갓다

▲京城府鍾路町林貴錫(二五)▲光州府本町五丁目金七星(二〇)▲務安郡智島面內場里 黃成淵(二六)▲木浦府木浦台金漢涵(二〇)▲務安郡智島面甘井里 黃錫俊(二〇)▲同 內場里黃鍾淵(二二)▲同金正局(二〇)▲同金大寬(二〇)▲同面內場里 金在鎬(二〇)▲同 金漢龍(二〇)▲同 金漢柱(二一)▲京城府淸凉里町 朴基秦(二一)▲務安郡智島面內場里 金鶴所(二一)▲同里 朱吉桐(二〇)▲木浦刑務所監中 安有煥(二〇)

全北道各府郡에도
軍援相談所設置

【全北支社發】전북도에서는 군사원호상담소(軍事援護相談所)를 설치하기로 도내각 재신구호로 세 상담소규정을 정하고 공포얼마터 설치하리라는데 상담소는 도사회과내에두고 상담원인 응소군인유가족의가업경영유지분 의의 조정기타가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담지도할터이다하며 재향군인 처장의원을 목적으로 하리라는데 동시에 도내 각부군에 가튼지부를 두어 군사원호에 유감이 업도록하리라한다

清州中學四年生
東公園서自殺

【淸州】지난삼십일 오전열시경 청주동정(東町)동공원에서 [illegible]

普校生의이大罪
賭博、住宅侵入、强盜、殺人未遂로
平壤覆審서十年求刑

【平南支社發】무엇이 그소년을 그가티맹랑하게되엿는가 강도살인미수라는 무서운죄는 범하엿스나 열세살의 어린몸에 징역십년은 너무과하다고 하소하는 보통학교학생-허천수(許天洙)(*) [illegible]

照明彈

한경도와 강원도 연안어업의대종 정어리어업은 어떼케 어려운 어획이 금년에는 대부분이 파산의위기에 직면하엿다고 [illegible]

江陵邑에小火

【江陵】 [illegible]

第八回 全朝鮮水上競技
關西體育會主催本社支社後援
十日平壤에서開幕

【平南支社發】관서체육회에서는 본사평남지사 후원미테서 구월십일정오부터 평양부내 기림리(箕林里)공설〃풀〃에서 제팔회전조선수영경기대회(第八回全朝鮮水泳競技大會)를 개최하기로되엿다 근년 조선안에서도 수영경기에대한관심이커저 장족의진보를 보고잇는만큼 이번 대회야말로 금년씨-즌의 최후를 장식하는 성황을 예기하고잇다 참가신청기는 구월팔일까지로 참가종목은 일인삼종목이내로한하여 평양부내순영리(巡營里)조선일보사 평남지사와 서문통(西門通)대평운동구점(大平運動具店)에 신청하면조흐며 참가금도업고 입장료도업다 이번대회에는 일반, 학생을구별하지안코 일반개인전(一般個人戰)으로 일반과 학생으로 난호앗다 경기종목은 다음과가트며 『릴레이』는 자유로참가할수잇다

◇競技種目

【自由型】▲一〇〇米▲二〇〇米▲四〇〇米▲一、五〇〇米【背泳】▲五〇米▲一〇〇米【平泳】▲一〇〇米▲二〇〇米【릴레이】▲四〇〇米릴레이(一般)▲二〇〇米메도레릴레이

九連城水泳場閉鎖

【安東縣】시민의 유일한여름위안장으로 되엿든 구련성수욕장(九連城水浴場)은 그간대성황을이루엇섯스나 요지음와서 일기가급변하야 냉기가돌음으로 이십팔일마지막으로 폐쇄하게되엿다

沸騰하는救濟熱
敎科書와衣類를
災害地同伴에게
鎭南浦海星校生赤誠

【鎭南浦】어린이들의 적성! 금번북지방의 수재는실로 참담하다는것을 장안국(張安國)교장이하여러선생들께서 드른진남포사립해성학교(海星學校)직원여명과 아동들이 헌옷의복 헌책자등으로 온현금으로나도나도하고 교과서금이 십육원과의복 백오십육점을 재해지동무들에게 전하여달라고 지난삼십일해성학교생도 들이구루마에 구제금품을싣고 본보진남포지국을 차저와의뢰하고갓다 지국에서는 즉시본사경기에재해지국에합승계하엿다는바 [illegible] (사진은동교생도)

張潤河、董錫基氏
各各巨金을喜捨

【咸南支社發】이번수해 어재민에게대한 동정은 [illegible] 그리고 북청군 이곡면 초리(北靑郡泥谷面初里)에잇는 목사 동석기(董錫基)(*)씨도 구차한 살림에서 백원을 구제금으로 보내여 거액의 구제금으로 쓰이기를 [illegible]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畫 【156】

피리 (三十七)

[illegible]

流行歌 九曲肝腸 朴響林

Columbia 40826

콜럼비아레코-드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京城府惠化町一〇八ノ二

天安支局 電話開通 一二三番

九月新譜

新民謠 꿈꾸는時節 黃琴心 / 서러운댁네 李圭南

流行歌 우연히情들어 朴丹馬 / 追憶만구비구비 表鳳天

流行歌 눈물무든幸福 育永恩 / 울려만노시고 安玉鏡

流行歌 情의뱃노래 表鳳天 / 粉바르지안앗소 金福姬

正樂 念佛 / 打鈴 朝鮮正樂傳習所員

俗謠 祭奠 (上下) 金宗朝

빅타-八时兒童盤 第七輯 兒童劇 콩쥐와팥쥐 (上下) 新興童人會 / 童謠 숨박국질 / 〃 저녁때

빅타-레코-드

生徒募集 土木科 測量科 私立 大田工科學院 英實學校 補缺生徒募集

▲九月末日限 出願 ▲學則要三錢切手 ▲考査日十月二日 ▲入學日十月五日 ▲大田府大東町

募集人員 第一、二、三、四學年各若干名 出願期日 昭和十三年九月八日 試驗日字 同九月九日、十日 (詳細 要三錢切手) 平北江界邑東部洞 電話一七二番

9月1日→10月5日

秋冬服豫約拜承

純毛服準備의絶好機!

國產純毛優秀生地를豐富히具備하옵고 非常時經濟에奉應코저 例年과比等한價格으로 時局에相應한 秋冬服別誂註文을 拜承하오니 勿失此機!

豫約特價

A ¥47・00
B ¥52・00
C ¥57・00
H ¥62・00
S ¥67・00
冬服奉仕品 ¥35・00

全店秋節百貨充滿!

婚禮用家具賣出 六階

花柳洋服欌……58・00부터
花柳衿枕欌……57・00 〃
花柳三層欌……57・00 〃
花柳衣巨里……62・00 〃
鏡臺……6・00 〃
體鏡……9・00 〃

婚禮調度品及室內裝飾別誂註文拜承

秋節紳士用品

후아-帽 ・00—20・00 (一階)
우-ㄹ帽 ・00— 5・00 (〃)
캡 ・10— 4・50 (〃)
가을메리야스샤쓰…1・30부터 (二階)
와이샤쓰…・50 〃 (一階)
넥타이…・80 〃 (〃)

秋節婦人小兒用品

婦人샤쓰…1・20부터 (三階)
絹洋襪…1・20 〃 (〃)
코-ㄹ셋트…・50 〃 (〃)
小兒잠바-…1・50 〃 (〃)
小兒샤쓰…・55 〃 (〃)

京城 和信

謹告

今般朝鮮酒酒造組合令施行을契機로하야 酒質을向上함과同時에 酒價를左와如히統一하얏삽기謹告하나이다

濁酒 一斗에對하야 一圓八十錢
藥酒 一斗에對하야 四圓五十錢
實行期 昭和十三年九月一日

昭和十三年八月 日

京城朝鮮酒酒造組合內
京城朝鮮酒酒價維持委員會 白

世界唯一 小型純冷始動 ヤンマーヂーゼル

農工移動用

大量製產 在庫豐富 カタログ贈呈

1.5 2 3 3.5 馬力 / 4 4.5 5 馬力

据付小動力用

5—6 馬力 7—8 〃 / 10—12 馬力 15—17 〃

本機特長 一、燃料費極メテ僅少 二、純冷始動ニシテ取扱容易 三、回轉円滑 四、作業能率倍加 五、輕量ニシテ移動容易 六、サービス万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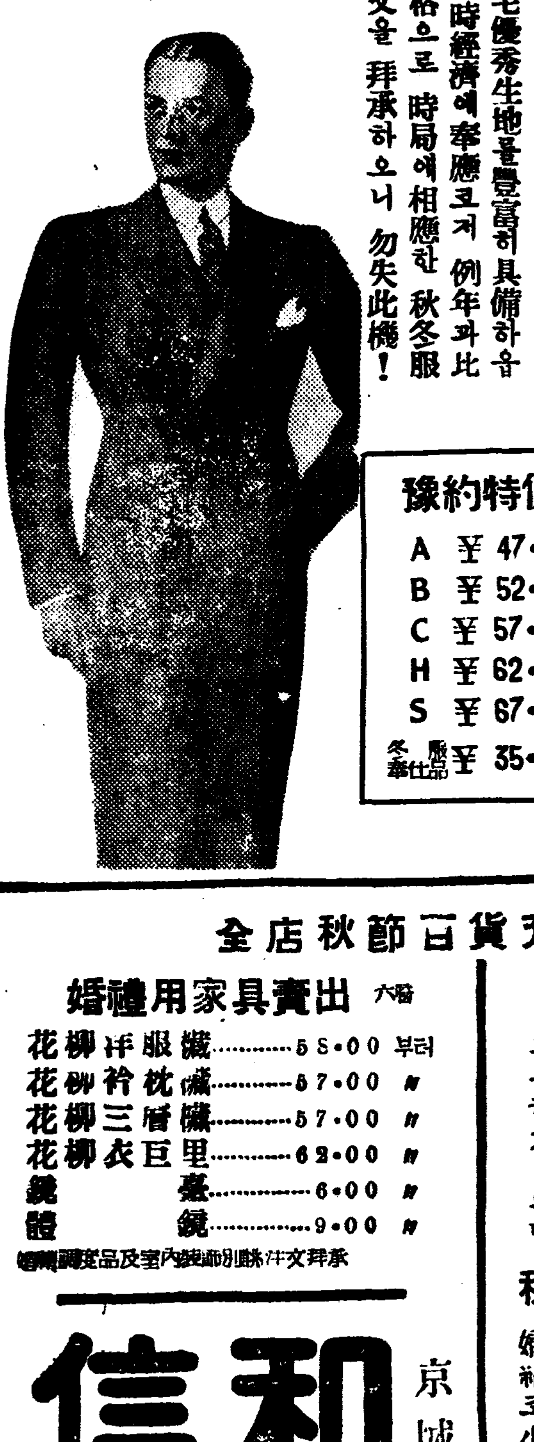
甲位入選 於農林省小型ヂーゼル比較審査 昭和十三年二月二十四日発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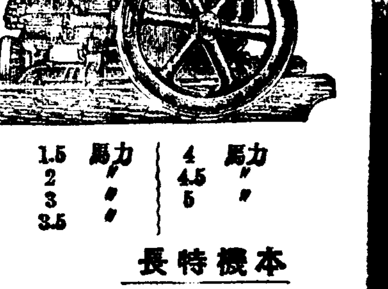
入選機 S型四馬力 H型五—六馬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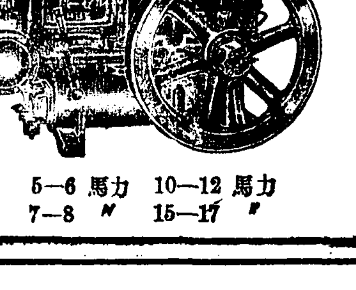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京城府京城驛前 電話本局一〇〇三番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本日マクニンデー

蛔虫은「病缺」을면고「能率」을올린다







民需制限物資解剖 ⑪

아루미늄

「아루미」는「니켈」과가티 輕合金材料로서 重要하는데 그 重要性은「니켈」以上이다. 周知하는바와가티 釜、食器類의 家庭用金物을 爲始하야 醫療器械其他의 機械器具及 其部分品으로서 使用되는 同時에 軍需品으로서 航空機、自動車、船舶其他의 兵器用으로서 重要한것이다. 特히 最近에는「주랄민」의 合金材로서 極히重視되고잇다。

그러면 그需給狀態를 보면 別表와가티「니켈」等에 比하면 自給率은 훨신크나 그래도 年年多額의 輸入을하고잇다. 昭和十年度에는 約一萬三千四百瓲(約一千八百四十萬圓) 十一年度에는 約一萬二百瓲(一千三百廿三萬圓)에 達하고엿다

「아루미」需給狀態(單位千瓲)

	生産	輸入	輸出	消費
昭和八年	一	七·三	〇·三	七·〇
九年	〇·七	一〇·三	〇·三	一〇·六
十年	四·四	一三·四	〇·九	一六·九
十一年	六·七	一〇·二	一·六	一六·〇
十二年(推定)	一〇·〇	一〇·〇	一	二〇·〇

特히戰爭以後로는 需要가激增되엿슬것인데 이와가튼 需要增加에 對應하야 專心軍需用을 確保함에는 될수잇는대로 國內의 增産을圖하고 輸入을抑壓하는것이 必要한것은勿論이다.

我國의「아루미」事業은 昭和九年에 操業을開始한 日本電工이 嚆矢인데 現在能力을보면 如左하다.

▲年産能力(瓲)

日本「아루미」	六、〇〇〇
日滿 同	五、〇〇〇
日本電工	七、二〇〇
住友「아루미」	一、五〇〇
日本曹達	一、五〇〇
計	二一、二〇〇

그리고右會社는 모두二倍乃至三倍로 增産擴張을 計畫中이며 其他日東化學肥料가 主要品販賣業(六千瓲)朝鮮産業으로서 年産五千瓲)大朝鮮窒素等이새로히 進出을 計畫하고잇다. 그러데 이에必要한 原鑛은 住友朝鮮에서는 朝鮮産明礬石을利用하고잇고 其外는 大概「보-키사이드」粘土를 關東州、蘭領印度『뉴기니야』等에서 輸入하고엿다 今後는 朝鮮北의 原鑛을 積極的으로 利用하는 同時에 技術을 改善하여 가는것이『아루미』自給增産計畫에 가장重要한 問題일것이다. 現在에는 輸入이一萬瓲에五百瓲(前年同期二百二十瓲)으로 制限되여잇다

이것은 他重要非鐵金屬과가티 品不足에 依한것이나 이러한 高價狀態를 放置하는것은 重大한問題이다 今後도 民需制限強化에따라 (品不足이甚하야) 生産増加하여질것이니 生産輸入을 適當히 調節하야 適切한統制機關의 設立이 要望되는바이다 最近生産者側에 잇서서 協定이 成立되고 뒤이어 目下工業組合의 設立을 準備中에 어디한다.

石炭酸

石炭酸은 平時에잇서서는 各種人造樹脂、殺菌消毒劑、各種醫藥品、各種染料及寫眞現像藥等의 原料로서 使用되고 戰時에는 爆藥原料로서 不可缺의 重要物資이다. 그러므로 優先的으로 確保함에는 極力一般民需의 使用을 制限하여야하게된것이다.

石炭酸의 需給狀態를보면 最近의數字는 發表되지안흠으로 不明하나 國內生産이 逐年增加되어 海外로부터의 輸入高를 減少하고잇는것만은 事實이다. 昭和十年까지의 需給狀態를 보면 如左하다.

石炭酸需給(單位瓲)

	生産	輸入	消費
昭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即國內生産高는 滿洲事變以前에는 千瓲臺에 達하지못하든것이 其後로는 需要高의 增加에 따라 千瓲臺를 突破하야 十年度에는 二千瓲에 達하게되엿다. 그러나 이와가튼 狀況이여 國內生産의 增加이다. 따라서 今後의 唯一한 期待는 國內生産의 增加이다. 即瓦斯會社의 石炭液化事業의 勃興、特히 石炭乾溜事業의 進出은 今後의 國內自給에 相當한 期待가 걸려잇다.

代用品의使命重大
"새로운物資創造"
一時不足物資補給이아니고 産業文化의新建設!

戰爭의目的을 遂行하기爲하야 만은 重要物資가 軍需中心으로 動員되여잇고 民需에向할 必要物資까지도 戰爭遂行을 爲하야 그使用을制限코 잇는터이데 物資動員計畫에 對處할 三大原則으로서 具體的으로 實施하고잇는것中의 하나인『代用品工業의 普及奬勵』라는것은 要約해말하면 結局軍需品에 轉向케한대문에 어로因하야 不足되는 民需用物資로 代用할만한 品種의生産工業을 普及시키는同時에 發達供給을 確保하고 따라서 一般工業을 旺盛케하라는데 歸着한다

따라서『代用品工業의 普及奬勵』는 皮相的으로 생각한다면 戰時中戰爭에 繼續되는 동안만 不足物資를 補給할代用品만을 生産하면 滿足하다고할 지모르며 또事實上으로도 最近 中央時局 或은地方의 代用品奬勵에 關하야 營業하고잇는 各機關等에 問議하야오는 所謂代用品에關한 相談質疑等은 大部分 어 이러한傾向이 顯著하게 나라나잇는데 이것은 모두認識不足이라아니할수업다

『代用品工業』其自體는 決코그러케單調한 工業部門이 아니다 簡單히말하면『新物資의創造』인 同時에『新生工業의 誕生』이다. 一國産業文化의 新建設이라고해도 決코過言이아니다

特히 我國은天然資源의 惠澤을 못밧은만큼 重要物資를 海外로부터 求하지안흐면안될點을 考慮하야『代用品奬勵』는 單順히 戰爭目的의遂行을爲한 不足物資의 代用品創造만에止하는것이아니다 戰時에必要할은勿論 國民生活의 運行으로서 不可缺한 必要物資를 創造치안흐면 안될것이다 從하야 그때그때의 姑息的代用品普及奬勵는 極力으로 排擊치안흐면안될것이다

七十萬키로發電設備 康德八年엔完成
鴨綠江水電의建設工事進捗

【新京三十日發同盟】鴨綠江水電社長野口遵氏는 一日總會에 出席키爲하야 三十日午後五時着旅客機로 來京하얏는데 同社의建設進行狀況에對하야 如左히말하얏다

國策事業임으로 日滿兩政府의 萬般의援助로 잘되어 建設工事가 着着進行中이다 康德七年秋에는 十萬키로發電機一臺가 動하고 爾後一個月 乃至一個月半마다 一臺식 增加하야 八年秋에는 七臺合計七十萬키로의 發電設備가 完成될것이다 此間의水害는流木이『세멘트』를 掃流하얏스나 格別한 支障은업다 發電機三台는 이미發注되엇고 來春에는 到着할것이오 남어지 發電機四台는 어듸注文할지 目下考慮中이다『세멘트』에對하야서는 優秀製造會社의 技術을 빌어 自家製造를 平壤、水豊의兩所에서行하고 來年秋에는 製品을낼 豫定이다 滿洲國五個年計畫의 修正에依한 鴨綠江水電의 建設計畫의膨脹乃至그것에伴한 增資等에對하야서는 아직具體的으로말할것이업다 阿吾地의 石炭液化事業은 發表된바와가티 事業이成功하얏는데 滿洲에의 液化事業進出은 아직具體化되지아니하얏다

九月一日에 二回拂込
滿鮮各千二百五十萬圓

【新京三十日發同盟】滿洲、朝鮮兩鴨綠江水力發電會社에서는 九月一日午前十時부터 日滿軍人會館에서 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建設第二期即本年上半期의決算을 附議할터인데 利益配當은 年五分으로 될모양이다 그리고 同社는 去六月의重役會의決議에 基하야 九月一日을 期하야 第二回四分의 一拂込滿鮮各千二百五十萬圓식을 徵收키로되엇다 同社의 資金으로서는 昨年九月創立의際에 向後四年間의 建設資金約一億圓으로하야 每年秋頃에 四分의一식拂入을 徵收하기로되엇슴으로 그期間의豫算及 拂込徵收에對하야서는 따로總會에 附議치안코 重役會에 一任키로하고 一期(半年)마다 決算을 總會의承認에 問키로된것이다 右에依하야 同社의 資金으로서는 創立으로부터 四個年間에 兩社合하야 一億圓의 拂込金이들어 올타인데 同社는 建設資金만으로도 材料品騰其他에依하야 一億圓을超過할뿐아니라 鐵道水運關係의 五子會社에對하야 資本金拂込과 그資金融通으로 約三千萬圓을 要할모양인데 右資金超過分에 對하야서는 借入金에 依하고 增資或은 社債發行은當分行치안흘터이라한다

倫敦金塊暴騰
一九三五年五月以來高價

國際情勢不安은 去益甚하야 大陸側의 資本家는 利子及證券額의低落을 犧牲하고라도 資本의安全을 圖謀하기爲한이들의 新規買注文이 殺到하야 倫敦金塊市勢는 今朝入電에依하면 마침내 一九三五年五月以來의 新高價인 七磅一志十一片으로 暴騰하고 昨日에比하야 一片二分一高이엇다 換算一匁로는 十四圓七十六錢九厘이다

全朝鮮會社5267
資本 公稱 十六億四千餘萬圓 拂込 十億二千六百萬圓

京城商議調查=七月中의 朝鮮內會社異動狀況은 如左하야 月末現在로는 社數五千二百六十七社 公稱資本金 十六億四千二百三十二萬五千圓 拂込資本金十億二千六百四十八萬八千圓이다 (單位千圓)

	社數	公稱資本金	拂込資本金
▲新設	七一	一六、三三六	一〇、六五一
▲增資	二二	一三、三三一	六、九一二
▲拂込	二一	—	四、五九八
▲減資	七	三三七	三三七
▲解散	六二	一四、五二六	七、二一三

前年同期에比하면 社數는 三百二十七社 公稱資本金은 三億七千二百五十八萬圓 拂込資本金은 三億四千六百二十八萬九千圓의 各增加이엇다

米日爲替續落

今朝入電에依하면 米日爲替는 二十八弗三十五仙으로 前日에比하야 五仙低로續落이엇다

政府米輸送과 輸送協會態度
公定運賃嚴守

農林省의 第二次朝鮮米內地移送은 又復그輸送入札을 圖謀하고 近海海運에 一波亂을 投할 形勢인데 右에 對한 朝鮮米輸送協會各社의 一致한 態度는 如左하다

一、朝鮮米運賃에 關하야서는 總督府의 遞信、殖産、農林의 三局에서 定한 公定市勢가現存하는 以上、이것을無視하는것은 協會各社로서는 할수업다

一、그리고 最近의 海運界의實狀으로보아 昔과가티 競爭할時代가 아니오 協調하야 海運報國할이當然하다

以上에 依하야 前回同樣現行朝鮮米運賃基準의 入札을 行할듯한데 어에 對하야 農林省側과 背馳한 近郵、山下、大同等의 態度가 注目된다한다

秋繭價格協定
三日에協議會

總督府에서는 來九月三日各道蠶業主任朝鮮蠶絲協會役員及南朝鮮七道의 主要蠶種家等六十餘名을 招致하야 午前八時부터 第一會議室에서 秋繭價格協定會를開催하리라한다

金組事業에盡力
松本新金聯會長談

金融組合聯合會會長을 本日付로 發令된 朝鮮製鍊社長 松本誠氏는 三十一日 製鍊社長室에서 如左히말하얏다

本日午前總督府에서 正式辭令을 밧엇다 今回의 金聯就任에關하야 私情으로말하면 現在의朝鮮製鍊의일에對하야 끈키어려운愛情을感코잇다 産金은國策的緊急事業이오 製鍊社自體로서도 給與期를버서나 本格的時代를마첫스니 創業時부터 苦心해오다로서는 이로부터 더힘쓸時期라는것인데 製鍊會社를떠나는것은 섭섭하다 그러나 나는 官吏時代부터 朝鮮에奉給하고 朝鮮을爲하야 所用이된다면 恒常念願는바이다 金融組合의 事業은 各道財務課長 知事時代를 通하야 나는 가장興味를感코엇섯다 例하면 今日의金聯에 關하야서도 理財課長時代에 中央機關設置의急務를 提唱한것等으로 相當히 金組運動에關하여서는 抱負도가지고잇다 最近의 金組는組合員이 農民의六割이나 包擁되엿고 新事業方面에進出도 엇서 聯合會長의 重責은 朝鮮統治上에도 重要性이크다 내가 果然

金組聯合會長後任 松本誠氏에게發令

朝鮮金融組合聯合會長矢鍋永三郎氏任期滿了에伴한 後任은 八月三十一日總督府로부터 如左히發令되엇다

朝鮮金融組合聯合會長을命함 松本誠

銃後食糧問題 ①
慢然한樂觀은不許

戰時體制에 移行함을따라 必然的으로 物資의缺乏이 甚甚하여진다 그러므로 政府에서는 現下의國民生活을 維持하는데 必要한物資를 最低限으로라도 確保하키爲하야 只今까지보지못하든 眞摯한態度로 對策을 考究하고잇는데 就中 注目할것은 從來閑却되기쉬웟든『食糧問題』가 急調로戰時政策의 前面에나슨것이다。

歐洲大戰에잇서서 獨逸이 戰略的으로 優勢를 占하고잇스면서도 食糧缺乏으로 敗戰한 事實이잇스니만큼 今日다시어 問題를 檢討하는것은 重大한新意義가잇슬것이다。

戰時下의 食糧確保의 重大性이 事變一年을經過한今日에 야 새삼스러히 喧傳되게된것은 勿論戰爭의 直接目的品의 調達에 奔忙하엿든것과 他政策에 餘念이업섯든것도 原因이겟스나 根本的理由는 我國에서는 食糧을自給自足할수잇섯다는데 잇는것이다。 이點에잇서서 英國이 小麥及小麥粉八〇%를輸入하여야하는까닭에大戰中食糧貯藏에 苦心하엿든事實에 比하면 我國은 그만큼 戰爭遂行上에 有利한 地位에잇는것이다。

그런데『食糧問題』라하여도『食糧』이라는것이 무엇이냐하면 그것은 勿論 絕對的國民食으로서의『米』오 現在情勢下에잇서서는 戰爭目的의米가 中心이다 그다음에 小麥、大麥、裸麥等의 麥類와 粟、甘藷、稗等의 雜穀인데 地域的으로 日、滿、支를單位로하는 境遇에는 高粱、玉蜀黍、小麥、粟의重要性이 加하여진다。

即米穀은 內地約六千萬石(昭和十二年收穫高六千六百卅一萬石、自昭和七年 至昭和十一年 五個年平均收穫高 六千百五十七萬石) 朝鮮米約二千五百萬石(昭和十二年實收高 二千六百七十九萬石)、臺灣米(蓬萊米) 約九百萬石을合하야 約一億石을 供給하는데 需給狀態는 若干不圓滑하나 그다지窘塞치는안타。內地에朝鮮米 約一千萬石臺灣米約四百五十萬石을 移出시켜서 需給均衡을 維持하고 잇다。

또 小麥은 政府의 增産計畫이 漸次奏功하야 近時一千萬石(昭和十二年實收高九百九十九萬石—本年七月十一日發表의 收穫豫想一千四百[illegible]千石)을 突破하는 好成績으로되엿는데 需要激增에따라 增産對策을 進行시켜 外麥輸入을 全然阻止하려하고잇다。그리고 我國의 食糧問題가 樂觀되는것은 一面海產魚介가極히 豐富하다는것이 原因이다

一個年의 魚獲數量이 一千萬噸을 突破하고잇는實績에 從하야도 肉類의缺乏은 魚貝脂肪으로되히 補塡할수잇는것이다 다시砂糖을 보아도 臺灣의產糖高를보면 大正十四年에는僅七百九十九萬二千擔이엿든것이 昭和十二年에는 一千六百十萬四千擔으로倍加되엿다 또食料鹽은專賣制로配給에 걱정이업다 그러므로 我國은 米麥穀食을 主로하는 菜食偏重이아니라 動物食糧으로서의 水產物以下國內物이 豊富하므로 食糧問題에잇서서 比較的 餘裕를가질수잇는것이다. 그러나 이以上從來와가튼 樂觀的態度를取할수업는 緊迫한 情勢가 迫到하엿다. 至今에서 一步前進하야 增產、貯藏을圖謀하여야되게되엿다

製鍊社長不補充

矢鍋永三郎氏辭任에따라 金融組合聯合會長에 松本誠氏로 決定하고 三十一日附로서 總督府로부터 任命되엿는데 朝鮮製鍊社長의 後任은 當分間補充치안코 戶澤專務가 社務를 執掌하기로되엿다 그러나 製鍊社의 增資問題로 不安잇서서 資力을다하고저하며 支援을 기대리는바이다

下旬貿易出超 二千八百萬圓

【東京電話】大藏省發表 八月下旬 對外貿易統計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一〇〇、六〇一
輸入	七一、五一六
合計	一七二、一一七
出超	二八、〇八五
一月以降入超累計	一三四、八六三

第二回北支綜合 見本市日程

總督府主催의 第二回北支綜合見本市開催日程은 如左히決定하엿는데 開催地에서는 見本市、宣傳即賣會、展示會以外에 映畫會、座談會、産業經濟講演會、물産懇談會等을하기로되엿다

十月十八日부터二十一日 靑島
同二十三日부터二十六日 濟南
二十八日부터十一月一日 天津
十一月二日부터五日 北京
同六日부터十日 張家口

商工聯主催 見本市決定

京城商工組合聯合會主催一會員 組合聯合會에서는 三十日後三時부터 同所에서 開催되어 如左한議件을 決定하엿다

一、卸商聯盟會와의 共同主催見本市는 九月廿四、五兩日에亘하야 開催할것

一、歲末賣出은 時局에即한方法으로할것

卸商聯役員會

卸商聯盟會에서는 三十日午後四時부터同所에서 常任役員會를 開催하고 如左한 議件을 決定하엿다

一、京城商品見本市는 京城商工組合聯合會와 共同主催下에 九月廿四、五兩日에亘하야 行할

一、支那語講習會는 九月六日부터 十一月二十九日까지 每週火金曜日午後七時半으로부터 十時까지 御成町集會所에서 行함

一、仁川荷揚과 拔荷取締規約은 九月十三日에 行함

經濟界消息

○航空郵便物取扱狀況=最近一個月間의 航空郵便物取扱總數는 二萬六千六十五通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九千三百八十八通의增加이라고

○無煙炭配給會社分配當案可決=朝鮮無煙炭總會에서는 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 旭町本社에서 第二十二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繁忙期輸送對策 貨車運用協議會

鐵道局에서는 九月五、六兩日 佐藤營業課長司會下에 繁忙期의 輸送對策及列車運轉時刻改正에 伴한 貨車運用에 對하야 本局關係者並各鐵道事務所의 擔當者를 招集하야 協議를 開催하고 朝鮮鐵道局의大輸送陣容을 整備하기로되엿다

南嶺北馬

株……東京에서는 漢口陷落後의 和平到來에 歡喜를 하고잇고▲大阪에서는 漢口陷落後의 戰後市勢를 期待하고잇다고▲東新의 全國短期總取引高가 前年九月의 二十五%에對하야本年은 五十二%라는 激增이라고▲短期『오모와쿠』가 東新에 集中된것을 알수잇슬것이니 東新에의 思惑化는 戰時下市場의『惡』이라고▲東新의 思惑이 所謂市場을 惡化하는것은 必然的이라고▲和平이올지、안올지 그것이 大市勢의 有無를 決定할지게될것▲南京陷落後와가튼

米……問題의 颱風은 依然反動이 엇스리라고 豫氣는期待코잇는데 果如何

八丈島南東方海上에서 徐徐히 北北으로 進行하고잇다 그래서 今朝阪地는 三十錢臺로跳返함에따라 當地도 約十丁가량의 昇騰▲明日이 二百十日의 厄日인데 明日의 內地天候는 別影響이 업슬것이나 早晩間 그颱風이 內陸으로 上陸하는때는 被害는 免치못할 모양이라고▲그래서 市勢는 各地共히 强勢로 時日을 費하는모양인데 颱風의 去就가 가장 注目▲그러나 颱風一過後에는 强材一掃으로 反落할材料박게업슬모양 두고볼지어다

漢口市勢觀

漢口陷落市勢의出現時期는 依然問題이나 어쨋든 漢口陷落市勢를中心으로하야 漢口市勢가 出現한 때가『昆天井』이라는見解가 常識的인것갓다 그러나이러한見解는 側面으로보앗슬것이니 萬事는 戰局進展과 그를잇고도는 第三國主로英、蘇와의情勢如何에달렷다고 볼수잇겟다『漢口陷落』은 南京陷落이라는 蔣政權에對한 打擊의程度가다르다 따라서第三國의援蔣도 消極的으로되리라는 見解가잇는反面에『漢口攻略後에도 依然長期戰으로 될터이면 失業程度는 南京陷落후에 比할수업슬것이다 그러므로 反動低는 深刻할것이다』하는見解가 對峙하여잇다. 何方에 軍配가오를는지는 今後의 具體的情勢의 進展如何에잇슬것이다. 따라서 大市勢의展開를 確信해가는 强氣의進軍과 어데까지 事變長期의警告를 가지고

新甫發會豫想

明一日에發會할新甫十一限은一年中가장 米出盛期에 納會되는 限月임으로 依例히五、六十丁下輔로 發會될것을豫測할수잇다 昨年同期는 大阪六十九錢落地六十一錢의 下輔로內地米作七千萬石朝鮮米作二千七、八百萬石의 豊作豫想 遞込한것인데 今年은 昨年보다 稍히不良하야 今後天候가豐凶을좌우할것이나 今年의 豊作에는 未知이나 目前의現象으로는 平年作兩新의程度임으로 五十丁가량의下輔를豫想할수잇다고 그러데 今年의市勢位置는 大體昨年同期보다 四百丁以上의 高位에 잇서서 在米의 稀薄又는 農家의 賣惜方針이 鞏固함을 機로하얏스며 兼하야新米의買上關係가잇슴으로 大下輔期待키 難할것갓고 于先三、四十丁 下輔로보는것이 安當할모양이오 萬一大下輔로 發會되는때는 押目의買物이 續出하야 中先의 輔를縮少하게될지도未知이라고云云 果如何?

株式續騰 東新先驅

前場新高價

警戒를 靈時하든때에 依然히高價를 現出하고 東新九錢低의 一百四十五圓七錢紡一圓六錢低의 一百三十四圓三○으로 反撥하여 寄付後押目買人氣旺盛으로 東新七圓七、鐘紡六圓二의 新高價로 奔騰後 또利喰物에 結局東新六圓九、鐘紡五圓四에 大引

後場續騰

後場은 東新五高인 百四十七圓四、鐘紡一高인 二百三十五圓五 滿業二高인 十六圓八로 少高寄付後 又復新高價를 現出하야 結局 東新八圓五、鐘紡七圓三、滿業八圓四로 暴騰大引

無押의騰勢

當限落에 依하야 몸이가벼워진市勢는 先高豫想으로 因하야 人氣强堅하다 建玉關係가 良好한데 다가 長期戰豫見의 資源難株物色에 歐洲不安에 依한 船舶株活況에 刺戟을바더 主力株의 活動은 現由에 展開되엿는데 今朝에는 東新五圓七、鐘紡四圓三으로 高付하야 利喰에 依한 一押이 잇슬것가타 보이엿스나 市勢는 押目買가 遂彼하야 又復上騰을 開始하고 東新七圓七의 新高價出現을보앗다 그러나 市勢가 大

今日의市勢 (第一日)

國債釘付閑散

(東京電話同盟) 月末關係의 賣分會買豐이고 場面은 繼續하야 無味閑散이엇다 市勢는 長期 實物이모두 釘付商狀으로 推移되엿다

今日休會의市場

大阪長期及 大阪三品清算市場(綿絲、棉花、人絹)과 各地砂糖은 모두當限受渡準備로 前後場이 休會이엇고 朝取期米當限利米 及 各地生絲도 後場은例休이엇다

一、一般投資家의 賣氣은 依然하고 漢口陷落에 時日을 要한다면 또 方法도 ... 中心으로 彰大시키고잇는데 或은 取組를東新

期米 少强裡納會

前場少戾

今朝阪地初付三十五圓三十三錢인 八丁反高를發하고 中은 一圓○一錢인 一丁高로 先限은 三十二圓○七錢인 七丁反高로 當限은 三十九錢에서 三十八錢의 節○五錢이고 結局 阪仕四十一錢을보고 ○六錢에 納會되고後場은 當限受渡로 休會이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中	[illegible]	[illegible]
限	[illegible]	[illegible]

各地新甫下輔豫想

▲仁川 四十丁乃至五十丁▲釜山 三十丁乃至四十丁▲大邱 三十丁乃至四十丁▲群山 三十丁乃至四十丁▲木浦 四十丁乃至五十丁▲大阪 四十丁乃至五十丁▲東京 三十丁乃至四十丁▲神戶 四十丁乃至五十丁▲下關 四十丁乃至五十丁▲名古屋 三十丁乃至四十丁▲熊本 五十丁乃至六十丁▲金澤 二十丁▲京都 六十丁

二百十日마지 颱風염혀두고

今朝場으로써 納會를告하고 所謂 二百二十日을 마지하게 되엿다 此日은 立春으로부터 二百十日되는 即稻의發穗期인 가장 바람을두려워하는 厄日이다 그러데 一夜를 經한 二百二十日과內陸으로부터 『키로』의距離를 隔한 八丈島南東方海上에잇는 颱風은 그時間과距離의比例가 어떠한現象을招來할지 一般米界와 農家에서 크게憂慮하는中인데 今朝仁川觀測所에서 發表한 天氣豫報에依하야 左記와갓다

颱風은 八丈島南東方 約百『키로』海上에서 徐徐히 北北西으로 八丈島에는 北東風이 强하고 비가오며 近畿北東、北海道까지는 雨天 바람은 그다지 强하지아니하고 中國九州는 晴曇相半으로 朝鮮은 何等의影響이 업시朝鮮地方은 今明間朝鮮의晴

各地商狀

正米 區區

京城不變

新米出廻遲延說이 傳하는때에 內地在米의 激減으로 丸仁에 普通米까지에도 强態이나 恒日의 無難豫想에 多少照電이잇서서 所持側은 頑强態度이나 恒日의 無難豫想에 兼하야 古米拂下實施說로 目前低落될것을 推測하나 各地消算高로 來月 高價豫想이 어서 賣薄이며 市勢도 前價同際으로 不變이엇다 ㊣精良三等三三、八〇 四等三三、二〇 一等白米一三、九〇

仁川保合

明日로앞둔厄日은 全朝鮮的으로 平穩無難豫想의 稻作에對한 樂觀人氣로서市

群山奔騰

厄日은 無難豫想이나 新米出廻遲延說과 各地期米高로 來月高人氣에 兼하야 內地在米의 急減으로 因한 多少의 照電이잇서서 期待하든 時期가 到來햇다고 一般態度強硬化하야 極度賣惜態度이오 移出側은 絕品인지라 稅阪進出하야 市勢는 唱價마다 昂騰되여 三十錢奔騰을 演出하엿다 ㊣銀坊主三等三三、八〇 四等三三

大邱不變

賣惜으로 依然히 出廻가엇고 內地入荏杜絕로因한 買方의 沈默으로 市中은 極度閑散場面이다 恒日의 平穩과 古米拂下도 材料的으로 刺戟이업서 四圍에沒交涉으로 新動機待로推移이엇다 ㊣銀良 一等三三、一〇 四等三三

釜山奔落

恒日의推移를觀望하고 强硬하든 奧地는天候의 去益好調로因한 無難豫想으로되여 古米拂下와相俟하야 嫌氣賣物이續出되나 依然한買躊躇로 되는대로 放資하야 市勢는一舉에二十錢乃至三十錢暴落을 演出하엿다 ㊣銀良三等三三、七五 四等三三、五五 一等白米一三、六六 八五

木浦保合

明日로앞둔厄日은 全鮮的으로 平穩한 無難豫想되여 內地入荏를 依然히 消極的이다 朝鮮內에잇는 政府所有米의 內地移送은 多大한 衛剌을주어 持移出側에 嫌氣投物이 續出되엿스나 買方도 無碍하므로 崩落될번으로 嫌氣의困難하므로 今後의 推移待저 新米의出廻遲延說等에 겨우人氣를 下支하야 市勢도 前價同際으로 保合이엇다 ㊣銀坊主三等三三、六〇 四等三三、一〇 一等白米一三、七〇

京城物價 (卅一日)

品名	價格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 (卅日)

品名	價格
[illegible]	[illegible]

銀行券 (卅日)

品名	價格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品名	價格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鰯油粕 麥粉

品名	價格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品名	價格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品名	價格
[illegible]	[illegible]

正米 正租

品名	價格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雜穀

品名	價格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品名	價格
◆京城綿系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品名	價格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今日財界 第一日

品名	價格
◆米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一等米一石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商品 綿絲	[illegible]
人絹	[illegible]
砂糖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株名	賣方	買方	取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步

株名	代引日步	代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品名	價格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東京短期 / 東京現株 / 大阪短期 / 東京短期取組

株名	寄付	大引	高價	低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品名	價格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生絲

品名	價格
◆橫濱生絲	[illegible]

期米 株式 大 仁川海岸町 京城黃金町 マルダイ取引店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東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